

2021 통일외식조사

통일과 평화, 시대와 세대 앞에 서다

일 시 2021년 10월 5일(화), 13시~16시 50분

장 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509호 + 온라인 회의(ZOOM)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통일과 평화, 시대와 세대 앞에 서다

1부 조사내용 사회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13:00~14:40	개회사	김병연 (통일평화연구원장)
	발표1 통일외식	김범수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발표2 북한외식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발표3 대북정책외식	김다울 (통일평화연구원)
	발표4 주변국외식	황수환 (통일연구원)
	발표5 북한이탈주민외식	최은영 (통일평화연구원)
	토론1 통일외식, 대북정책, 주변국외식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
	토론2 북한외식, 북한이탈주민	이주철 (남북교류협력단)

14:40~14:50 휴식

2부 심화분석 사회 송원준 (통일평화연구원)

14:50~15:35	발표1 주변국외식 심화 분석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표2 통일외식 추세 심화 분석	김학재 (통일평화연구원)
	토론3 지속가능한 통일 정책과 여론조사	이상신 (통일연구원)

3부 라운드 테이블

15:35~16:50	통일과 평화, 시대와 세대	김병연 (통일평화연구원장)
	미중경쟁 시대의 통일과 평화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 전 국립외교원장)
	MZ세대의 통일과 평화	오승희 (서울대 일본연구소) 김성희 (수원대학교)



통일과 평화, 시대와 세대 앞에 서다

목 차

1부 조사내용

발표1	통일의식	7
	김범수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발표2	북한인식	27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발표3	대북정책인식	45
	김다울 (통일평화연구원)	
발표4	주변국인식	61
	황수환 (통일연구원)	
발표5	북한이탈주민인식	75
	최은영 (통일평화연구원)	
토론1	통일의식, 대북정책, 주변국인식	93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	
토론2	북한인식, 북한이탈주민	99
	이주철 (남북교류협력단)	

2부 심화분석

발표1	주변국인식 심화 분석	103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표2	통일의식 추세 심화 분석	119
	김학재 (통일평화연구원)	
토론3	지속가능한 통일 정책과 여론조사	139
	이상신 (통일연구원)	



2021 통일인식조사

통일과 평화, 시대와 세대 앞에 서다

제1부 조사내용

발표1

통일인식

김범수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통일에 대한 인식 (요약문)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자유전공학부)

1. 통일의 이미지, 필요성과 이유

1) 통일의 이미지

통일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이미지는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으로 그 비중은 2018년 58.1%에서 2019년 60.6%, 2020년 62.9%, 2021년 64.3%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궁극적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즉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자유롭게 왕래·교류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을 통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통일의 필요성

통일 필요성과 관련하여 2021년 조사에서 “매우”와 “약간 필요하다”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4.6%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통일이 “별로”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8년 16.1%에서 2019년 20.5%, 2020년 24.7%, 2021년 29.4%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층에서 이 비중은 각각 42.9%와 34.6%로 40대 23.9%, 50대 26.8%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통일의 이유

통일의 이유와 관련하여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9년 34.6%에서 2020년 37.3%, 2021년 45.7%로 최근 다소 상승하는 추세이나 2008년 최고치인 57.9%에 비하면 아직 10% 이상 낮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간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2021년 28.1%로 2019년 32.%, 2020년의 37.9%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으나 2009년의 14.5%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당위 차원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최근 다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와 관련하여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라고 응답한 비중이 26.7%,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1.3%로 나타났다.

2. 통일의 추진 방식과 가능 시기

1) 통일의 추진 방식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추이를 보면 통일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남북관계가 급변한 2018년과 응답 항목을 구분한 2019년을 제외할 경우 지난 10여 년간 점진적 통일을 선호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반면 “현재대로가 좋다”라는 응답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대로가 좋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8년 16.8%, 2019년 19.7%, 2020년 21.4%, 2021년 25.5%로 2018년 이후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

2) 통일의 가능 시기

통일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2018년 조사에서는 “5년 이내”로 응답한 비중이 6.3%, “10년 이내”로 응답한 비중이 25.7%로 둘을 합해 32.0%에 달하였으나, 2021년 조사에서는 “5년 이내”로 응답한 비중이 1.3%, “10년 이내”로 응답한 비중이 7.9%로 둘을 합해 9.2%로 줄어 들었다. 반면 “30년 이상”과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2018년 각각 12.5%, 14.0%에서 2021년 25.2%, 25.6%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사회 전반에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통일의 편익에 대한 기대

1) 통일의 이익 기대감: 개인과 공동체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통일이 남한 전체에 이익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2019년의 61.8%에서 2020년 58.5%, 2021년 53.9%로 하락하였다. 또한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2019년 30.9%에서 2020년 25.2%, 2021년 26.8%로 하락하였다.

2)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념갈등, 지역갈등, 범죄문제에 있어 통일 이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각각 7.5%, 6.6%, 4.8%에 불과한 반면 악화에 대한 우려는 각각 76.5%, 71.1%, 70.4%로 모두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통일한국의 체제와 통일정책의 시급성

1) 통일 한국의 체제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와 관련하여 2021년 조사 결과는 2007년 조사 이래 다수 국민이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택한 응답은 2021년의 경우 과반이 넘는 50.5%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남북한 체제의 절충”을 선택한 응답은 2009년 최고치인 39.1%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나 올해의 경우 작년에 비해 다소 상승한 30.5%를 기록하고 있다.

2) 통일 정책의 시급성

국민들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북한 비핵화, 군사적 긴장해소, 북한의 인권 개선 등의 순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순위는 2018년 이후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는 순위로 북한 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통일을 이루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정기적인 남북한 회담 개최 등에 대한 시급성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결론: 주요 특징 및 경향

2021년 조사 결과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었던 2018년의 낙관적 분위기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2020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사그라들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사회 전반에 증가하고 있는 최근 분위기를 반영하여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 통일 이후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 등에 있어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앞으로 어떠한 추세로 변화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통일 한국의 체제와 관련하여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통일정책의 시급성과 관련하여서도 인도주의적 문제나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등 교류협력 보다는 군사적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

통일의식조사

김범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

●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

- 2020년 1월 22일: 북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폐쇄 시작 (외국인관광객)
- 2020년 6월 9일: 남북직통연락선 전면 단절
-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2020년 6월 17일: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병력 배치
- 2020년 9월 24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연평도 인근 선상에서 피살
- 2021년 1월 20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 2021년 7월 27일: 남북직통연락선 복원
- 2021년 7월 10일~8월 4일: 통일의식조사 실시
- 2021년 8월 10일: 남북직통연락선 단절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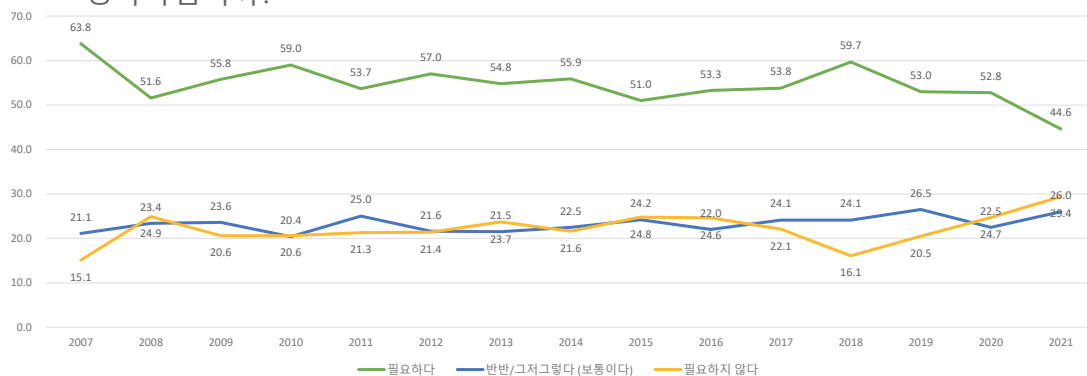
- 통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통일의 이미지	2018	2019	2020	2021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58.1	60.6	62.9	64.3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	14.8	15.0	13.3	11.6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19.3	20.0	17.7	17.8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	7.5	4.1	5.8	6.3
기타	0.3	0.3	0.3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필요성

-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 세대별 응답 비율

연령대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8	'19	'20	'21	'18	'19	'20	'21	'18	'19	'20	'21	'18	'19	'20	'21	'18	'19	'20	'21
19~29세	13.3	14.4	7.6	5.0	40.8	26.7	27.7	22.8	28.3	33.7	29.5	29.2	14.0	17.6	28.6	36.1	3.6	7.7	6.7	6.8
30대	17.3	11.7	16.8	9.6	35.6	26.5	26.2	31.3	27.4	36.9	26.2	24.5	17.5	21.5	23.8	28.8	2.3	3.4	7.0	5.8
40대	23.2	21.7	23.0	16.5	35.4	32.3	35.9	30.0	26.4	27.0	21.8	29.6	13.8	14.4	16.5	20.2	1.1	4.6	2.8	3.7
50대	27.2	25.9	28.0	15.1	42.2	36.1	34.9	31.8	16.0	21.0	18.4	26.4	13.3	14.6	13.0	22.5	1.2	2.5	5.8	4.3
60대 이상	24.6	25.1	26.9	20.6	37.5	41.7	33.6	36.4	23.4	15.6	18.2	21.0	9.3	11.4	18.6	18.0	5.2	6.2	2.8	4.0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 지역별 응답 비율

지역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8	'19	'20	'21	'18	'19	'20	'21	'18	'19	'20	'21	'18	'19	'20	'21	'18	'19	'20	'21
수도권	23.7	20.7	19.3	14.3	38.3	32.7	31.6	31.3	21.8	26.5	23.2	27.9	13.7	14.7	19.6	21.7	2.6	5.4	6.3	4.9
충청권	29.6	27.1	25.0	19.0	29.7	33.9	26.3	27.5	24.6	22.5	25.7	22.2	12.0	11.9	17.1	28.8	4.0	4.6	5.9	2.6
호남권	25.1	26.0	32.4	15.5	41.0	37.5	36.6	35.9	24.2	27.6	18.3	27.5	9.1	6.8	12.7	18.3	0.7	2.2	0.0	2.8
영남권	9.0	11.9	14.0	6.9	41.3	31.3	34.6	30.2	29.5	28.2	23.4	23.0	17.1	24.0	22.7	32.7	3.1	4.6	5.3	7.2
강원	45.9	27.2	24.4	27.9	37.2	30.2	26.7	20.9	12.9	25.0	11.1	37.2	4.0	11.0	35.6	11.6	0.0	6.6	2.2	2.3
제주	27.7	37.4	41.9	25.0	36.7	38.6	22.6	34.4	26.0	18.0	22.6	21.9	6.6	2.7	12.9	15.6	3.1	3.3	0.0	3.1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필요성

정치 성향별 응답 비율

지역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8	'19	'20	'21	'18	'19	'20	'21	'18	'19	'20	'21	'18	'19	'20	'21	'18	'19	'20	'21
진보적	27.5	31.6	27.5	19.5	39.1	35.9	38.6	32.8	21.8	21.0	16.7	24.0	10.0	8.6	14.1	20.7	1.6	3.0	3.1	3.0
중도	16.5	14.0	16.1	11.4	40.8	28.1	31.6	31.1	26.4	32.6	27.3	27.9	13.1	20.1	20.7	24.6	3.2	5.2	4.2	5.0
보수적	22.7	16.2	20.8	12.3	30.2	41.1	23.0	28.1	22.4	19.3	21.1	24.5	21.8	16.5	26.0	28.7	2.9	6.9	9.1	6.5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과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한인식	북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합계 (N)
통일필요성							
매우 필요		13.3 (22)	68.7 (114)	5.4 (9)	7.2 (12)	5.4 (9)	100.0 (166)
약간 필요		11.9 (44)	64.0 (236)	5.7 (21)	12.7 (47)	5.7 (21)	100.0 (369)
반반/ 보통이다		10.9 (34)	46.5 (145)	8.7 (27)	25.3 (79)	8.7 (27)	100.0 (312)
별로 필요하지 않다		9.5 (28)	29.2 (86)	6.1 (18)	34.2 (101)	21.0 (62)	100.0 (295)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3 (6)	15.5 (9)	3.5 (2)	41.4 (24)	29.3 (17)	100.0 (58)
합계(N)		11.2 (134)	49.2 (590)	6.4 (77)	21.9 (263)	11.3 (136)	100.0 (1,200)
Pearson chi2(16) = 193.250 Pr = 0.000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필요성

-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북한 통일 희망 정도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합계 (N)
통일필요성					
매우 필요	6.6 (11)	30.7 (51)	51.8 (86)	10.8 (18)	100.0 (166)
약간 필요	1.4 (5)	29.5 (109)	56.1 (207)	13.1 (48)	100.0 (369)
반반/ 보통이다	1.6 (5)	19.6 (61)	57.1 (178)	21.8 (68)	100.0 (312)
별로 필요하지 않다	1.0 (3)	13.6 (40)	59.0 (174)	26.4 (78)	100.0 (295)
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	15.5 (9)	48.3 (28)	36.2 (21)	100.0 (58)
합계(N)	2.0 (24)	22.5 (270)	56.1 (673)	19.4 (233)	100.0 (1,200)

Pearson chi2(12) = 80.0038 Pr = 0.000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필요성

- 통일의 필요성과 대북정책의 목표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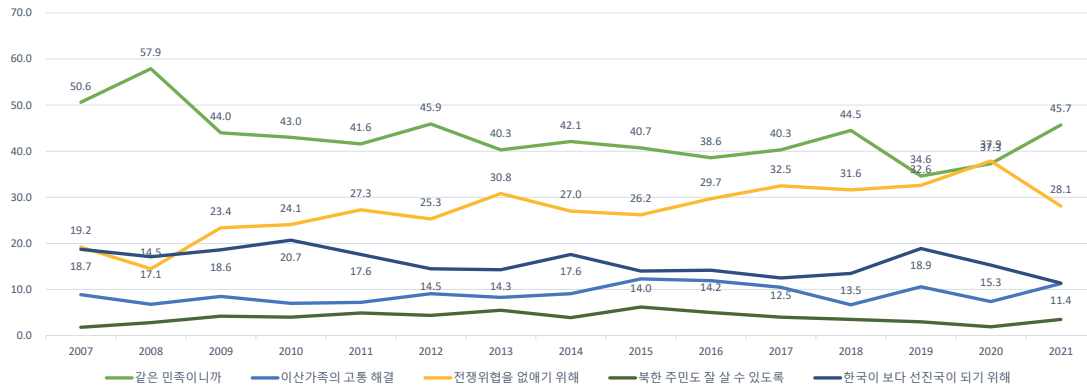
대북 정책 목표	남북통일	남북 평화적 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착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공동체 통합	기타	합계 (N)
통일 필요성					
매우 필요	23.5 (39)	51.8 (86)	24.1 (40)	0.6 (1)	100.0 (166)
약간 필요	26.6 (98)	51.8 (191)	21.7 (80)	0.0 (0)	100.0 (369)
반반/ 보통이다	12.5 (39)	60.9 (190)	26.6 (83)	0.0 (0)	100.0 (312)
별로 필요하지 않다	12.2 (36)	60.3 (178)	26.4 (78)	1.1 (3)	100.0 (295)
전혀 필요하지 않다	20.7 (12)	56.9 (33)	22.4 (13)	0.0 (0)	100.0 (58)
합계(N)	18.7 (224)	56.5 (678)	24.5 (294)	0.3 (4)	100.0 (1,200)

Pearson chi2(16) = 45.5326 Pr = 0.000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이유

-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식조사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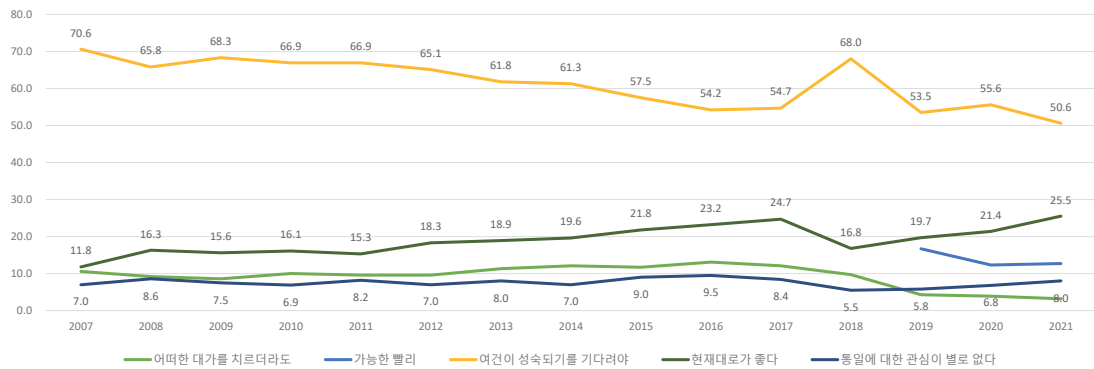
-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2018	2019	2020	2021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	19.2	17.9	21.1	21.3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13.7	12.7	13.4	16.3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35.2	38.8	34.8	32.1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26.8	25.4	27.6	26.7
통일로 인한 주변국 정세의 불안정	4.5	4.6	2.6	3.3
기타	0.2	0.2	0.3	0.1
무응답	0.5	0.3	0.3	0.4
합계(N)	1,200	1,200	1,200	1,200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추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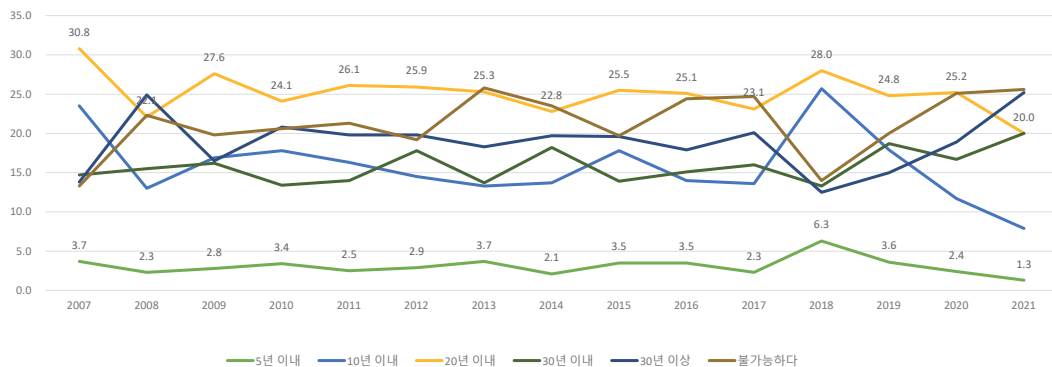
- 통일에 대한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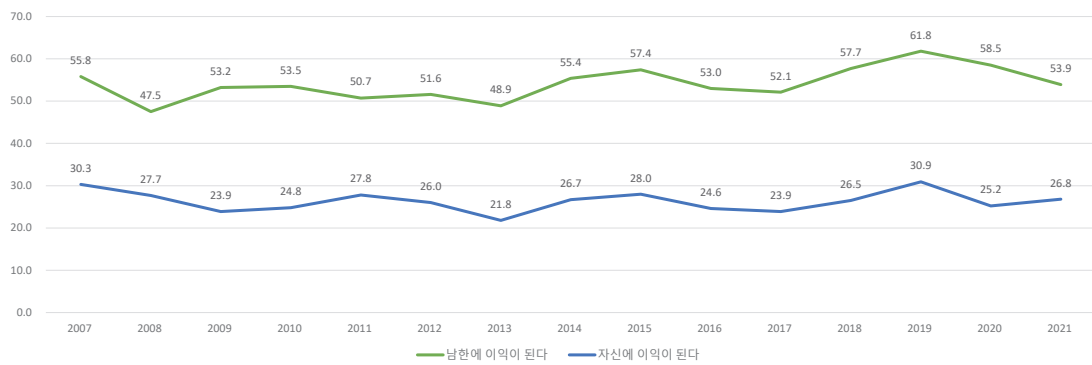
- 통일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이익: 전체와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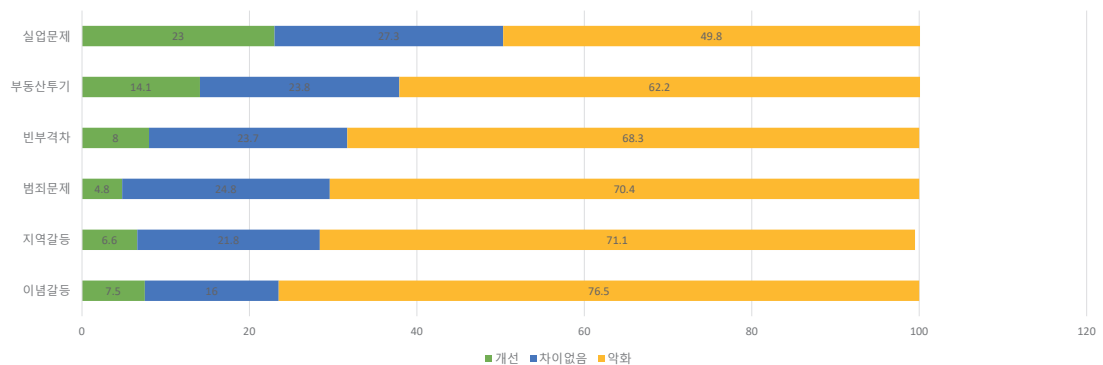
- 통일이 남한에 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식조사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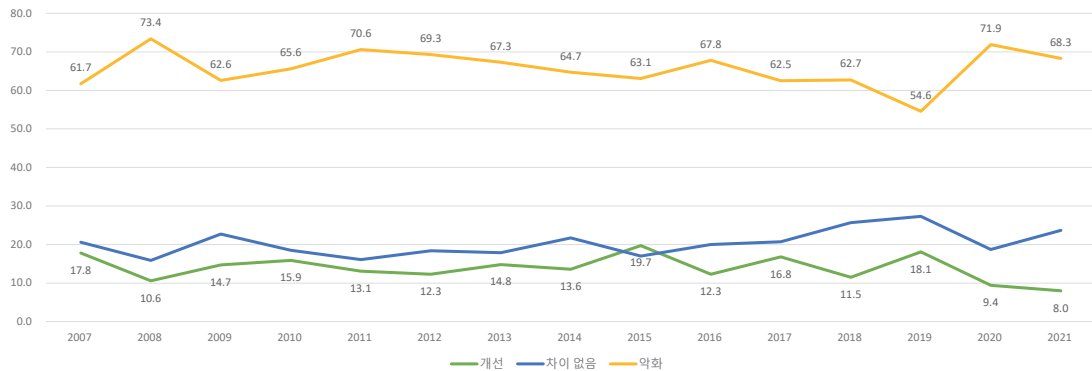
- 통일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시키는지?



통일의식조사

📍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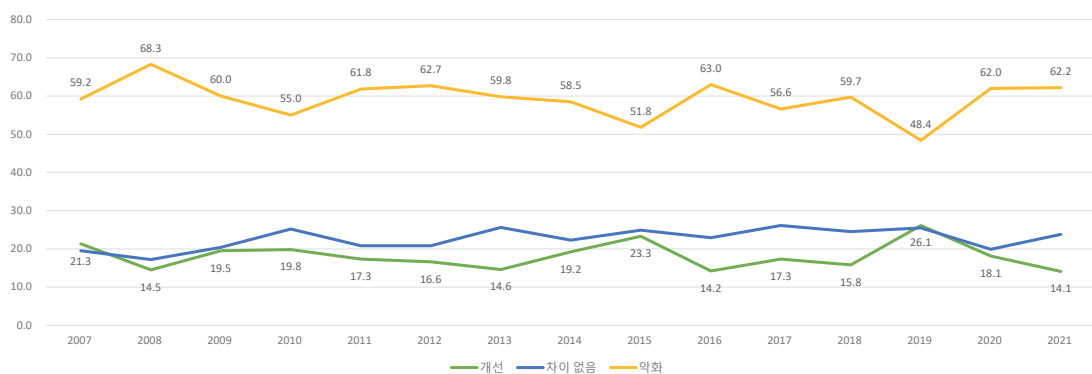
- 통일이 빈부격차 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시키는지?



통일의식조사

📍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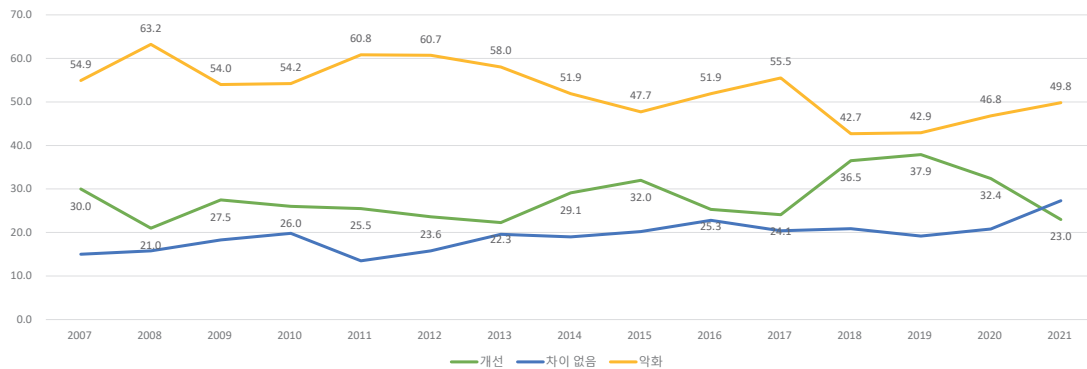
- 통일이 부동산투기 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시키는지?



통일의식조사

💡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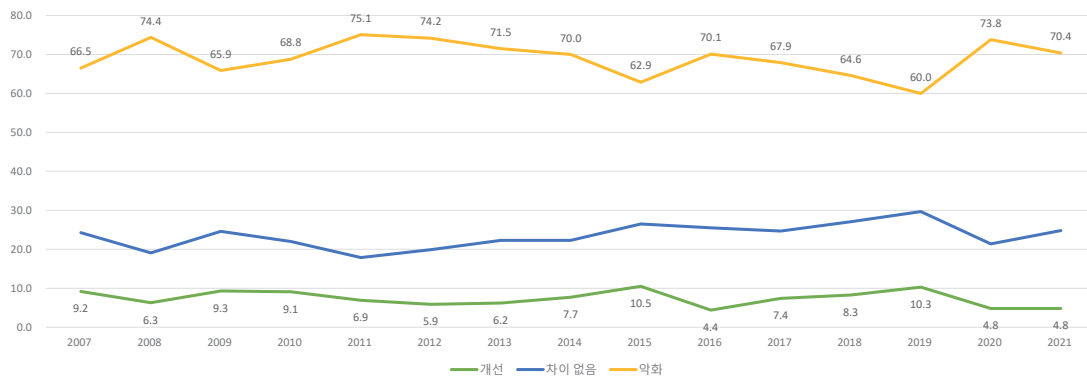
- 통일이 실업 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시키는지?



통일의식조사

💡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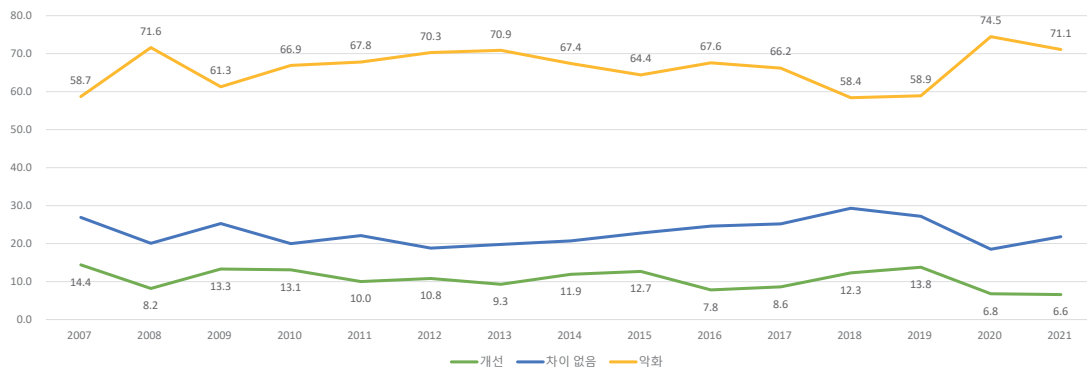
- 통일이 범죄 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시키는지?



통일의식조사

📍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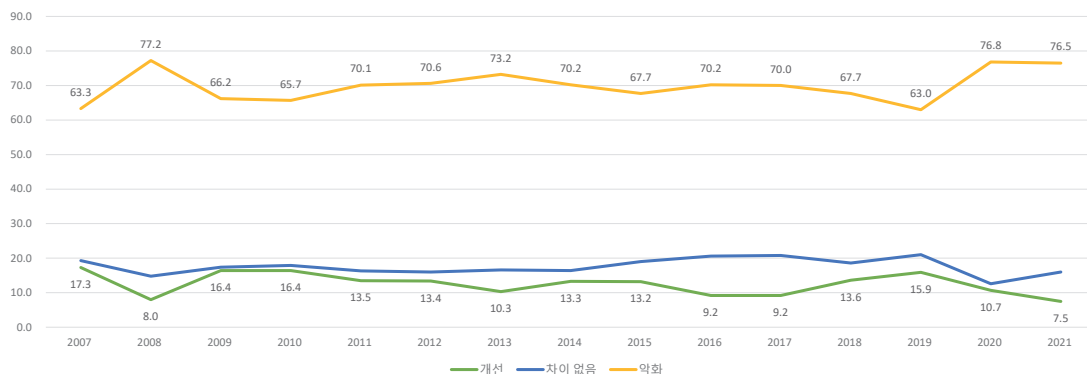
- 통일이 지역갈등 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시키는지?



통일의식조사

📍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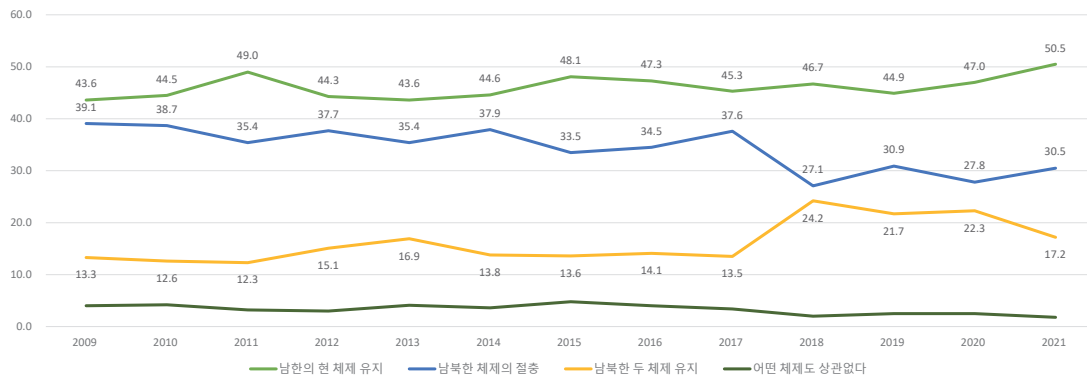
- 통일이 이념갈등 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시키는지?



통일의식조사

💡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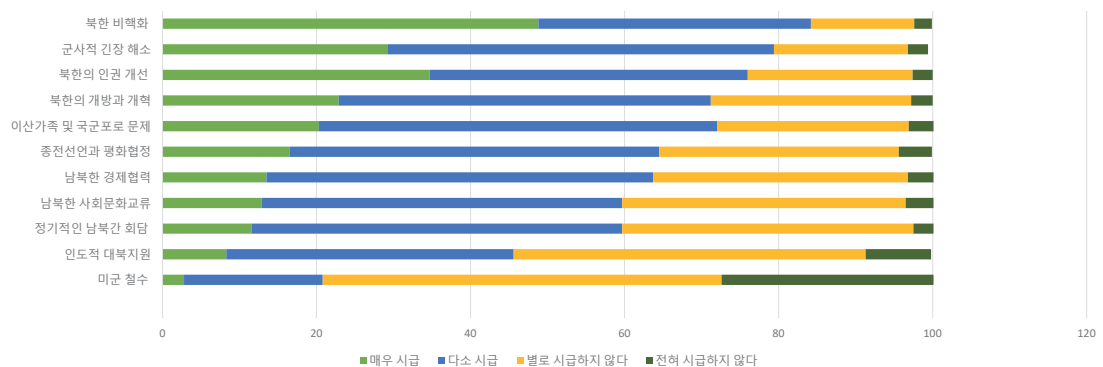
- 통일 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식조사

💡 시급성에 대한 인식

-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특징 및 경향

통일의 필요성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와 "약간 필요하다"를 합쳐 44.6%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
- 특히 20대와 30대 젊은층의 경우 "매우"와 "약간 필요하다"를 합쳐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27.9%와 30.9%에 불과한 반면 "전혀"와 "별로 필요없다"를 합쳐 필요없다는 응답이 42.9%와 34.6%에 이르고 있음

통일 추진 방식

- 남북이 2국가로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라는 응답이 2018년 16.8%에서 2019년 19.7%, 2020년 21.4%, 2021년 25.5%로 계속 상승
-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응답 또한 2018년 5.5%에서 2019년 5.8%, 2020년 6.8%, 2021년 8.0%로 계속 상승

주요 특징 및 경향

통일의 이익

- 통일이 남한 전체에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 또한 2019년 61.8%에서 2020년 58.5%, 2021년 53.9%로 지속적으로 하락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

-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특히 빈부격차, 부동산 투기, 실업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2018년과 비교하여 각각 10.1%, 12.0%, 14.9%, 7.2%, 8.4% 정도씩 하락
-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사회 전반에 증가하고 있는 최근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주요 특징 및 경향

❗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 2007년 조사 이래 다수 국민이 “남한의 현체제 유지” 선호
-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택한 응답은 지난 10여년 간 큰 변동 없이 대체로 43~50% 사이에서 움직여 왔으며 2021년의 경우 처음으로 과반이 넘는 50.5%로 상승

❗ 통일정책의 시급성

-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북한 비핵화, 군사적 긴장해소, 북한의 인권 개선 등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몇 년째 지속
- 북한 핵문제가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인도주의적 문제나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등의 문제 보다는 군사적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결론

❗ 2030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 2021년 조사 결과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었던 2018년의 낙관적 분위기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2020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사그라들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사회 전반에 증가하고 있는 최근 분위기를 반영하여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 통일 이후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2030세대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통일 한국의 체제와 관련하여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통일정책의 시급성과 관련하여서도 인도주의적 문제나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등 교류협력 보다는 군사적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

2021 통일인식조사

**통일과 평화,
시대와 세대
앞에 서다**

제1부 조사내용

발표2

북한인식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에 대한 인식 (요약문)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1. 대북 비판 · 부정인식 완화, 핵무기 관련 불안 · 위협은 증가

- 지난 1년 사이, 대북 협력의식 및 신뢰도가 정체된 가운데, 비판 · 부정 인식 및 무력도발 가능성은 소폭 낮아져 북한발 안보불안 완화. 그러나 핵무기와 관련된 불안과 위협은 증가.
 - 협력 48.2%→49.0%, 북한정권 신뢰도 33.7%→32.9%로 정체
 - 대북 적대인식 14.8%→11.2%,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61.2%→56.3%로 소폭 완화
 - 북한 핵포기 가능성 부정적 견해 89.1%로 높고 북한 핵무기 보유 위협 76.1%→82.9%로 6.8% 포인트 상승
- 2018년 이후 고조된 우호적 대북인식이 작년(2020년)에 급격히 악화된 이후 올해(2021년)는 정체 현상을 보였는 바, 남북관계 경색국면에도 북한이 작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파괴적 행동이나 물리적 도발을 하지 않았던 상황적 조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김여정과 리선권 등 북한 지도부의 구두위협이 있었으나 그 효과는 별로 없었음.

2. 북한사회 이질성 인식 완화, 그러나 인지도 하락

- 남북 간 이질성 인식은 올해 평균 68.9%를 기록했으며, 2019~2021년 81.8%→77.4%→68.9%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
- 북한관련 방송, 영화, 음악 등 접촉 경험은 22.5%→29.5%로 증가, 유튜브, SNS 매체 통한 접촉 21.7%로 많으나, 북한사회 인지도는 평균 5% 포인트 하락. 이는 남북접촉 · 교류의 단절 때문으로 보임.

3. 세대, 지역, 이념 차이 가장 큰 폭으로 분화 진행

- 대북의식의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세대와 지역, 교육과 소득, 종교, 계층, 정치성향 등의 변수가 작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세대, 지역, 이념에 따른 의식분화는 매우 큰 폭으로 진행, 최근 몇 년의 추세로 볼 때 올해에 분화의 폭이 가장 컸음.
 - 20 · 30세대의 대북의식이 악화되고 대북정권신뢰도 급락. 20대의 대북협력인식 44.4%→37.6%, 정권신뢰도 32.1%→24.6%(20대), 30대의 정권신뢰도 35.9%→29.3%로 하락.
 - 지역적으로는 호남권과 수도권의 북한발 안보불안 의식이 크게 완화된 반면,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대북의식 악화. 특히 호남권의 대북정권신뢰도 하락은 이례적이며 충청권의 대북 적대인식 상승과 함께 대북 협력의식의 분화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

- 올해 세대 · 세대 · 지역 · 이념 간 대북의식의 분화가 가장 큰 폭으로 진행된 데는 관계경색 지속과 평화형성 이완기에 나타나는 피로감과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남북관계의 위기국면이 조성되거나 평화국면이 형성되는 경우 세대와 지역, 이념 넘어 대북의식이 수렴하는 현상이 진행되며, 이완기에는 분화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

4. 전망

-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경제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향후 1년 간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물리적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이 북한의 기대만큼 대북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낮은 답보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남북관계가 특별한 변화없이 지속된다면 북한발 안보불안은 더 완화되고 부정적 · 비판적 대북의식이 완화될 것이며, 그에 따라 세대 · 지역 · 이념별 의식분화는 올해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

북한에 대한 인식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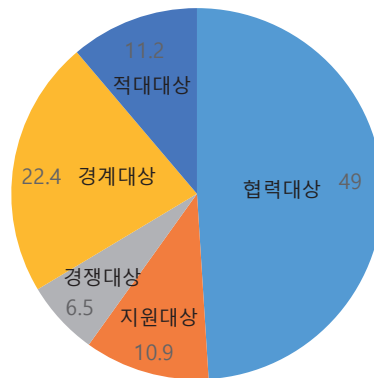
목 차

- I. 북한의 실체와 국가성 인식
- II. 북한정권 신뢰도
- III. 북한발 안보위협
- IV. 북한사회 인지도와 이질성
- V. 결론

I. 북한의 실체와 국가성 인식

I-1.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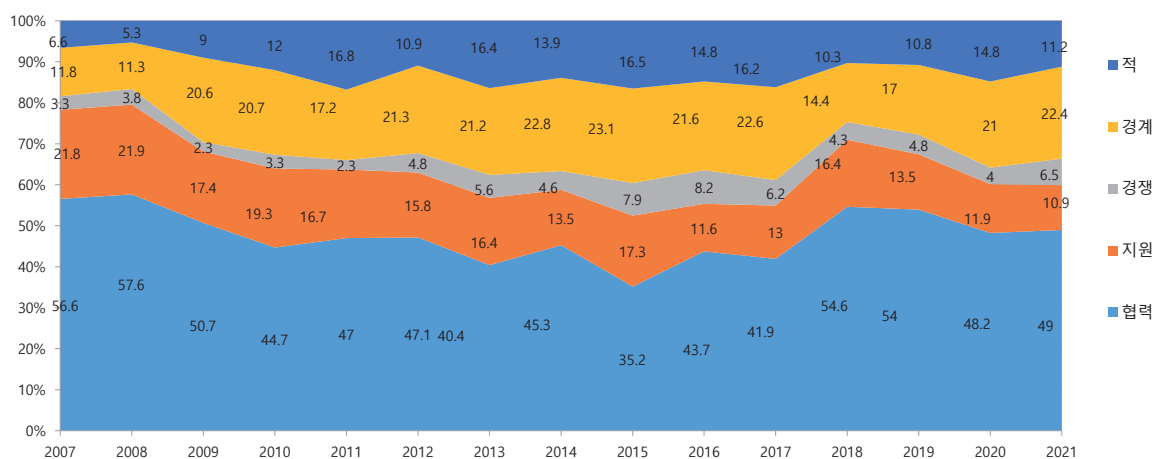


- 협력대상+지원대상=59.9%, 적대대상+경계대상=33.6%

I. 북한의 실체와 국가성 인식

I-1.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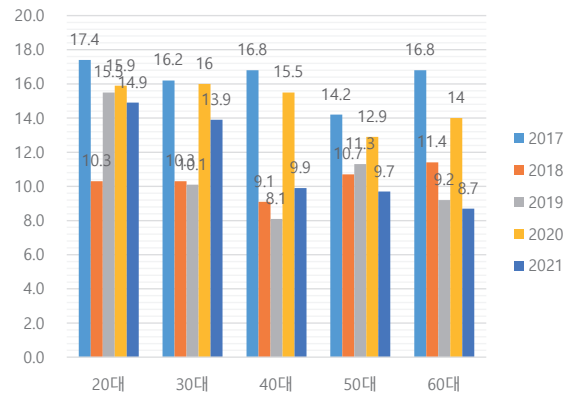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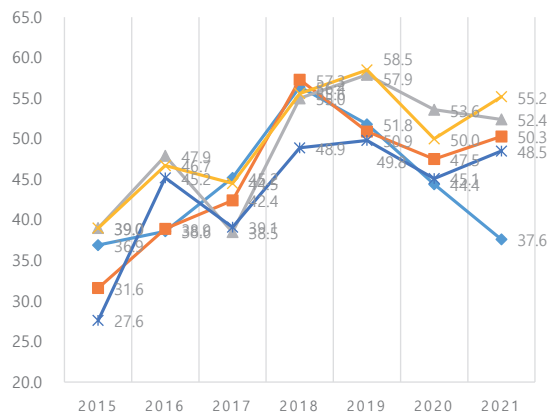
- 2018년 이후 협력의식 하락세, 작년과는 큰 변화 없으며, 적대의식 소폭 하락하면서 경계의식 쪽으로 이동

- 적대의식이 완화된 것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서도 북한의 파괴적 행동이나 심각한 도발 없었기 때문; 남북통신선 복원(7.27)은 거의 미반영.

I. 북한의 실체와 국가성 인식

I-1(1) 연령별 ‘협력대상’ 및 ‘적대대상’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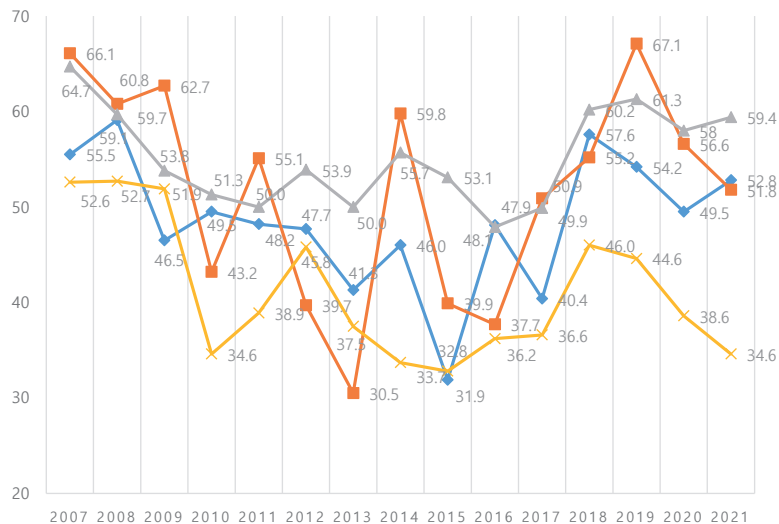
- 남북관계 경색 **지속** 국면에서 세대별 인식분화 대폭 확대
- **20대**만 대북 협력의식 급락

- 전 연령층 대북 적대의식 하락, 최근 3년 간 상승하던 추세가 꺾이고 대북인식 **개선**
- 북한의 물리적 도발이 없었던 상황의 결과

I. 북한의 실체와 국가성 인식

I-1(2) ‘지역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단위: %)



지역, 연령, 종교, 교육, 소득, 정치성향, 지지정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 대북협력의식 호남, 수도권 상승; **충청**, 영남 하락

- **충청권** 대북 적대의식 13.8%→16.3%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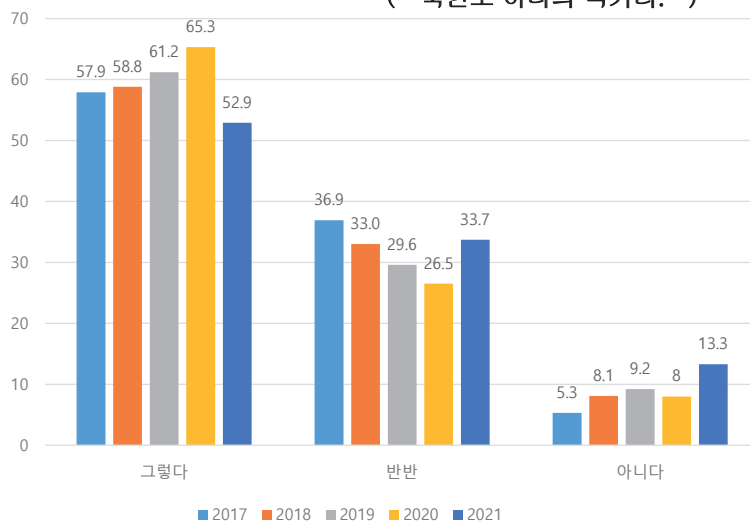
정치적 성향에 따른 대북인식

구분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매우진보	6.3	64.6	6.3	14.6	8.3
약간진보	11.0	56.9	6.8	17.8	7.5
중도	10.7	52.3	5.5	22.0	9.5
약간보수	12.4	34.0	8.5	27.7	17.4
매우보수	17.9	35.7	0.0	17.9	28.6

I. 북한의 실체와 국가성 인식

I -2. 북한의 국가성 인식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단위: %)



-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비율 하락, 65.3%→52.9%
- 국가성 인정은 지역, 정치적 성향과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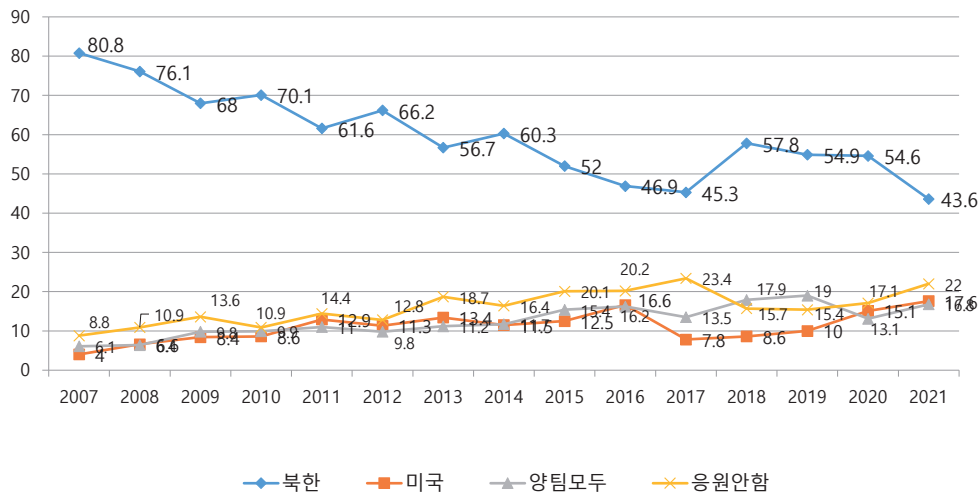
- 지역: 호남(63.4%)>강원(60.2%).제주(59.5%)>충청(58.3%)>영남(52.9%)>수도권(49.3%)
- 수도권 71.5%→49.3% 급락, 대북인식 부정적 선회

- 정치성향: 진보(57.3%)>중도(54.6%)>보수(45.8%)

- 탈냉전 이후 북한의 국가성 강화 추세 속 올해 하락, ?

I. 북한의 실체와 국가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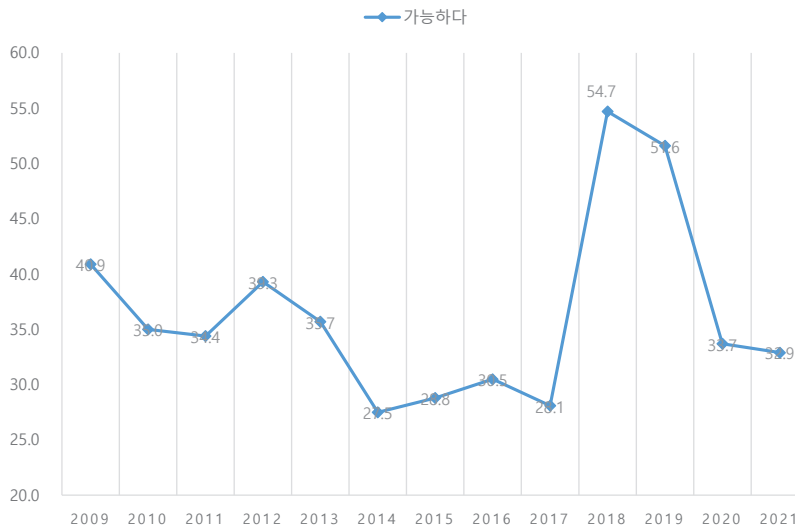
I -3. 북한의 국가성 인식: 민족의식 “북미 월드컵 경기시 응원팀 ”



II. 북한정권 신뢰도

II -1. 대화와 타협의 상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가?”)
(단위: %)



- 32.9% 남한주민,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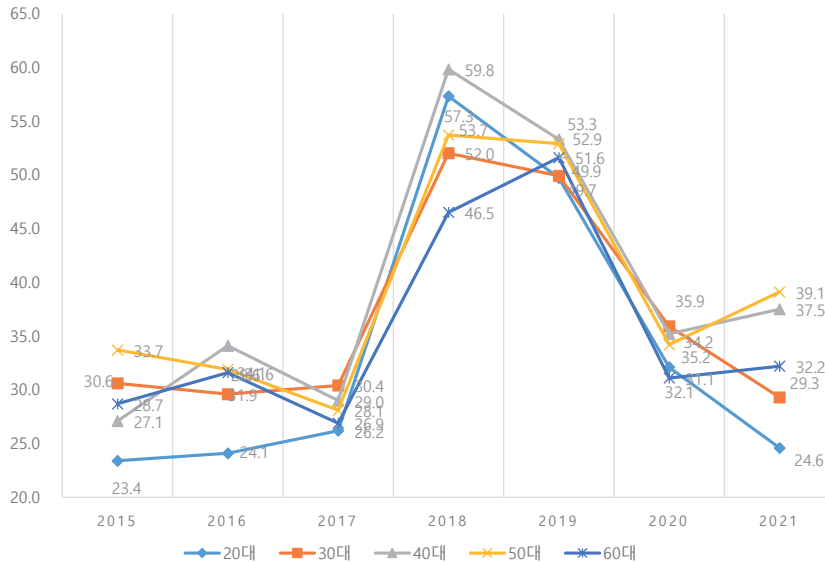
- 2018년 기록적인 신뢰상승 이후 3년간 급락,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 상실

- 연령, 지역, 종교, 소득, 정치성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존재

- 불교(34.2%), 기독교(34.0%), 무종교(30.6%) < **천주교**(46.3%)

II.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II-1(1) 연령별 북한정권 신뢰도: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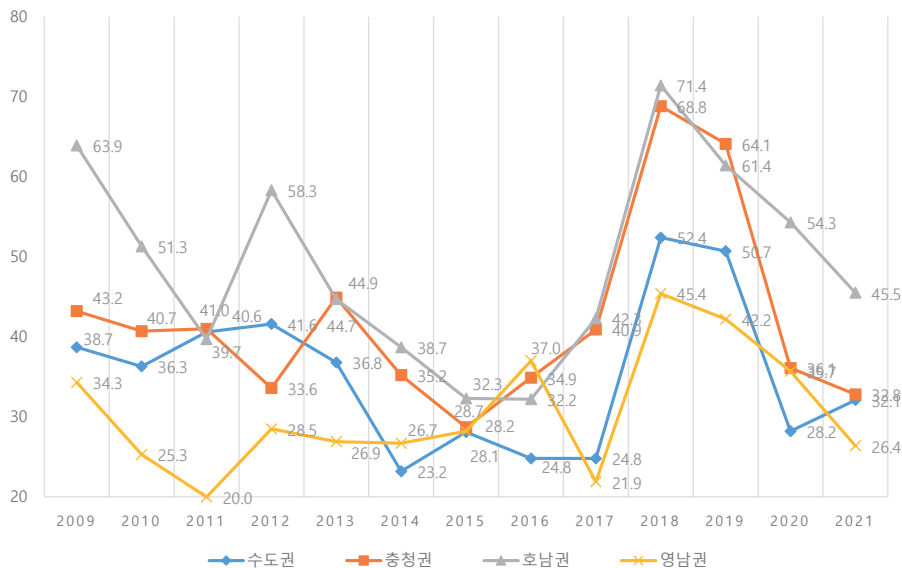
- 대북적대의식 **개선**으로
연령별 **의식분화** 진행, 10
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분
화

- 60대 정체, 40~50대 소
폭 상승 속, 20~30대의 대
북 신뢰도 하락

II. 북한정권 신뢰도

II-1(2)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 가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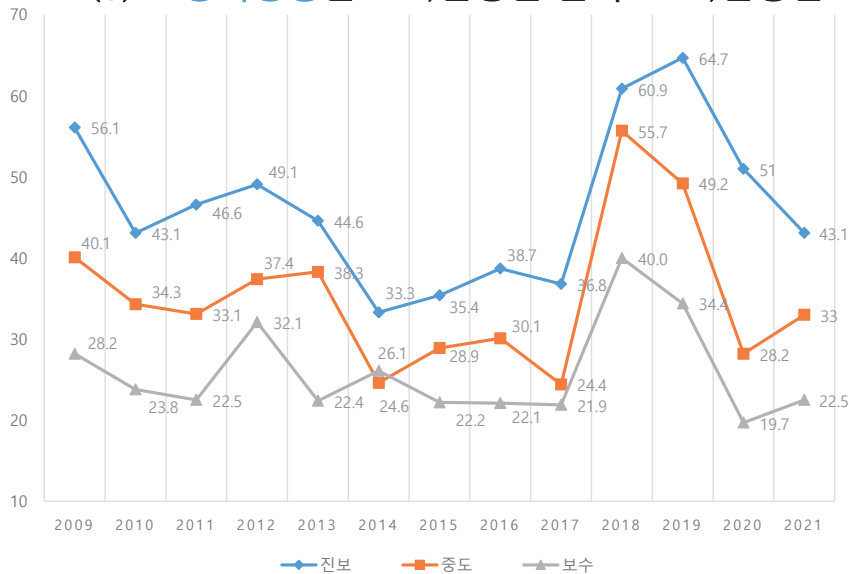
- 지역별 차이 뚜
렷

- 호남, 영남, 충
청 하락 속, 수
도권, 강원, 제
주 상승

- 수도권과 충청
의 대북신뢰도
수렴

II. 북한 정권 신뢰도

II-1(3)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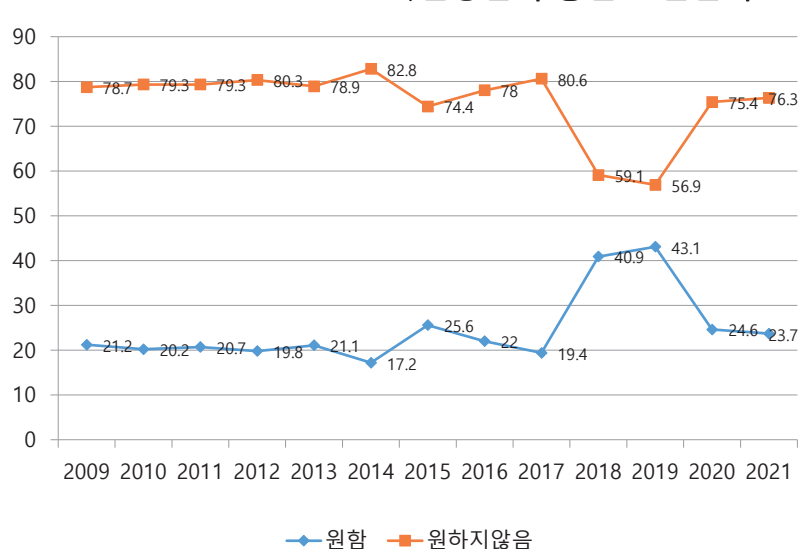
-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는 정치성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진보-중도-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

- 남북관계 극도로 경색된 2014년과 2017년 중도의 보수화, 평화조성 국면의 2018년 중도의 진보화 진행

- 2020년 중도가 보수로 기우는 경향, 그러나 2021년 다시 중간 지점 탈환

II.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II-2. 북한정권이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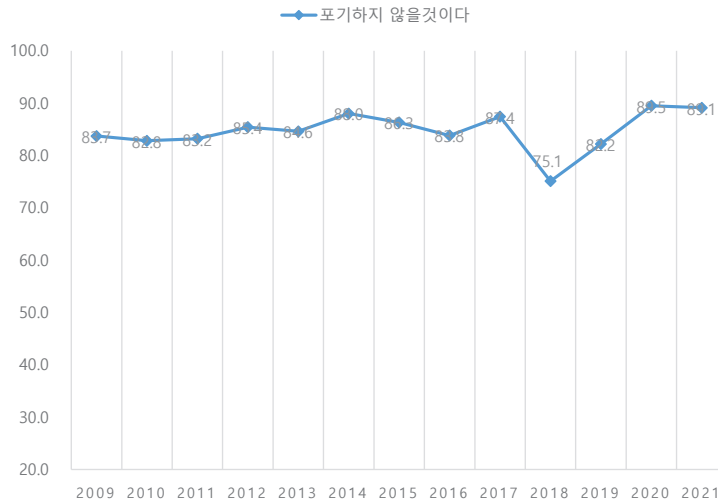
- 2018-2019년 상승 후 재하락, 예년 수준 유지
- 지역, 소득수준과 상관관계

- 제주(44.0%)>호남(34.5%)>충청(30.3%)>강원(28.2%)>수도권(22.0%)>영남(18.8%)

II.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II-3. 북한 핵무기 포기 가능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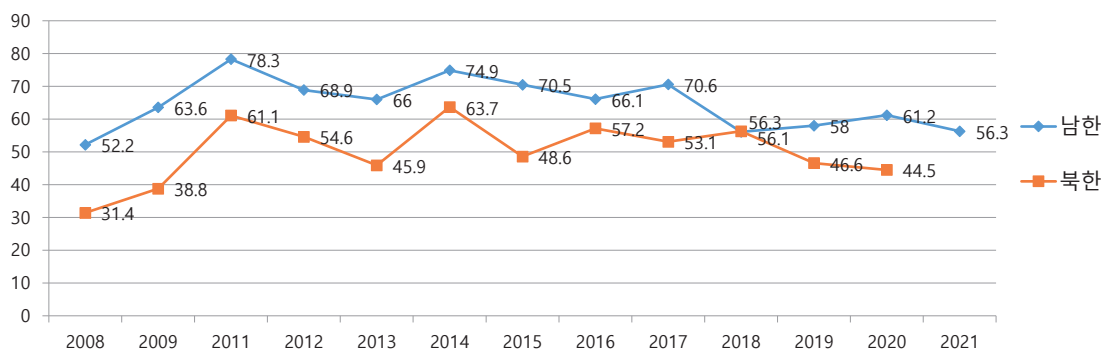
-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은 **89.1%**로 2019년 82.2%에서 증가, 작년과 비슷한 역대 가장 높은 수준 유지
- 변수별 차이 없이 수렴현상

III. 북한발 안보위협 인식

III-1.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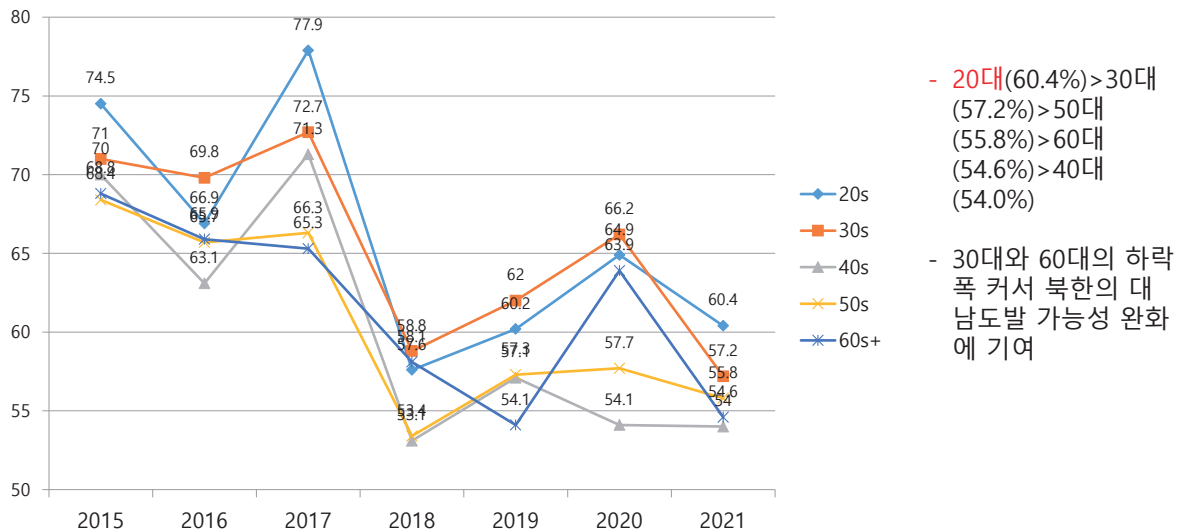
(단위: %)



-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61.2%→56.3%로 소폭 하락, 북한발 도발사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주원인
- 남북관계 안정적인 1993년 47.7%, 1999년 44.3%, 2005년 43%, 2011년 78.3%와 비교하면 안보불안은 중간 수준.
- 북한주민의식과 비교하면 대칭적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의식
- 연령, 지역, 사회계층, 정치성향과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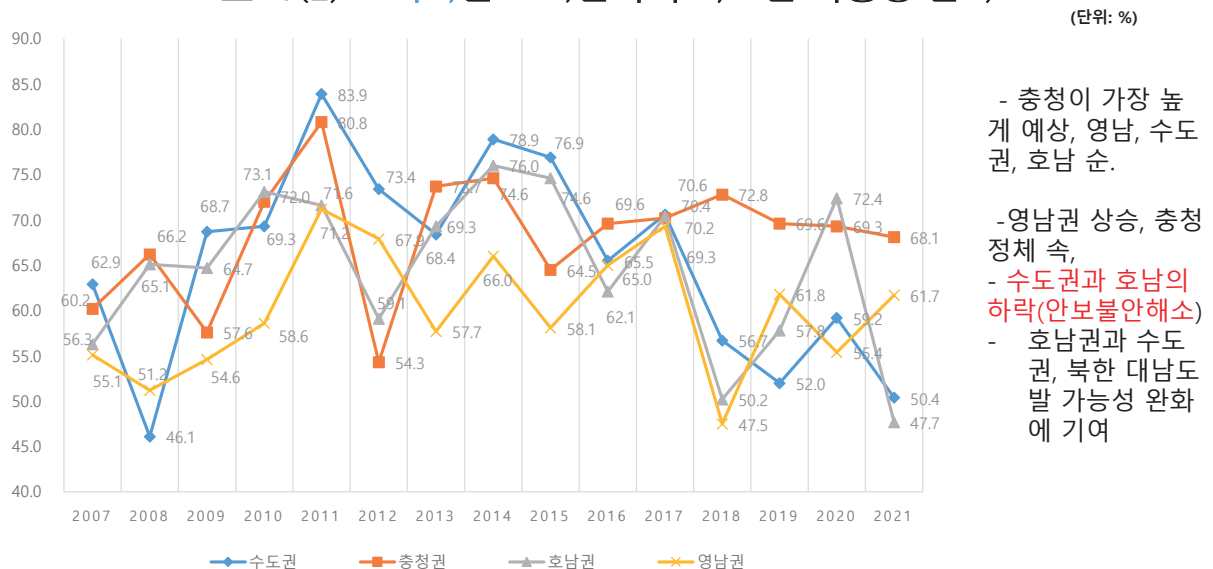
Ⅲ. 북한발 안보위협 인식

Ⅲ-1(1) ‘연령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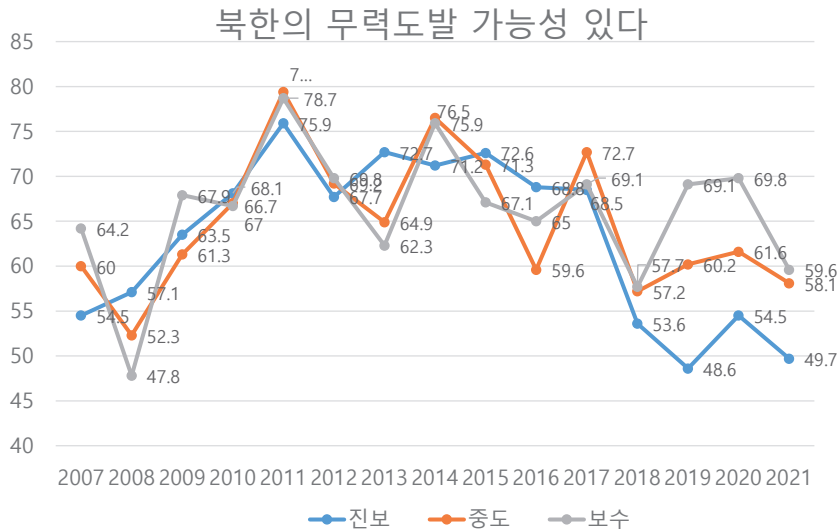
Ⅲ. 북한발 안보위협 인식

Ⅲ-1(2)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Ⅲ. 북한발 안보위협 인식

Ⅲ-1(3) ‘이념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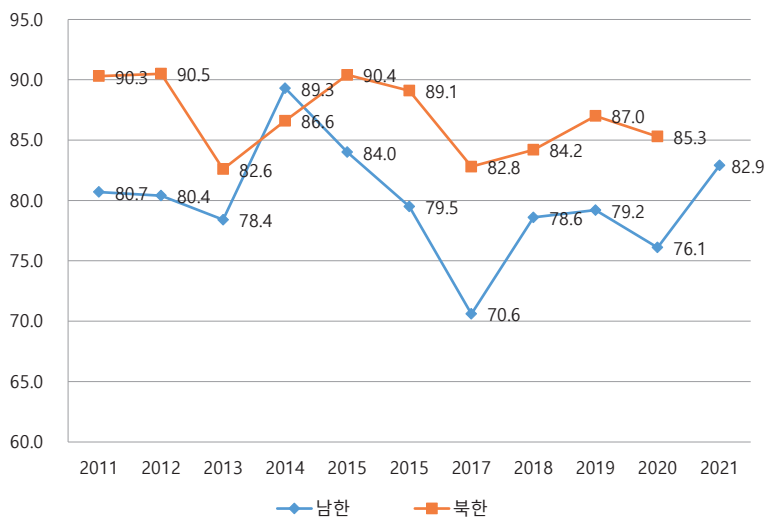


- 작년보다 보수의 예상 낮아져 총 청에 근접
- 전반적인 북한 대남무력도발 가능성 완화에 보수의 인식변화가 기여

Ⅲ. 북한발 안보위협 인식

Ⅲ-2. 북한 핵보유 위협 인식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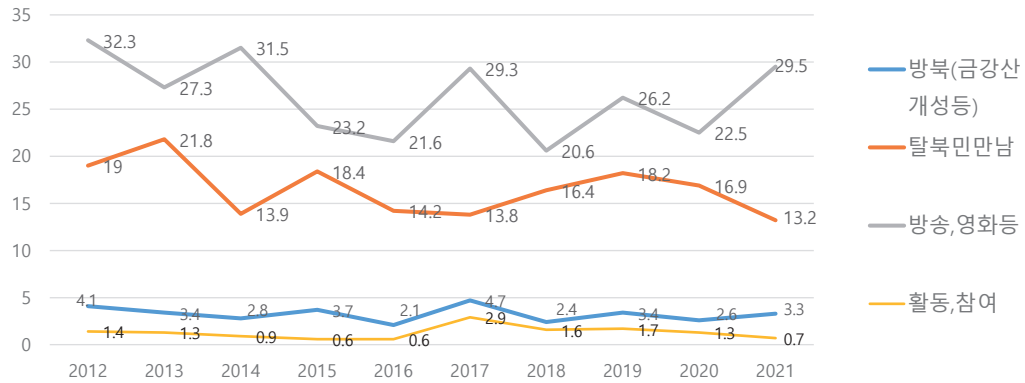
(단위: %)



- 북한 핵무기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 인식은 76.1%→82.9%로 상승
- 대북인식 개선 및 도발가능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북한발 핵보유 위협이 상승한 것은 의외의 결과
- 핵무기 자체의 파괴력을 잘 인지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이 낮고 비핵화 협상도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위협 인식 증가
- 위협인식 증가로 변수별 인식 수렴현상 진행, 종교 외의 변수와 관련성 없음
- 불교(85.0%),기독교(84.7%),무종교(82.6%)>천주교(67.2%)

IV. 북한 관련 경험, 인지도 및 이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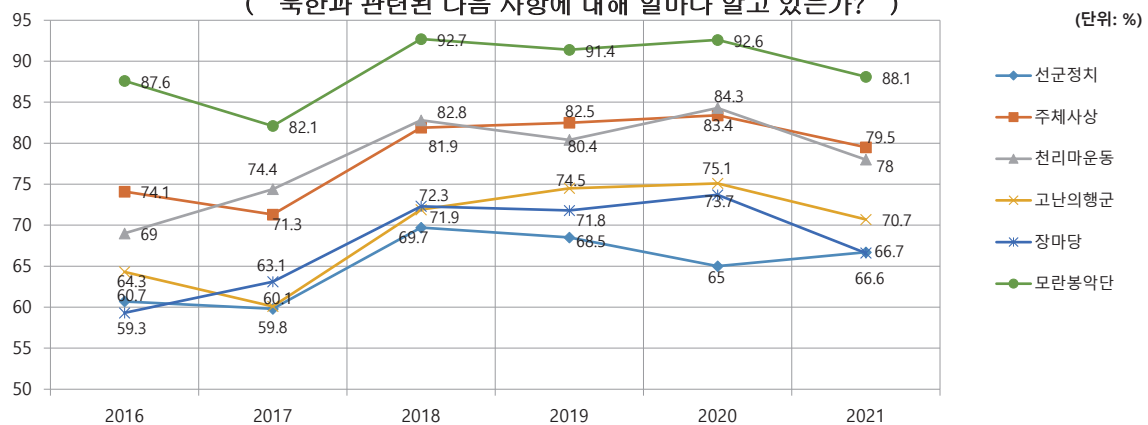
IV-1. 북한 관련 경험 유무 (“경험한 적이 있다”)



- 북한관련 경험은 북한방송, 영화, 음악 등 접촉경험 29.5%, 유튜브, SNS 매체 통해 접촉 21.7%, 탈북민 만남 13.2% 등.
- 국내입국 탈북자수 1,047명(19)→229(20)→36(21.6)

IV. 북한사회 인지도와 이질성

IV -2. 북한사회 인지도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 모란봉악단 88.1%, 주체사상 79.5%, 천리마운동 78.0%, 고난의 행군 70.7%, 선군정치 66.7%, 장마당 66.6%, 작년에 비해 평균 5% 포인트 감소
- 그러나 '잘 안다'는 사람은 모란봉악단 10.0%, 주체사상 4.4%, 천리마운동 5.4%, 고난의 행군 6.0%, 선군정치 3.3% < 장마당 5.3%에 불과,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IV. 북한사회 인지도와 이질성

IV-3. 남북 이질성 (“남북간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단위: %)

	남한(2021)	북한(2020)
선거방식	90.6	97.2
사회복지	91.1	93.6
언어사용	77.4	92.7
생활풍습	70.8	82.5
가족중시	41.7	69.7
돈중시	41.7	72.5
평균	68.9	84.7

- 남북한 주민 이질성 인식 평균 남한 68.9%,
- 2019~2021년 81.8→77.4→68.9로 이질성 완화
- 2011년 91.9%에서 지속 감소 추세

- 북한 84.7%(2020)
- 북한도 84.1→84.7→?로 완화
- 북한은 2014년 95.7%에서 지속 하락

V. 결론(1)

- 첫째, 북한에 대한 비판적/부정적 인식 및 북한정권 신뢰도가 정체된 가운데,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소폭 낮아져 북한 발 안보불안 완화
 - 2018년 고조된 대북협력의식이 작년(2020) 악화 후 올해 정체
 - 그러나 북한 핵무기와 관련된 불안과 위협은 76.1%→82.9%로 상승, 6.8% 포인트 증가(북한 핵포기 가능성 부정적 89.1%)
- 핵보유 위협 남북관계 경색국면임에도 작년과 같은 파괴적 행동이나 물리적 도발사건이 없었던 상황적 조건에 영향
 - 김여정, 리선권 등의 구두위협 효과는 별로 없는듯.

V. 결론(2)

- 둘째, 이질성 지속 완화; 그러나 사회인지도 하락, 접촉교류 단절의 결과?
 - 이질성 81.8%→77.7%→68.9%로 2007년 이래 지속 하락
 - 유튜브,SNS 매체 접촉 21.7%로 북한방송,영화,음악 접촉 22.5%→29.5% 증가
- 셋째, 세대, 지역, 이념에 따른 의식 **분화** 가장 큰 폭으로 진행
 - 20~30대의 대북협력의식 하락과 정권신뢰도 급락 등
 - 호남-수도권의 북한발 안보불안 완화, 충청-영남권의 협력의식 하락
 - 충청권의 적대의식 상승과 호남권의 북한정권신뢰도 하락은 이례적
 - 진보-중도-보수의 이념 간 편차 확연, 전형적인 대북의식 지형 형성
 - 대북 비판의식이나 안보불안이 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 지역, 이념 간 의식 분화 확대

V. 결론(3)

- 넷째,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 없는 한, 대북 부정적/비판적 태도 및 북한발 안보불안 완화 예상 및 추가 의식 분화 진행 가능성.
 - 위기/평화 국면에서 대북의식 수렴, 이완기에 세대,지역,이념 의식분화 진행
 - 북한의 유화적 행동 및 남북,북미 관계 개선시 대북협력의식 상승

변수별 대북인식 상관관계

		남북한 관계	북한의 국가성	북한 정권 신뢰도	최근 북한변화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북한 핵무기 포기	북한 무력도발	북한 핵무기 보유 위협
연령	Pearson r	-.097**	-.040	-.069*	-.042	-.052	.016	.097**	.006
	유의확률	.001	.168	.017	.145	.073	.590	.001	.835
지역	Pearson r	-.104**	-.098**	-.116**	-.098**	-.084**	.039	-.109**	-.051
	유의확률	.000	.001	.000	.001	.004	.172	.000	.078
교육 수준	Pearson r	.078**	.050	.043	.028	.038	-.045	-.042	-.040
	유의확률	.007	.087	.138	.336	.195	.119	.144	.169
종교	Pearson r	-.111*	.043	-.104*	-.083	-.035	.051	.020	.155**
	유의확률	.013	.341	.020	.063	.437	.255	.658	.000
소득 수준	Pearson r	.058*	.015	.076**	.039	.060*	-.049	.023	.024
	유의확률	.046	.611	.009	.179	.037	.087	.419	.411
사회 계층	Pearson r	-.038	-.031	.000	.037	-.003	.023	.139**	-.044
	유의확률	.186	.290	.991	.199	.921	.431	.000	.131
정치적 성향	Pearson r	.139**	.114**	.187**	.055	.048	-.018	-.078**	-.037
	유의확률	.000	.000	.000	.058	.098	.527	.007	.199

감사합니다.

2021 통일인식조사

통일과 평화,
시대와 세대
앞에 서다

제1부 조사내용

발표3

대북정책인식

김다울 (통일평화연구원)

대북정책 인식 (요약문)

김다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대북정책의 목표

- 2021년 통일인식 조사에는 대북정책의 목표에 대한 문항이 처음으로 포함됨. 평화적 공존 및 평화정착을 가장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하는 경우가 56.8%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 경제공동체 통합이 24.3%, 남북통일이 18.6%를 차지함.
 - 한편, 통일을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에도 51.8%는 평화공존 및 평화정착을 가장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꼽았는데, 이를 볼 때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인 대북정책 목표라기보다는 단계적인 목표로 해석할 수 있음.
- 다양한 집단 간 대북정책 목표의 우선순위에 있어 차이가 발견됨.
 -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평화공존 및 평화정착을 선택한 비중이 60.7%로 가장 높고, 통일을 선택한 비중은 15.5%로 가장 낮아 MZ세대가 통일보다 평화를 비교적 우선시하였음.
 - 지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평화공존 및 평화정착을 우선시한 비중이 50% 이상이었으나 특히 강원도와 중부권에서 각각 65.1%, 61.4%로 높았고, 호남권은 통일을 우선시한 비중이 21.8%로 타 지역 대비 높았음.
 -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한국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는 만족할 경우 통일을 우선시한 비중이 23.8%로 높게 나타남.
 - 대북인식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관찰됨.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여길 경우 정책 목표로 통일을 우선시하는 비중이 32.1%로 매우 높았고, 경제대상으로 보는 경우와 적대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는 통일을 우선시 하는 비중이 각각 13.7%, 11%로 낮게 나타남.
 - 경제대상으로 볼 경우에는 평화공존 및 평화정착을 우선시하는 비중이 61.2%로 높았고 경쟁대상 혹은 적대대상으로 볼 경우에는 북한의 개혁개방 및 경제공동체 통합을 우선시하는 비중이 각각 33.8%, 29.4%로 높게 나타남.

2. 대북정책 수단

- 개혁개방을 위한 정책수단별 유용성 조사 결과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5.6%로 가장 높았고, 남북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또한 각각 62%, 58.7%로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대북제재는 43.3%로 타 정책수단에 비해 유용성에 대한 평가가 낮았음.
 - 작년과 비교할 경우 인도적 지원이 도움 된다는 응답 비중이 47.9%에서 58.7%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68.4%에서 65.6%로, 남북 경제협력은 64.3%에서 62%로 소폭 감소함.
- 비핵화를 위한 정책수단별 유용성을 조사한 결과 남북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대북제재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50.9%, 49.9%, 48.1%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군사적 억지력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43.8%로 타 정책에 비해 낮았음.

- 작년과 비교할 경우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유용성 평가가 45.5%에서 49.9%로 증가하였으며, 대북제재 또한 45.1%에서 48.1%로 소폭 증가함.
- 남북 경제협력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58.2%에서 50.9%로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남북 경제협력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환경 하 실행가능성이 낮으며, 북한 측에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보임.
- 한편, 비핵화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협력 대상으로는 국제사회가 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미국 및 일본이 27.8%로 뒤를 이음. 한국의 단독적인 정책수행이 효과적이라는 응답도 15%로 나타났으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8.2%로 가장 낮았음.
- 대북정책 목표로 통일을 우선시 할 경우 한국 단독의 정책수행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5%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평화공존 및 평화정착을 우선시 할 경우 국제사회와의 협력 비중이 53.1%로 높았음.

□ 개별 정책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금강산 관광, 비라살포 금지에 대한 찬성도가 각각 56.4%, 54.9%, 53.2%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개성공단 재가동과 핵무장에 대한 찬성 의견은 각각 41.5%, 44.9%로 반대가 더 많았음.

3. 대북정책 만족도

- 대북정책에 만족한다는 비중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실시된 2018년 64.4%를 최고점으로 2019년 55.6%, 2020년 36.3%, 2021년 34.4%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실시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비핵화 협상이 고착화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집단 간 대북정책 만족 비중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 일반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역, 정치적 성향, 대북인식, 통일인식 등에 따라 상당한 격차를 보였음.
- 2021년 기준 호남권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중이 65%에 달하였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23-35%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해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임.
- 정치 성향별로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2017년에 보수와 진보 간 만족 응답 비중 간 전환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 기준 진보는 55%가, 보수는 20%가 대북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 중도는 32%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 북한을 지원, 협력, 경쟁대상으로 여길 경우 대북정책 만족 비중은 각각 46%, 41%, 5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경계 혹은 적대대상으로 여길 경우 대북정책 만족 비중은 각각 24%, 14%로 2~3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임.
- 통일 필요성 인식별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46%가 대북정책에 만족한 반면 통일이 불필요 하다고 여길 경우 20%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 이러한 이념, 대북인식, 통일인식 등에 따른 대북정책 만족도 격차는 현 정권 이후 크게 확대되어옴.
 - 일례로 2017년 기준 통일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대북정책 만족 비중은 64%, 불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대북정책 만족 비중은 55%로 그 격차가 9%p에 불과하였음.

4. 결론: 주요 특징 및 경향

- 대북정책 목표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국민의 과반 이상은 평화공존 및 평화정착을 대북정책의 우선적 목표로 삼으며, 통일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다는 점을 보여줌.
 - 특히 20대의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크며, 지역, 경제상황 인식, 대북인식에 따라서도 우선적인 정책목표에 있어 차이가 발생함.
- 대북정책 수단에 대한 유용성 평가의 경우 북한의 개혁개방과 비핵화 중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작년 대비 남북경협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고 지속되는 코로나 국면 하에서 인도적 지원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가 향상됨.
- 비핵화를 위한 협력 대상으로는 국제사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미국과 일본이 그 뒤를 이었으나, 가장 우선적인 목표를 통일로 삼을 경우 한국의 단독적 정책 수행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평화 메시지 및 남북협력 의지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나 남북관계에 있어 진전이 더딤에 따라 대북정책의 만족도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념, 대북인식, 통일인식 등에 따라 대북정책 만족도의 격차가 심화됨.

2021.10.05

2021 통일의식조사: 대북정책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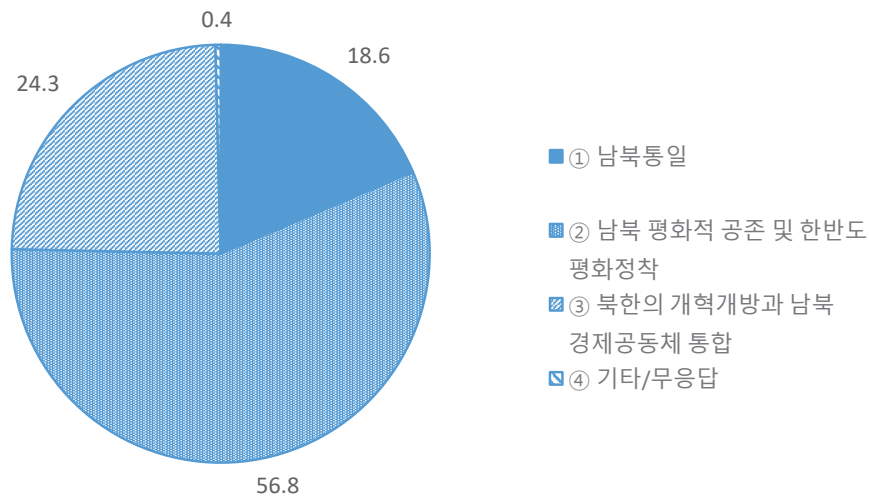
김다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목차

1. 대북정책 목표
2. 대북정책 수단
 - 개혁개방
 - 비핵화
 - 개별 정책 사안에 대한 찬반
3. 대북정책 만족도
4.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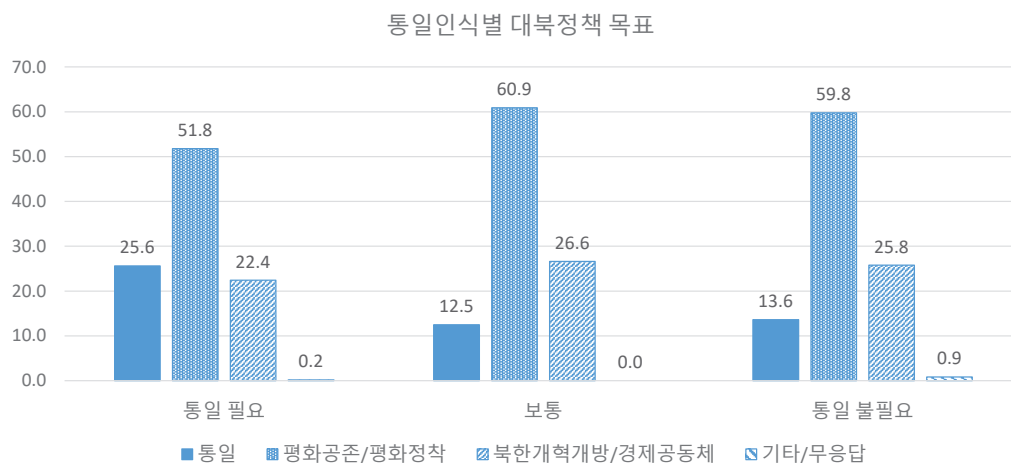
1. 대북정책 목표

- 평화적 공존 및 한반도 평화 응답이 가장 많음. 남북통일은 18.6%.
- 통일인가, 평화인가?



1. 대북정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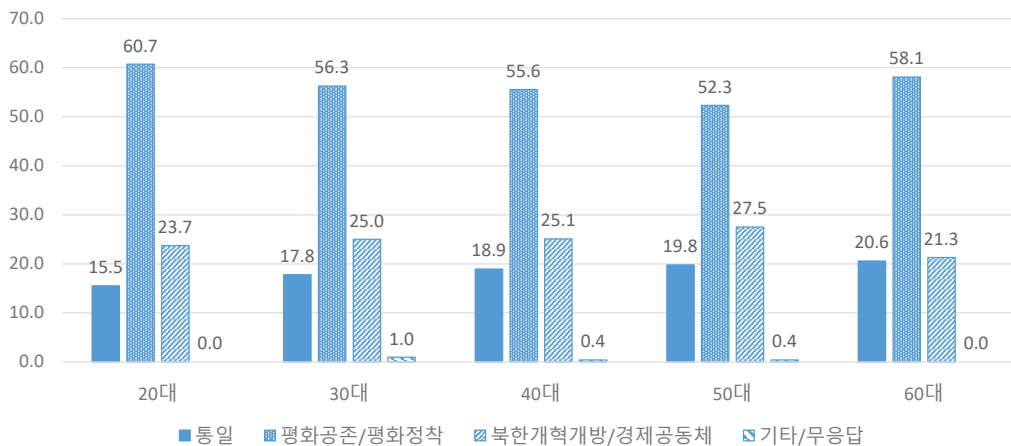
-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통일 비중이 높고, 평화공존 비중이 낮음.
- 그러나 해당 군집에서도 평화공존을 대북정책 목표로 보는 비중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나 단계적인 정책 목표로 판단됨.



1. 대북정책 목표

- 20대가 평화공존 비중이 가장 높고, 통일 비중이 가장 낮음.
- 60대 이상은 평화공존 및 평화정착과 통일의 비중 둘 다 30-50대에 비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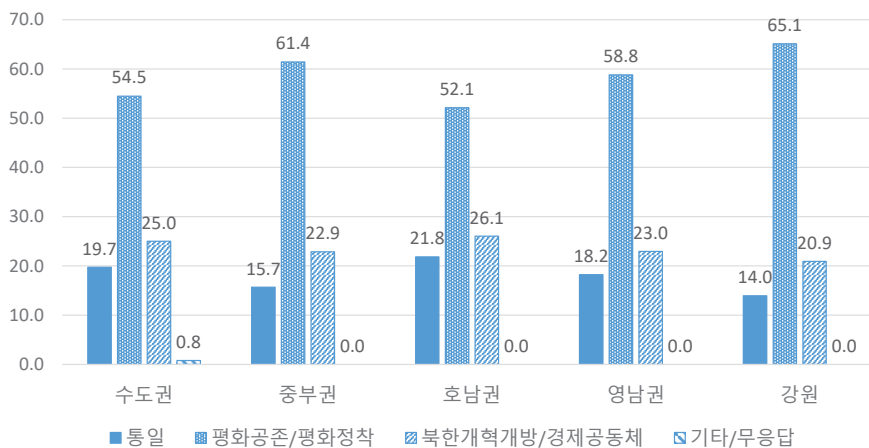
연령별 대북정책 목표



1. 대북정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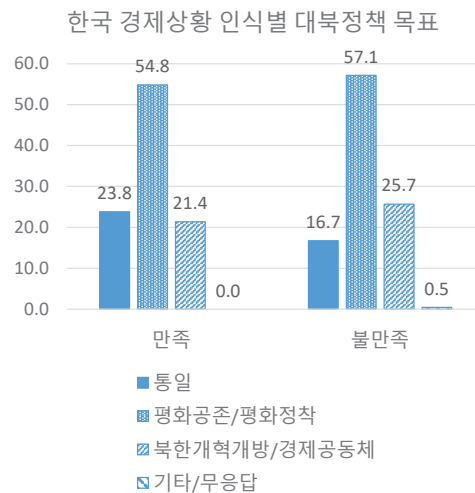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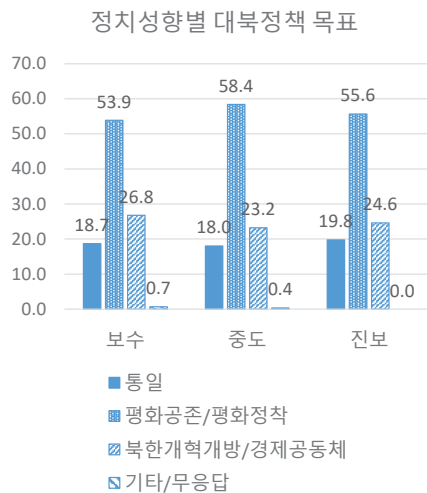
- 중부권과 강원도에서 평화공존 및 정착의 비중이 높았고, 호남권에서는 통일을 선택한 비중이 높음.

지역별 대북정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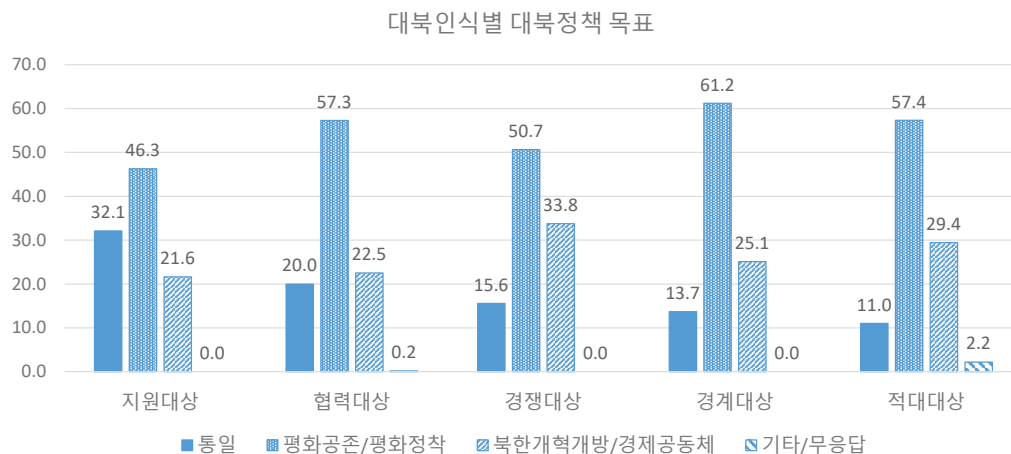
1. 대북정책 목표

- 정치성향에 따른 대북정책 목표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음.
-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 만족할 경우 통일을 우선시 하는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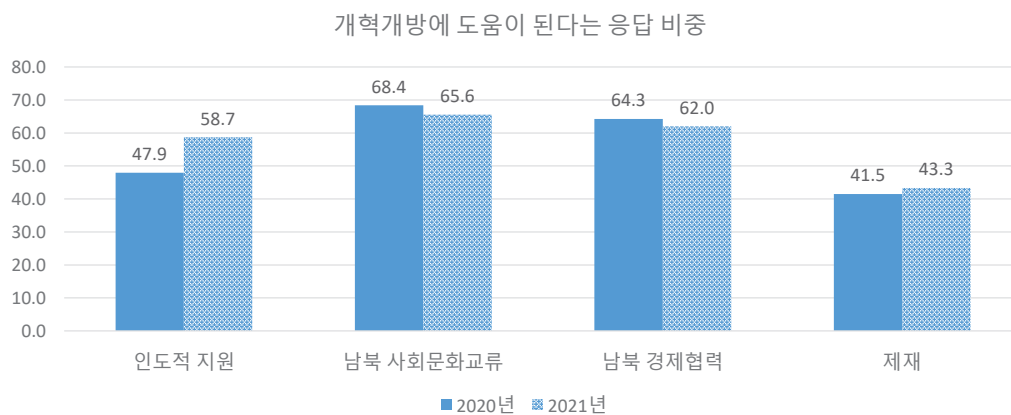
1. 대북정책 목표

- 북한을 지원대상 혹은 협력대상으로 생각할 경우 통일의 비중이 높음.
-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여길 경우 평화공존 비중이 높음.
- 북한을 경쟁대상 혹은 적대대상으로 여길 경우 북한 개혁개방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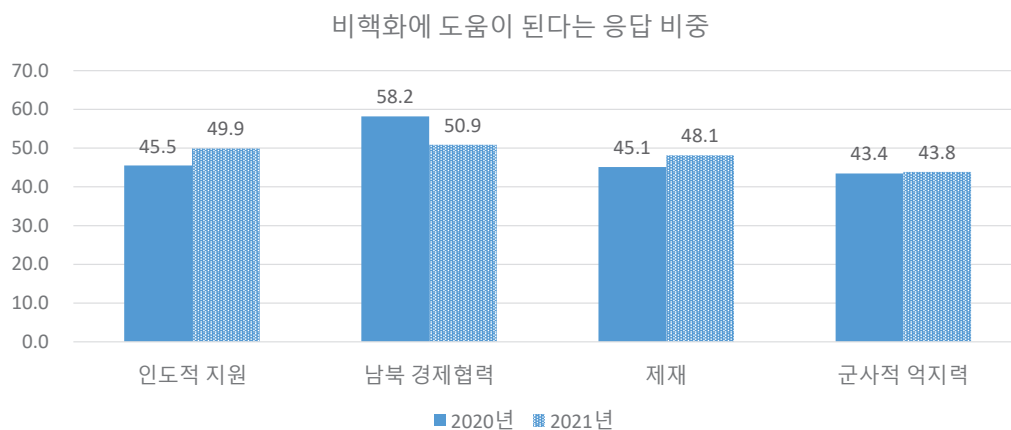
2. 대북정책 수단: 개혁개방

- 남북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에 대한 유용성 평가가 높으며 제재에 대한 유용성 평가는 낮음.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인도적 지원의 유용성 평가가 크게 증가함.
- 2021년에는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에 대한 유용성 평가가 소폭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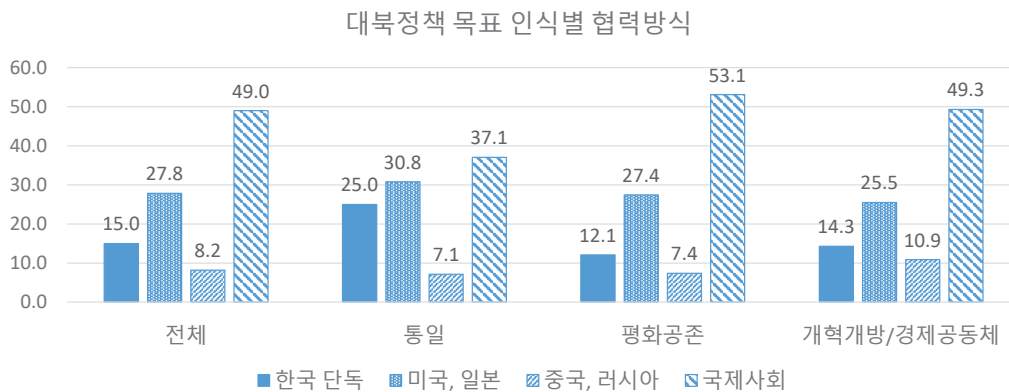
2. 대북정책 수단: 비핵화

- 작년에는 남북 경제협력이 가장 유용성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나, 2021년에는 그 비중이 비교적 크게 하락함.
- 인도적 지원과 제재에 대한 유용성 평가는 소폭 증가함.
- 군사적 억지력에 대한 유용성 평가가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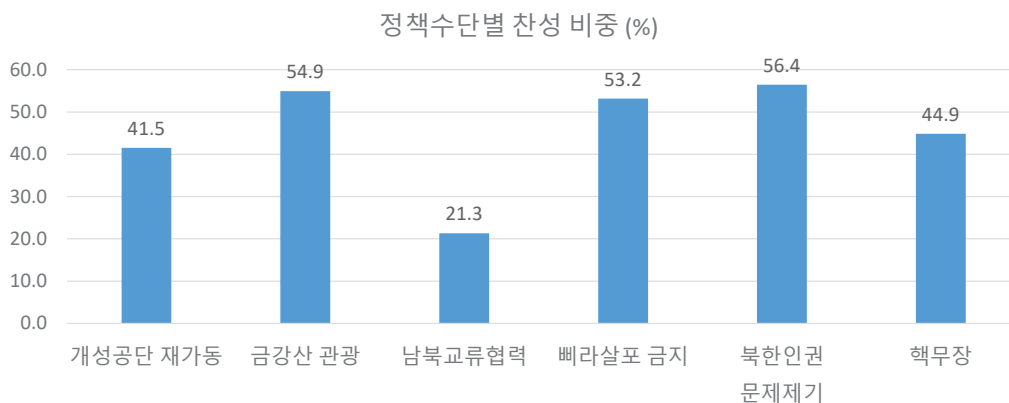
2. 대북정책 수단: 비핵화 협력

-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경우가 전체의 49%를 차지하며, 미국 및 일본과의 협력이 그 뒤를 이음.
- 통일을 정책목표로 삼는 경우 국제사회와의 협력 비중이 낮고, 한국 단독의 정책수행 비중이 높음.
- 평화공존을 정책목표로 삼는 경우 국제사회와의 협력 비중이 높음.



2. 대북정책 수단: 개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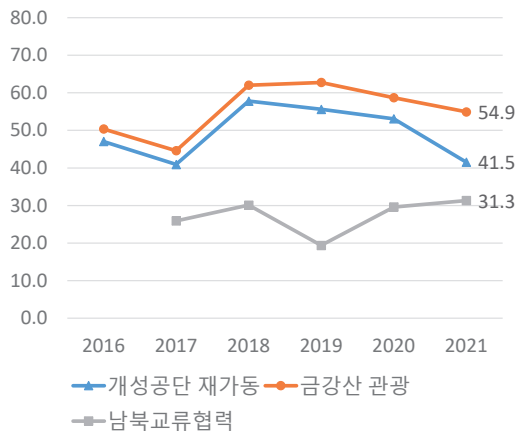
-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빠라살포 금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찬성도가 높음.
- 남북교류협력 찬성도는 낮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부정형 질문에 대한 반대 응답임.
 -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은 하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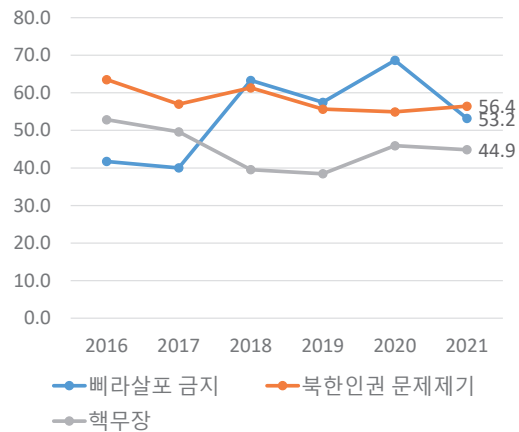
2. 대북정책 수단: 개별 정책

- 최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에 대한 찬성도는 지속적인 감소추세임.
- 뺨라살포 금지에 대한 찬성도가 작년 대비 크게 하락함.

경제 및 교류협력 정책 찬성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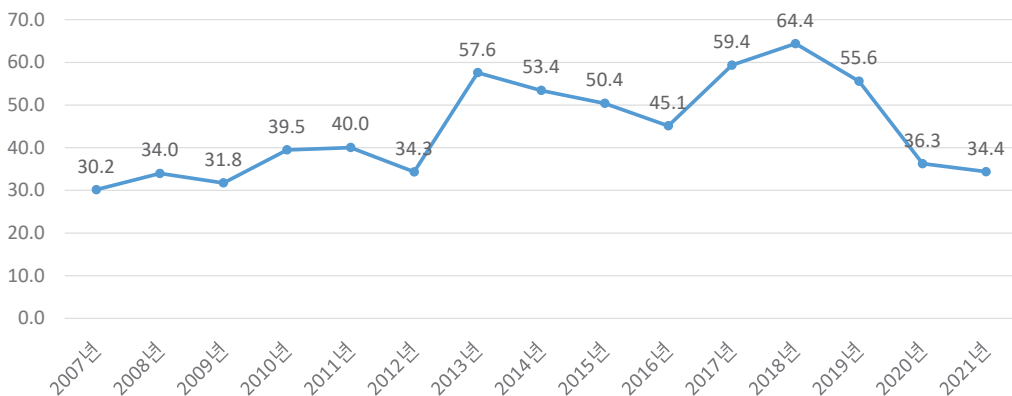
기타 대북정책 찬성 비중(%)



3. 대북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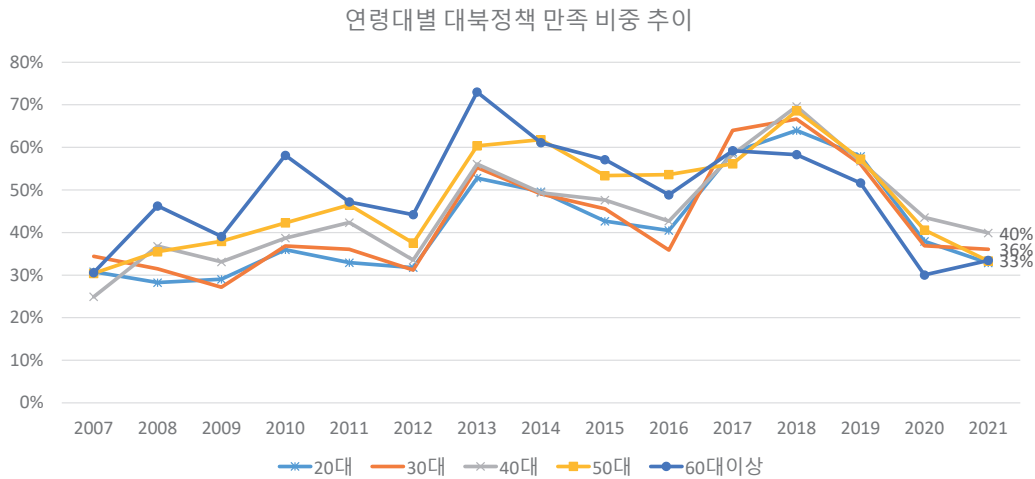
- 대북정책 만족 비중은 작년 큰 폭으로 하락한 후 추가적인 하락을 보임.
- 비핵화 협상이 고착화 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른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임.

대북정책 만족응답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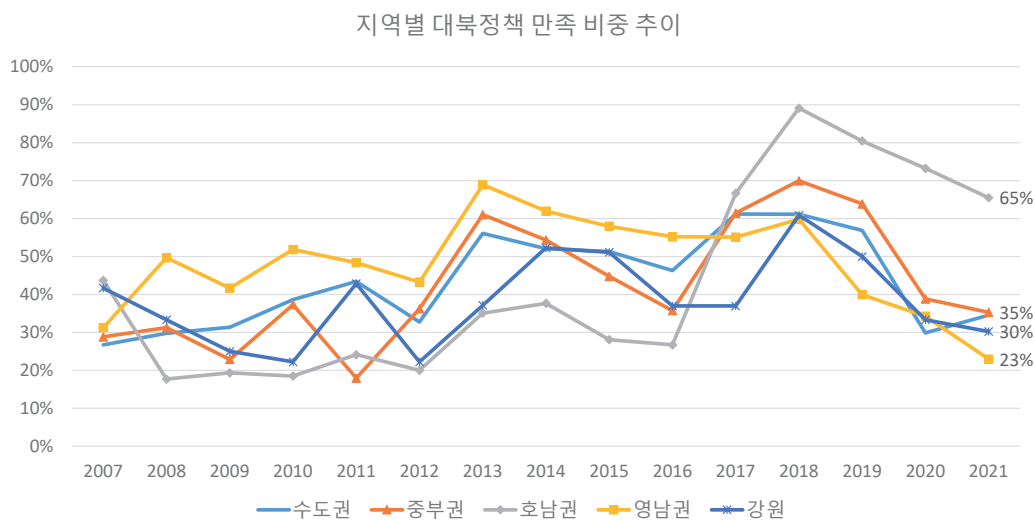
3. 대북정책 만족도

- 2021년 기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대북정책 만족 비중이 하락하였으나 60대 이상에서는 소폭 증가함.
- MZ세대는 다른 연령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3. 대북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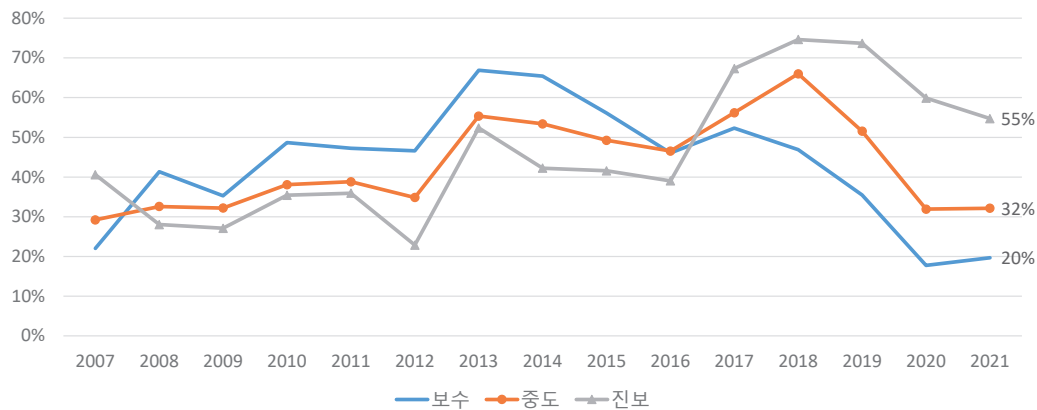
- 모든 지역에서 대북정책 만족도가 하락하는 추세이나 호남권에서는 여전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3. 대북정책 만족도

- 2008년과 2017년 정권교체 시기마다 대북정책 기조가 변화함에 따라 정치 성향에 따른 대북정책 만족도에서도 전환이 발생.
- 현 정권 하에서는 진보, 중도, 보수 순으로 대북정책 만족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기존 대비 진영 간 격차가 확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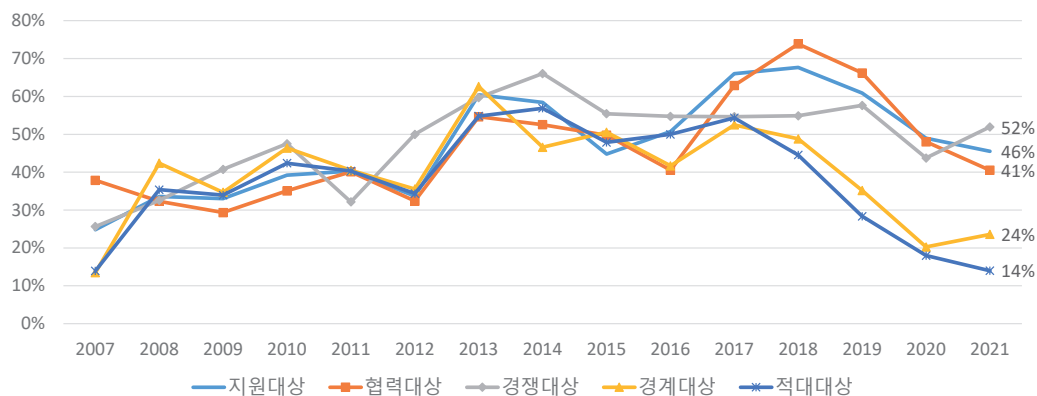
정치성향별 대북정책 만족 비중 추이



3. 대북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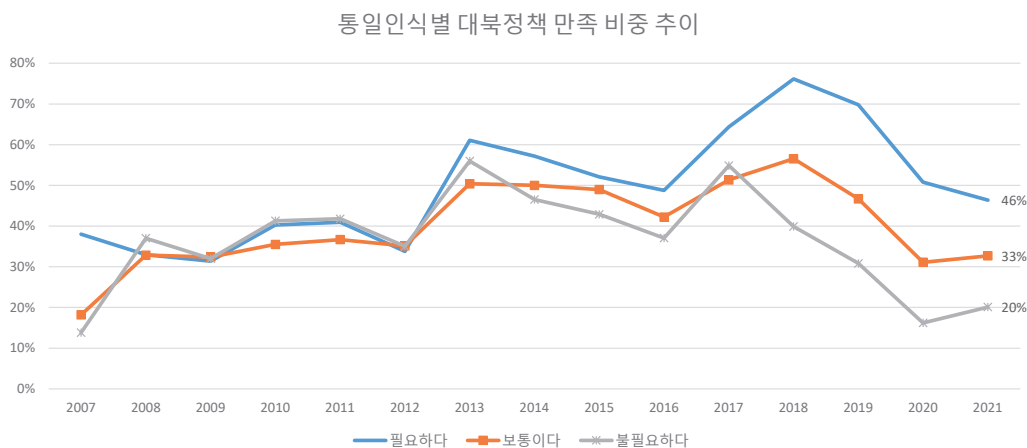
- 2021년 기준 북한을 지원, 협력, 경쟁대상으로 여길 경우 대북정책 만족 비중이 41-52%로 비교적 높은 반면, 경계대상 및 적대대상으로 여길 경우 그 비중이 14-24%로 큰 차이를 보임.
- 현 정권 하 대북인식별 대북정책 만족 수준에 있어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임.

대북인식별 대북정책 만족 비중 추이



3. 대북정책 만족도

- 2021년 기준 통일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대북정책 만족 비중이 46%로 높고, 불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그 비중이 20%로 낮음.
- 다만 과거에는 통일인식에 따라 대북정책 만족 비중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0년대 초반 이후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4. 결론

- 대북정책의 목표에 대한 조사 결과 국민의 과반 이상은 남북의 평화 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인식함.
 - 통일을 최우선시하는 경우는 18%에 불과하며, 특히 20대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함. 그 외 지역, 경제상황 인식, 대북인식에 따라서도 차이 발생함.
 -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절반 가량이 평화적 공존 및 평화정착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단계적 정책목표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남북 사회문화교류와 함께 남북경협이 가장 도움된다는 인식이 높은 정책 수단임.
- 비핵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억지력에 대한 유용성 인식이 가장 저조하였으며, 인도적 지원, 경협, 제재에 대해서는 절반 가량이 도움이 된다고 평가함.
 - 남북경협의 유용성 인식은 작년 대비 크게 하락, 제재와 인도적 지원의 유용성 인식은 작년 대비 증가함.

4. 결론

- 비핵화 협력 대상으로는 국제사회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절반 가량이었으며, 미국 및 일본과의 협력이 그 뒤를 이음.
 - 다만, 대북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통일로 인식할 경우 한국의 단독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대북정책 만족도는 작년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가 34%가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이념, 대북인식, 통일인식 등에 따른 대북정책 만족도 격차가 심화됨.
 - 호남권과 그 외 지역간, 진보와 보수 간 대북정책 만족 응답 비중이 2~3배 가량 차이가 났으며, 대북 인식과 통일 필요성 인식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

감사합니다

2021 통일인식조사

**통일과 평화,
시대와 세대
앞에 서다**

제1부 조사내용

발표4

주변국인식

황수환 (통일연구원)

주변국 관계 인식 (요약문)

황수환 (통일연구원)

1.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

① 친밀국과 위협국

1) 가깝게 느끼는 국가

한국인들이 주변국 가운데 가장 친밀하게 인식하는 대상은 본 조사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미국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2021년 응답자의 77.6%가 미국을 선택했다. 미국 다음으로 북한 13.4%, 일본 4.4%, 중국 4.0%, 러시아 0.6%의 순으로 선택했다. 미국에 대한 친밀감은 2020년 대비 9.8%나 상승했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각각 4.1%, 4.0% 하락했다.

2) 위협적인 국가

한국인은 주변국 가운데 중국을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021년 응답자의 46.0%가 중국을 선택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하여 중국의 위협인식이 1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상당기간 한국인들이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상대는 북한이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최대 위협국이 중국으로 나타났고, 2020년 북한으로 바뀌었으나 2021년 조사에서는 다시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을 위협국가로 인식하는 것은 2020년 40.8%에서 2021년 37.9%로 2.9% 하락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의 43.5%가 중국을, 42.9%가 북한을 위협적인 국가로 선택한 비율이 비슷했고 50대 50.2%로 중국을 위협적인 국가로 답변했다.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53.4%가 중국을 위협적인 국가로 답변했고, 불교는 41.1%로 북한을 위협적인 국가로 답변한 비율이 높았다.

2.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

② 인식과 태도

1) 미국

한국인의 대다수는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였다.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16년 이래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8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82.7%로 역대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주변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7%는 미국은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보았다.

2) 중국

중국에 대해서는 경계대상 이미지가 우세하였다. 2021년 응답자 가운데 경계대상이 51.8%로 가장 높았으며 경쟁대상이 23.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협력대상은 14.5%, 적대대상은 10.8% 이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대상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2017년부터는 경계대상 이미지가 상승하며 나타났고, 2021년 조사에서 최고로 높게 나타났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중국은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이 54.9%로 조사됐고,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는 37.4%로 나타났다.

3) 일본

한국인들은 일본을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일본에 대한 경쟁대상 이미지는 4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계대상이 30.2%로 조사됐다. 주목되는 부분은 일본을 협력대상 응답한 비율이 주변국 가운데 가장 낮은 12.2%로 나타났다.

4) 러시아

러시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은 경계대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응답자 가운데 경계대상 45.8%로 가장 높았으며, 경쟁대상 32.8%, 협력대상 15.1%, 적대대상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대한 인식은 중국의 인식과 유사한 추세로 나타났다. 단,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가 63.5%로 가장 높았고,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은 21.2%로 나타났다.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1)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희망 정도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고 보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변국이 어느 정도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미국은 42.3%가 원할 것으로 봤고, 57.7%가 원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중국, 러시아, 일본은 각각 95.0%, 82.2%, 91.2%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2) 주변국에 대한 통일의 협조 필요성

조사 응답자들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변 4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021년 미국의 경우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3.1%로 2008년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90%대로 나타났다. 중국의 협조에 대해서는 2021년 73.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2020년에 비해 9.2%가 감소했고 러시아 역시 56.2%로 협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2020년에 비해 10.0%가 감소했다. 특히 중국은 통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조사 이래 80%대를 유지한 것이 2021년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70%대로 떨어졌다. 일본에 대한 통일의 협조 필요성은 57.7%로 작년 49.7%에 비해 8.0% 상승했다.

4. 주변국과의 협력

1) 통일: 남북/한미/한중 협력

“남북한 통일을 위해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021년 조사에서는 ‘모두 중요하다’가 34.4%로 가장 우세했으며 ‘한미 간 협력’이 32.7%, ‘남북 간 협력’이 29.5%의 순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는 ‘모두 중요하다’의 응답이 35.7%, ‘남북 간 협력’이 34.4%, ‘한미 간 협력’이 24.6%로 순에서 2021년 조사에서는 남북협력과 한미협력의 순서가 바뀌어 나타났다.

2) 비핵화: 한미/한중 협력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한중협력 모두 강화해야 한다' 45.5%, '한미 간 협력 강화'는 44.1%, '한중 간 협력 강화' 10.4%로 조사됐다. '한미 간 협력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0년 35.8%에서 2021년에는 44.1%로 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미중경쟁 관련

1)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

중국의 부상에 대해 중립/보류적 입장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도 안되지도 않을 것이다'는 54.5%로 '도움이 된다' 27.6%, '도움이 되지 않는다' 17.9%보다 높게 조사됐다. 중립/보류적 입장은 2020년 29.6%에서 2021년 54.5%로 무려 24.9%나 증가했다.

2) 북중협력 인식

최근 북중협력에 대한 인식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 89.5%로 대다수가 북중협력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 미중 갈등 심화 시 한국의 입장

미중갈등 심화시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 48.7%,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45.7%로 조사됐다. 중립에 대해서는 2020년 65.4%에 비해 16.7%가 감소했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17.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51.1%로 중립적 입장보다 높게 조사됐다.

6. 결론: 주요 특징 및 경향

2021년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조사를 통해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여론 크게 증가했다. 미중 갈등 시 중립적 입장보다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크게 증가했다.

둘째, 중국에 대한 적대적이고 경계하는 여론 증가했다. 최근 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반중정서가 이번 조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변화가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셋째, 북중협력에 대한 우려인식이 크게 증가했다.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과 남북관계의 정체 및 불확실성에 따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북한에 도움을 주는 북중협력 강화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파악하여 부정적 인식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전략적인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해 한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높게 조사됐지만, 여전히 미중 갈등과 중국부상에 대한 중립적 입장, 한미와 한중 간 모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균형입장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세대별로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20대는 미국에 대한 긍정적 입장이 높았고, 50대 이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통일인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2021.10.5

황수환(통일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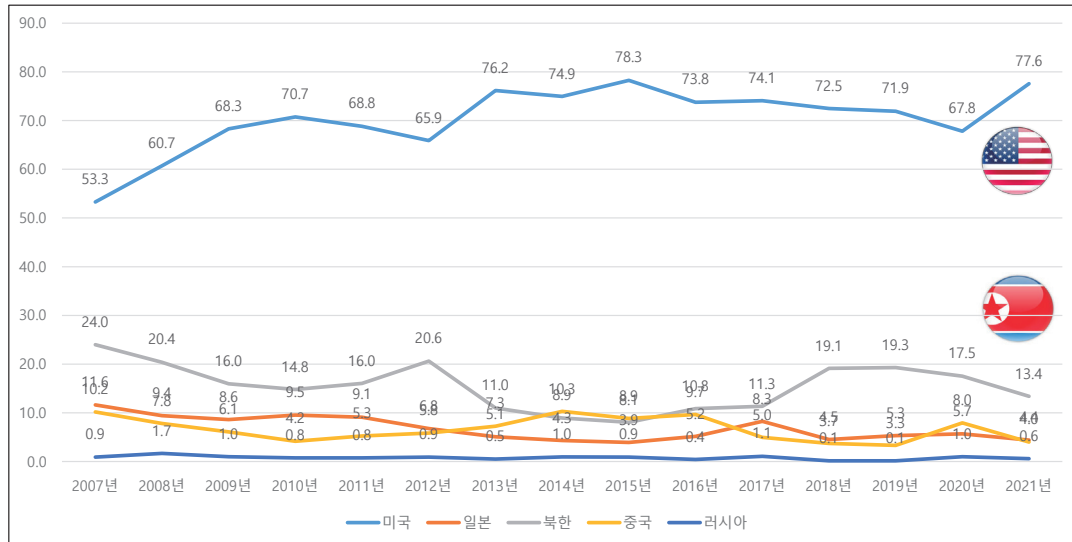
[2021통일인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2021년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현황

- 1월: 북한 8차 당대회,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 2월: 북핵관련, 한일미 공조 강화(외교당국 회담 등)
- 3월: 한미정상회담, 한미(2+2)회의, 북한 순항미사일(3.21)/탄도미사일(3.25) 발사,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
- 4월: 북한 도쿄올림픽 불참 통보: 미일정상회담(4.16)
- 5월: 한미 외교장관 회담(5.3),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5.5), 한미정상회담(5.21)
- 7월: 북중 친서교환,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 8월: 남북통신선 복원과 단절, 한미연합훈련, 도쿄올림픽 개최

[2021통일의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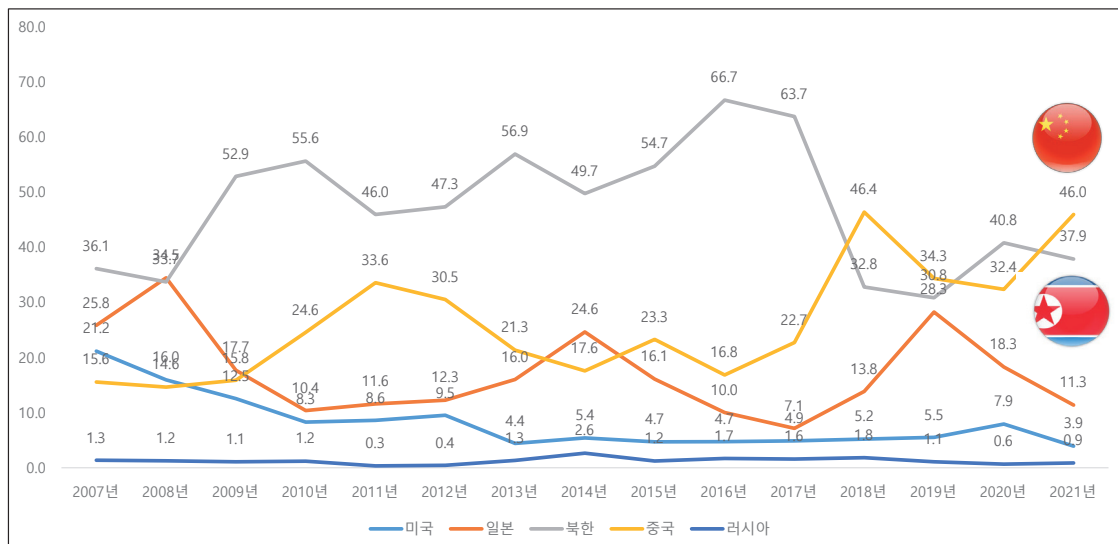
주변국 친밀감



- 미국(77.6%) > 북한(13.4%) > 일본(4.4%) > 중국(4.0%) > 러시아 순
- 미국 친밀감 2020년 대비 9.8% 상승, 북한 친밀감 4.1% 하락

[2021통일의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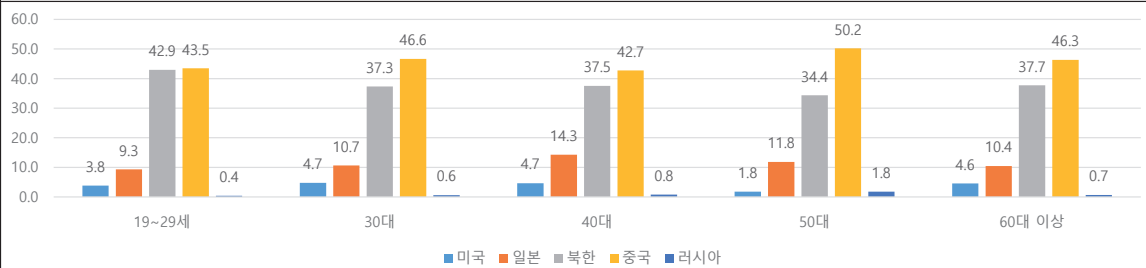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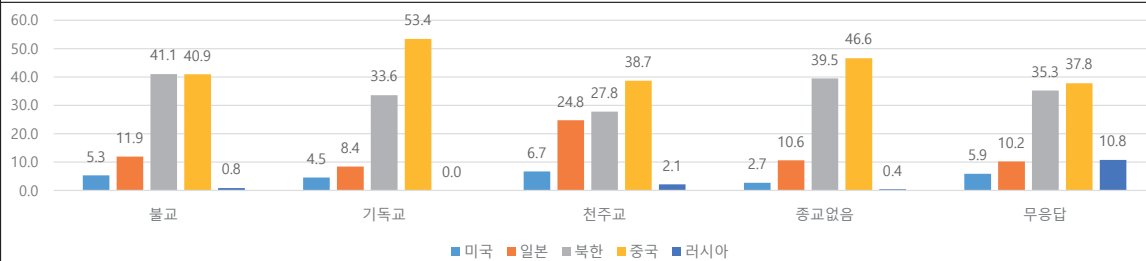
- 중국 > 북한 > 일본 > 미국 > 러시아의 순으로 위협적으로 인식
- 중국의 위협인식이 13.6% 상승

[2021통일인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연령/종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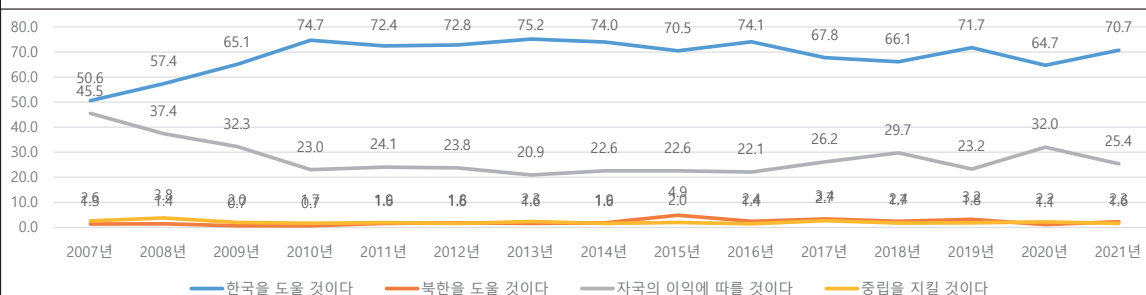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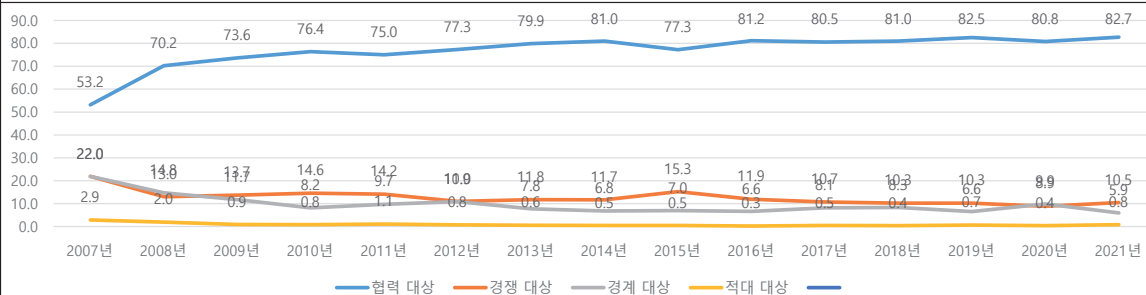
20대, 북한 위협인식 높음



불교 북한 위협인식 높고, 기독교 중국 위협인식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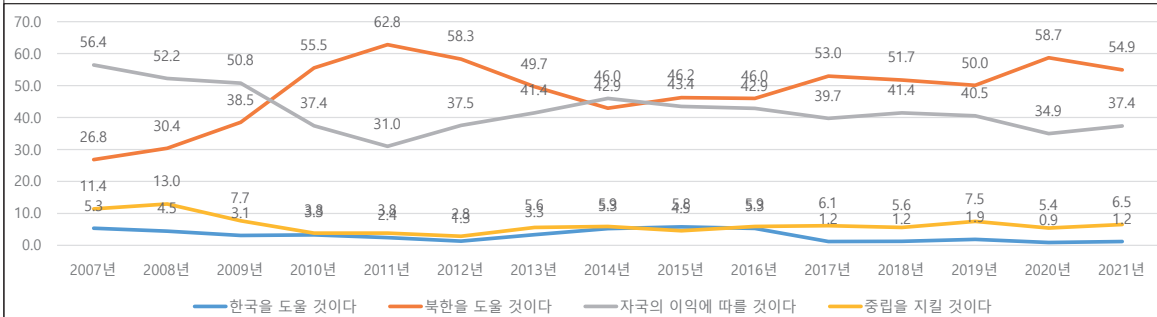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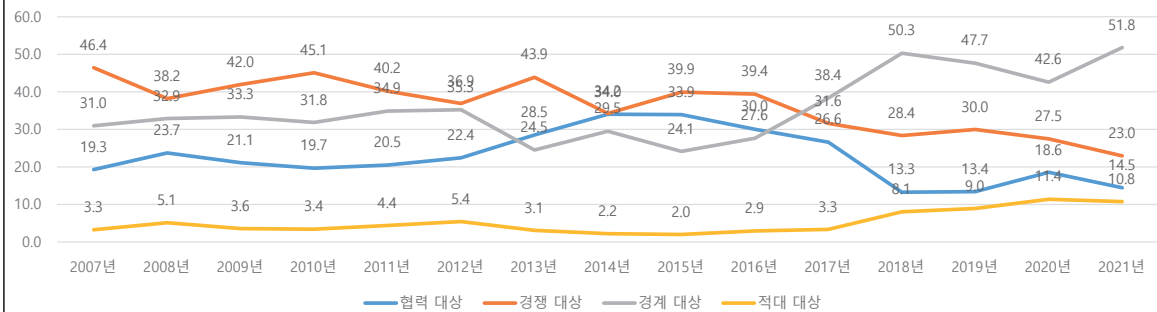
[2021통일인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국가 이미지/태도: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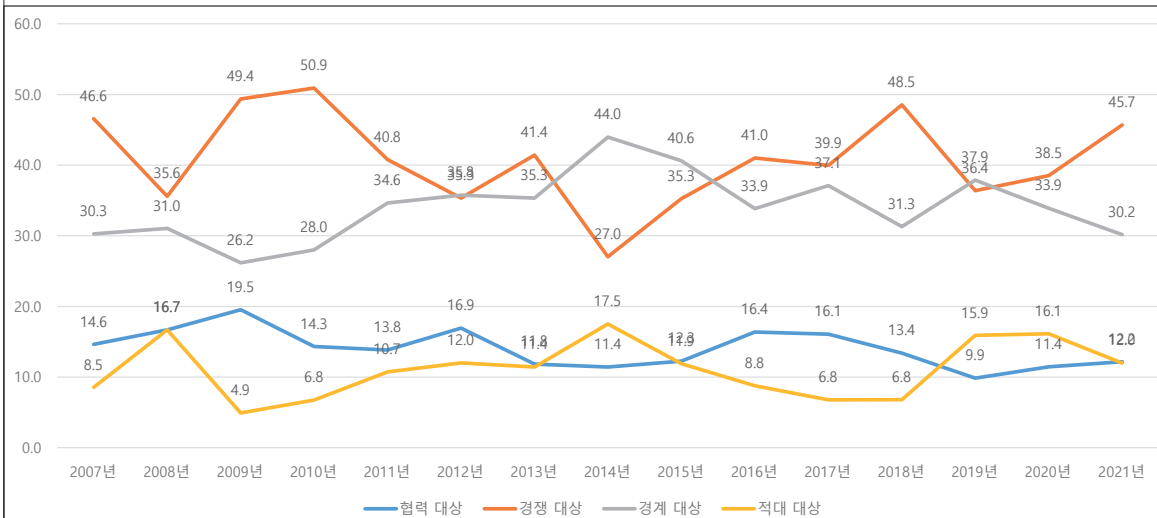
[2021통일의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국가 이미지/태도: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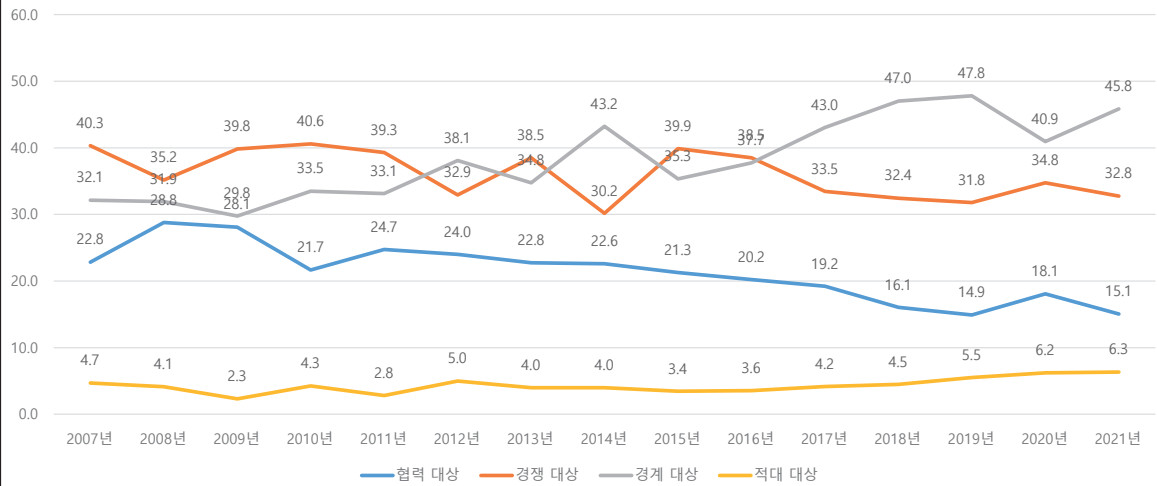
[2021통일의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국가 이미지/태도: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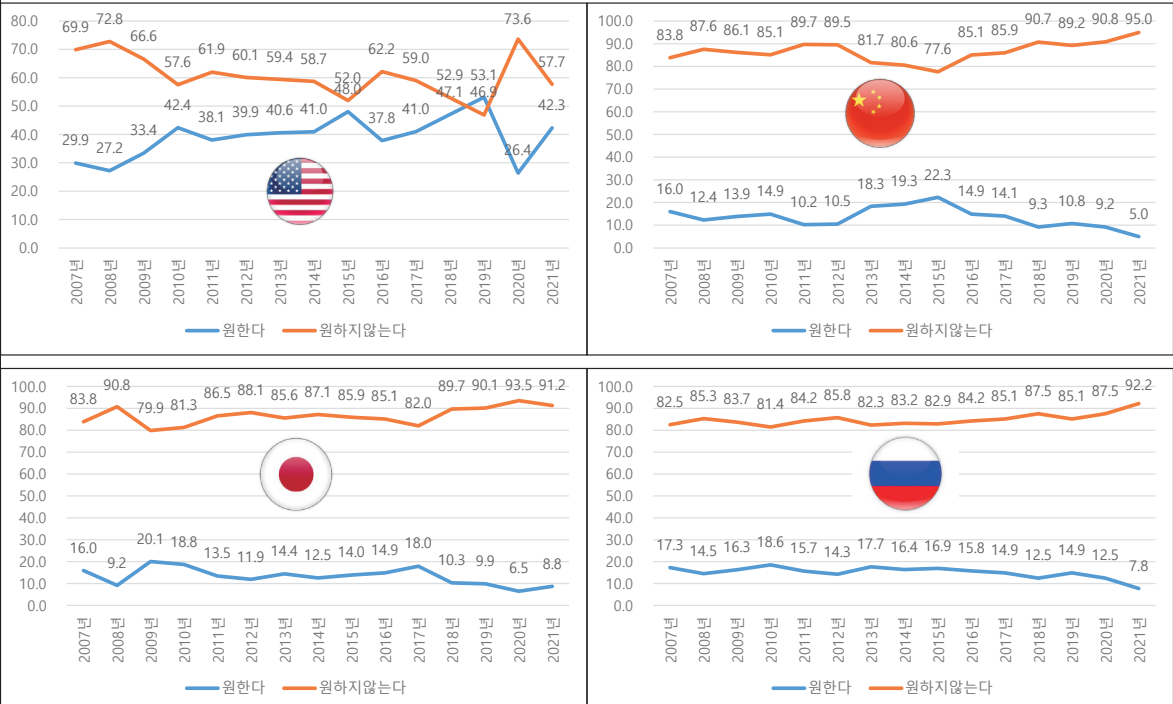
[2021통일의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국가 이미지/태도: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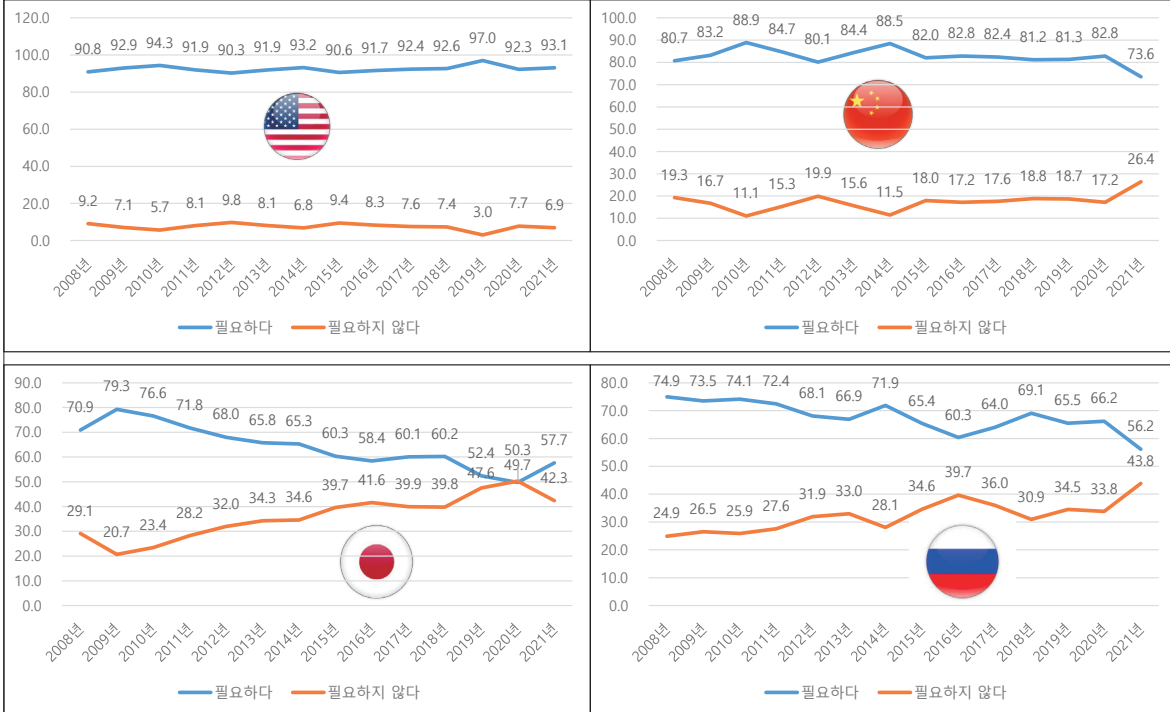
[2021통일의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희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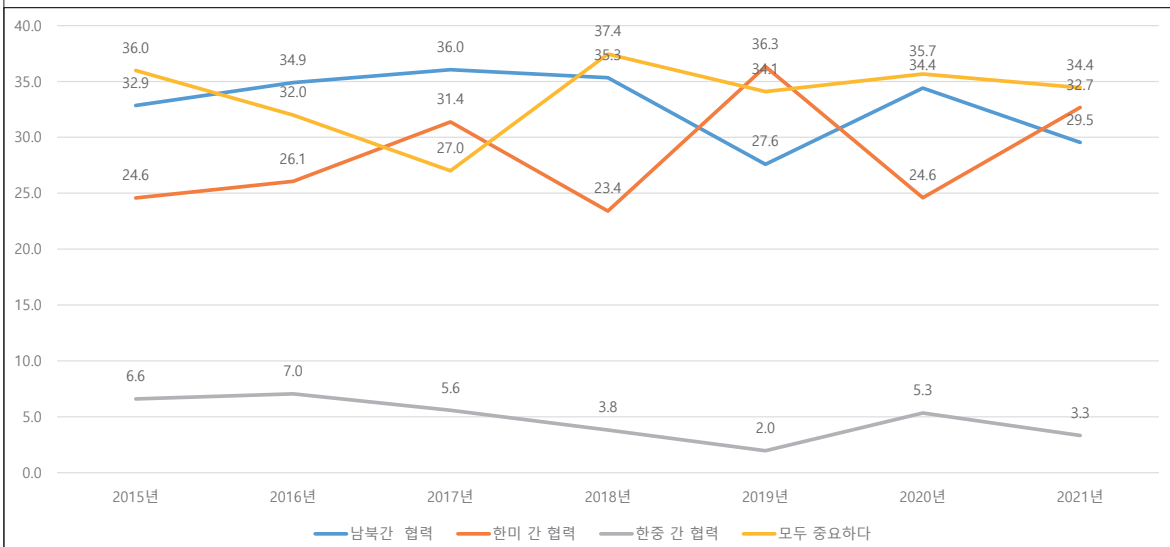
[2021통일의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통일 협조 필요성



[2021통일의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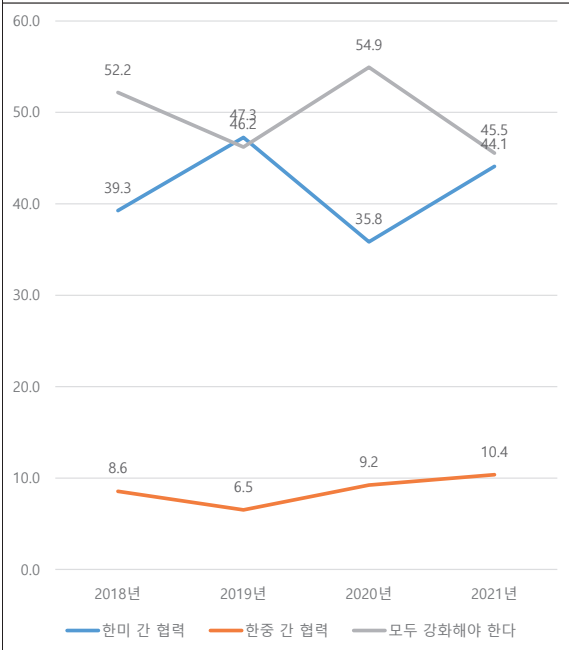
남북 / 한미 / 한중 협력



모두중요(34.4%) > 한미간 협력(32.7%) > 남북간 협력(29.5%) > 한중간 협력(3.3%)

[2021통일인식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북한비핵화를 위한 한미/한중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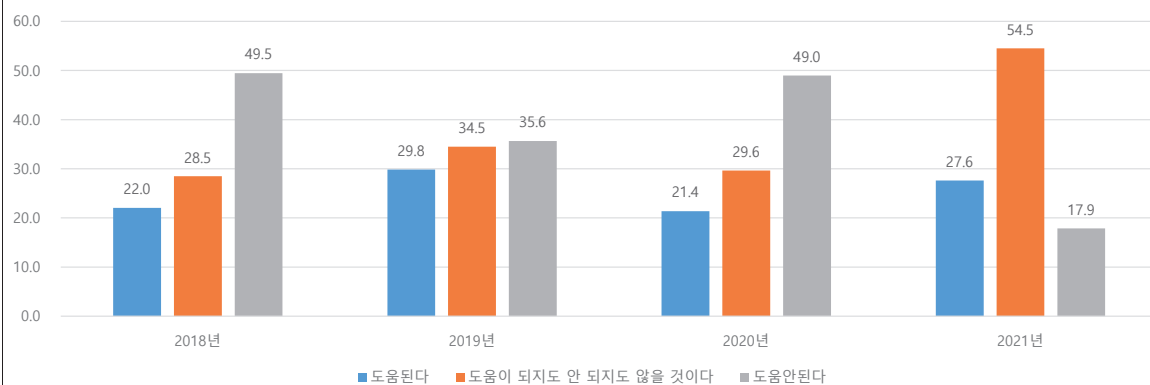


- 한미협력: 2020년 35.8% → 2021년 44.1% (8.3% 증가)

- 한중협력: 2020년 9.2% → 2021년 10.4% (1.2% 증가)

[2021통일인식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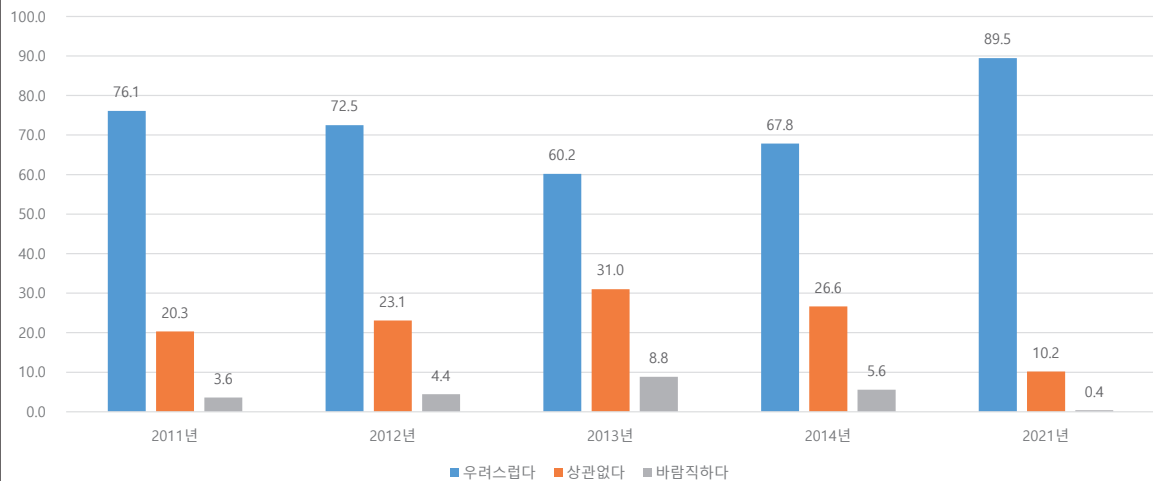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립/보류적 입장 증가
 ⇒ 2020년 29.6%에서 **2021년 54.5%** (24.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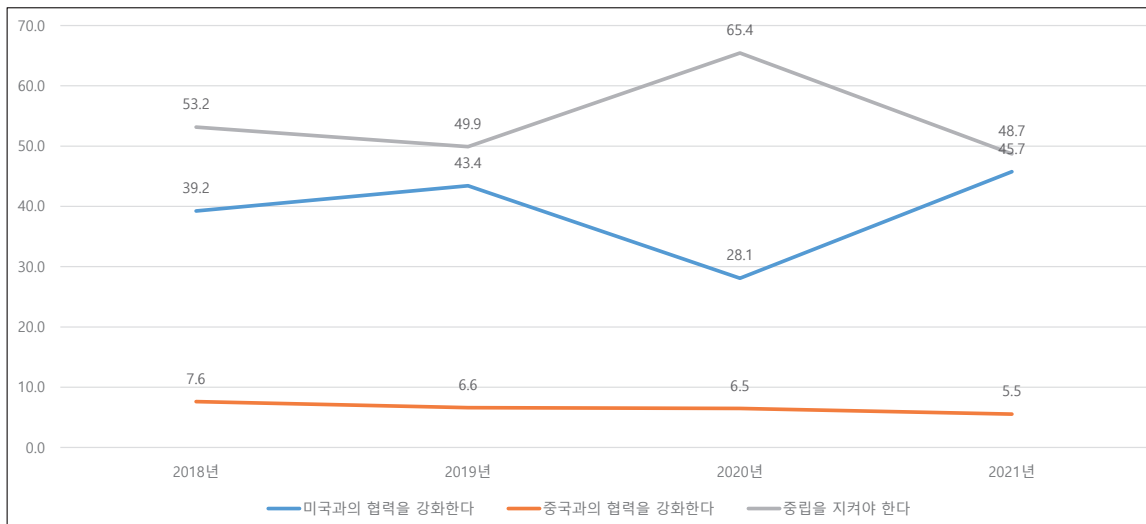
[2021통일의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북중협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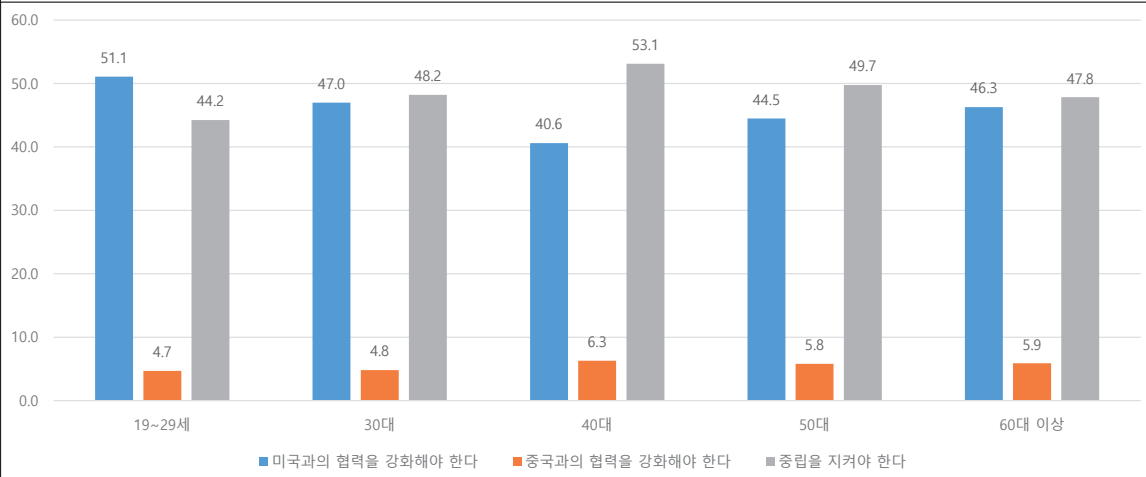
[2021통일의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미중 갈등과 한국



[2021통일의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미중 갈등과 한국(세대별)



[2021통일의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소결

-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여론 증가
- 중국에 대한 적대적이고 경계하는 여론 증가
- 북중협력에 대한 우려인식 증가
-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인 균형적 입장 선호
- 세대별로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20대는 미국에 대한 긍정적 입장이 높았고, 50대 이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입장

2021 통일인식조사

**통일과 평화,
시대와 세대
앞에 서다**

제1부 조사내용

발표5

북한이탈주민인식

최은영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요약문)

최은영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사회적 거리감

1)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2007년 시작하여 2015년까지 독립적인 조사로 이루어졌으나, 2016년부터 한국 거주 다른 이주민들과 비교하는 조사 문항으로 바뀜. 2016년부터 친근감을 표시하는 항목에 '반반/그저 그렇다'가 추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일반적인 인식과 개별적 사회관계 유형에 따른 부문별 인식을 구분하여 측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2007년 이래로 등락은 있지만 증가 추세였으나, 2020년에 전년도 대비 급감(29.8% → 20.6).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끼는 비율이 친근하지 않게 느끼는 비율보다 높았으나, 2019년부터는 다시 친근하지 않게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아짐. 2021년에 22.6%로 다소 회복.

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유형 따른 사회적 거리감

'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의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6%가 동네이웃으로, 10.2%가 직장동료로 관계 맺기를 매우 꺼리거나 다소 꺼린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북한이탈주민과 사업동업자, 결혼상대자, 학교교사, 지역대표로 관계를 맺는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40%이상이 '매우꺼림' 또는 '다소 꺼림'으로 대답. 그 중에서 특히 결혼상대자로는 응답자의 52.1%가 꺼린다고 응답하였다. 즉, 동네 이웃이나 직장동료보다 사업동료나 학교교사, 지역대표로 관계 맺기를 더 꺼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결혼상대자로 관계 맺기를 가장 경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 다른 이주민 대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미국인을 가장 친근하게 느낌.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낌. 그러나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꾸준히 상승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수치에 매우 근접.

4) 세대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19세부터 29세까지의 연령대 응답자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장 친근감을 적게 느끼는 그룹으로 조사. 19세-29세의 연령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동남아시아인이나 일본인을 친근하다고 느끼는 비율보다 낮음. 19-29세의 경우 민족적 동질성이 친근감에 덜 영향을 미친다고 고려됨. 19세부터 29세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친근감을 낮게 응답한 그룹은 60대 이상이다. 60대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에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탈북자는 민족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국가정체성에서는 배타적인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손애리, 이나영 2012:19).

2.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인식

탈북자 중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은 2007년 52% 이하로 꾸준히 감소하여 2021년에는 24.7%까지 줄었다. 반면,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은 2007년 응답자의 37.2%가 선택한 후, 연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조사 기간 최고치인 60.6%의 응답자가 선택적 수용을 지지. '더 이상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응답은 14.6%.

직업군별로는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25%가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응답하여 수용에 반대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탈북민 수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영남지역, 정치성향으로는 보수인 이들이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하여 거부감을 더 강하게 나타냈다. 영남지역 응답자의 18.3% (호남지역 9.8%), 보수성향의 응답자의 17.4% (진보 13.0%)가 탈북민을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응답하였다.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역할 및 정책에 대한 인식

1) 북한이탈주민이 이질화 해소에 도움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된다에 58.8%가 매우 동의 또는 다소 동의하였고 41.1%가 별로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

'북한이탈주민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에 5.3%가 매우 동의, 35.9%가 다소 동의하였다. 반면, 추가 지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이 전체 응답자의 58.7%이다. 2011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20년에 그 정점을 찍은 후, 2021년에 다소 감소하였다. 북한이탈주민도 '조직 내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에 전체 응답자의 73.1%가 동의.

3) 북한이탈주민과의 취업 경쟁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에 매우 동의 또는 다소 동의 한다는 응답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0%를 상회했던 것과 달리, 그 이후에는 27~8%를 유지. 2021년도에는 71.8%의 응답자가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에 별로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함. 이는 외국인 노동자나 동포가 한국인과 노동시장에서 경쟁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이들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 탈북자의 취업 문제가 미디어 등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탈북자는 아직 노동시장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부각되지 않음(박명규 외 2016:267). 그러나 학력이 낮을수록 경쟁관계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으며, 직종별로 다르게 인식함이 드러났다. 블루칼라나 농/축/수산업 종사자, 무직이나 학생이 자영업자나 화이트칼라 종사자보다 북한이탈주민을 취업의 경쟁자로 인식함.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북한이탈주민과의 직접 접촉 경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미디어 이미지, 다문화 감수성을 포함한 이주민 및 난민에 대한 인식 등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

1)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 경험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주민간의 접촉면이 더 넓어지면 서로간의 거리감이 좁혀지고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박명규 외 2016:263).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경험의 유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함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 분석.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만난 적이 없는 응답자보다 북한이탈주민을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친근하게 느낀다고 응답률이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은 34.0%인 반면,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21.1%. 하지만, 관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분석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경험이 있는 이와 없는 이 사이에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사업동반자로서의 관계 맺기에서만 부정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드러남.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경험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친밀감에는 영향을 미치나, 북한이탈주민 수용성 및 정책 지지에는 접촉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없는 응답자의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음.

2) 북한에 대한 인식 및 미디어의 영향

기존 연구결과(정진원 2019; 이내영 2014; 윤인진, 송영호 2013)와 같이, 북한 정권의 신뢰도와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인식하는 정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대한민국 인구대비 소수이기에 직접적인 접촉은 제한적.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미디어 이미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 연구가 있음 (엄하나 2005). 2020년도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급격히 준 데는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과 범죄 연루 북한 선원의 복송이 미디어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서는 후후 분석이 더 필요).

3) 다문화 수용성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문화 수용성이 있는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와 정부 지원확대 지지도, 친근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이주민과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에 부정적인 견해가 증가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수용 및 지원 정책 지지에 대한 반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5. 결론

통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통일의 필요성이 감소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꺼리며, 이들과 교사 및 지역 대표 등으로 관계 맺기에는 주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간 차원에서의 다양한 상호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고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전히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이들과의 접촉 경험, 북한에 대한 인식, 미디어의 영향, 다문화 감수성 및 다른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접촉 경험의 유무가 친밀감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수용태도나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사회통합을 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접촉 증가가 아니라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북한이탈주민과의 상호 교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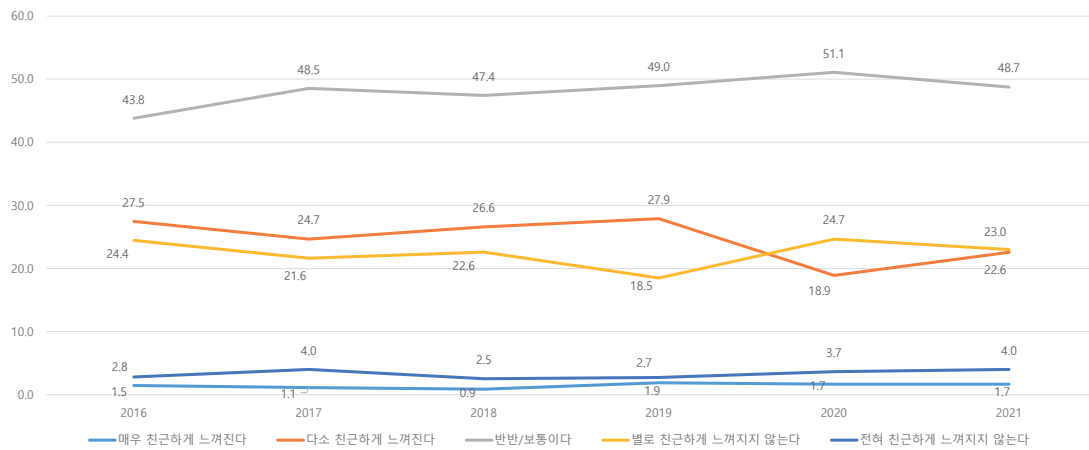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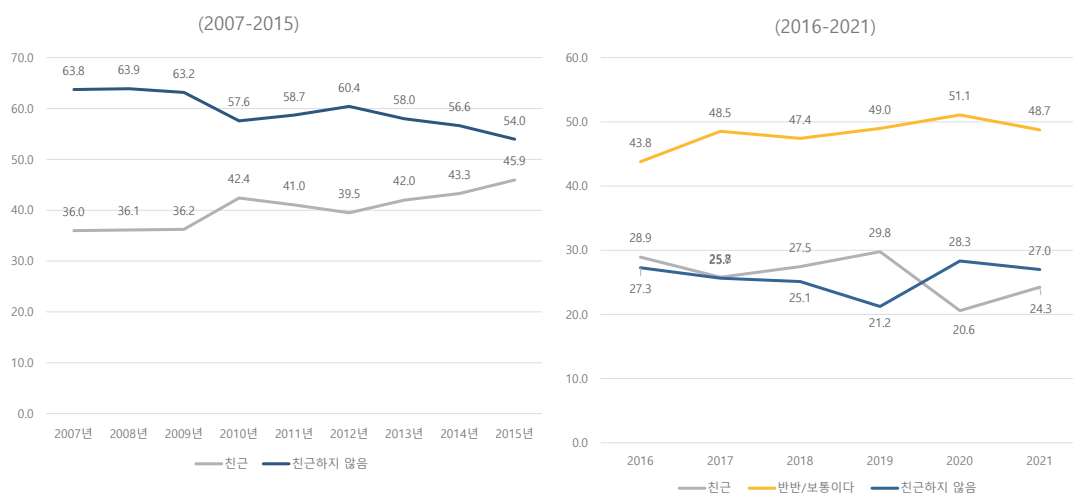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유형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관한 견해
-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2016-202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200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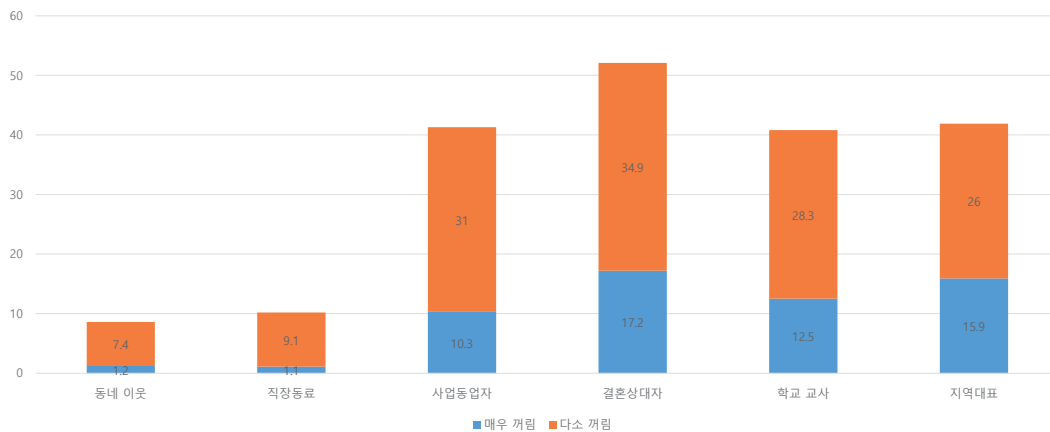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유형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단위: %)

	매우 꺼림	다소 꺼림	①+②	반반/보통이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④+⑤	계
동네 이웃	1.2	7.4	8.6	39.3	43.0	9.0	52.0	100
직장동료	1.1	9.1	10.2	37.7	43.4	8.7	52.0	100
사업동업자	10.3	31.0	41.3	38.1	17.6	3.0	20.6	100
결혼상대자	17.2	34.9	52.1	33.3	12.0	2.5	14.6	100
학교 교사	12.5	28.3	40.8	40.5	16.7	2.0	18.6	100
지역대표	15.9	26.0	41.9	42.6	12.7	2.7	15.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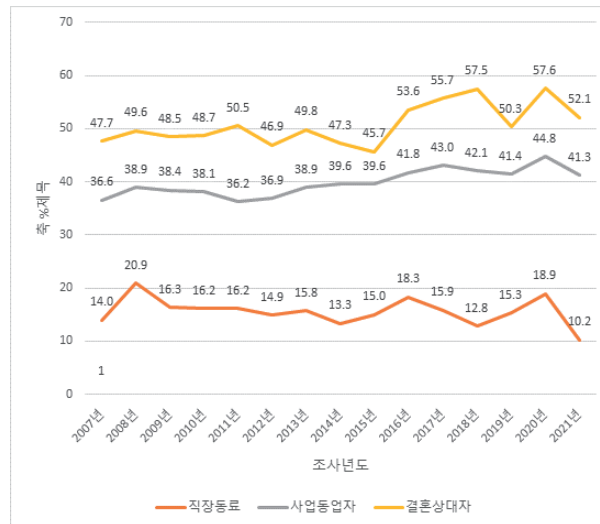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유형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단위: %)

관계 맺기를 매우 꺼림 + 다소 꺼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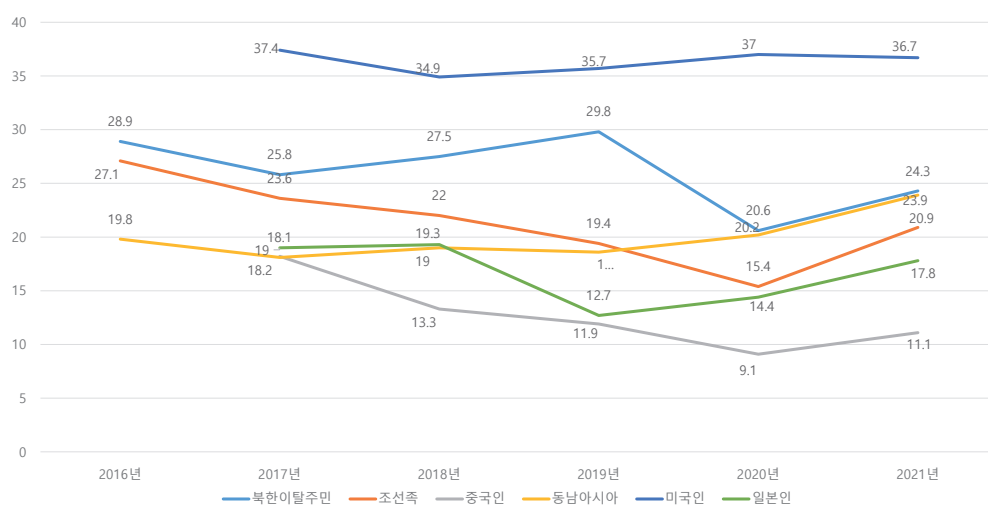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유형별 사회적 거리감 (2007-2021)

매우꺼림 + 다소꺼림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



세대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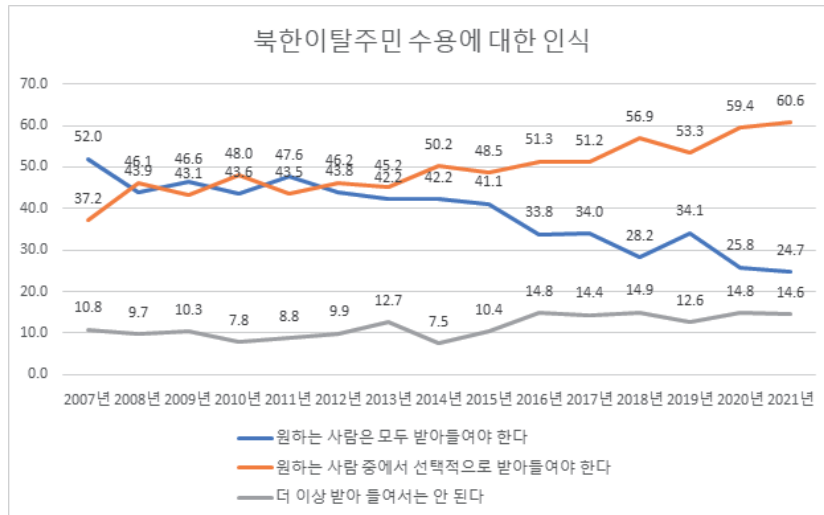
(단위: %)

	매우 친근	다소 친근	반반/ 보통이다	별로 친근하지 않음	전혀 친근하지 않음	계
19~29세	1.4	16.8	49.2	25.0	7.6	100.0 (222명)
30대	0.0	24.4	45.3	25.0	5.3	100.0 (211명)
40대	2.8	25.3	49.2	20.0	2.7	100.0 (244명)
50대	2.0	24.2	46.8	24.2	2.8	100.0 (255명)
60대 이상	1.9	21.8	52.5	21.3	2.4	100.0 (268명)
전체	1.7	22.6	48.7	23.0	4.0	100.0 (12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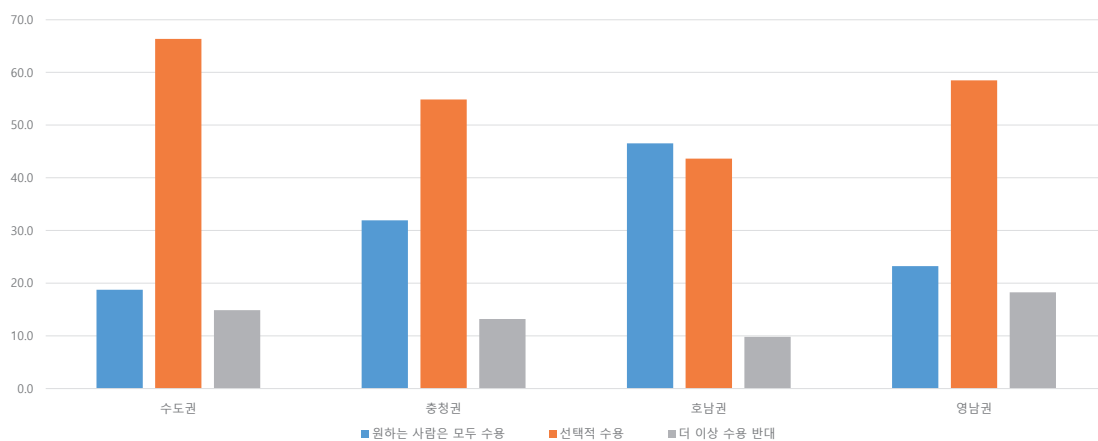
세대별 다른 이주민 대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북한이탈 주민	고려인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미국인	중동인
19세 - 29세	18.2	10.9	11.3	19.6	21.9	36.1	4.1
30대	24.4	11.3	6.8	15.0	21.0	34.1	3.2
40대	28.1	15.8	10.9	20.0	25.0	38.0	6.8
50대	26.2	14.9	12.8	17.4	26.2	38.5	4.6
60대	23.7	12.1	12.7	16.8	24.8	36.4	5.4
평균	24.3	13.1	11.1	17.8	23.9	36.7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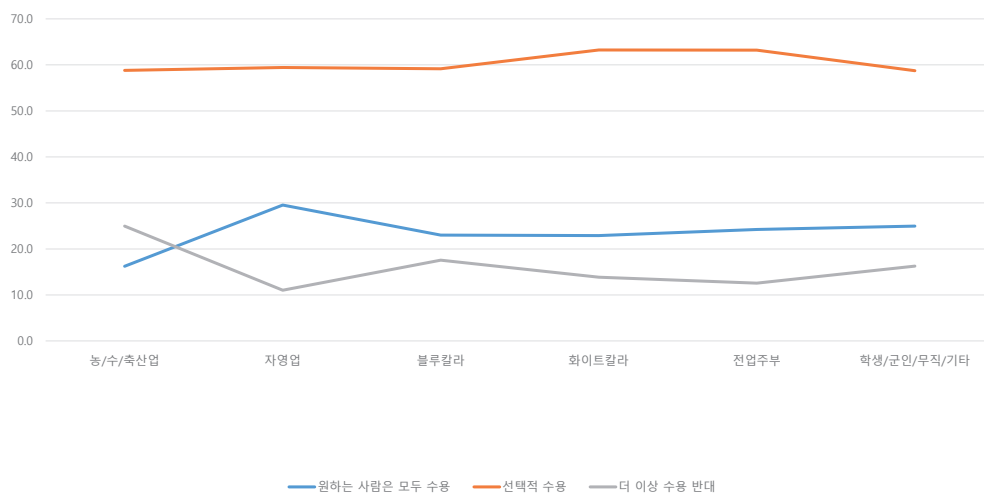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인식 (200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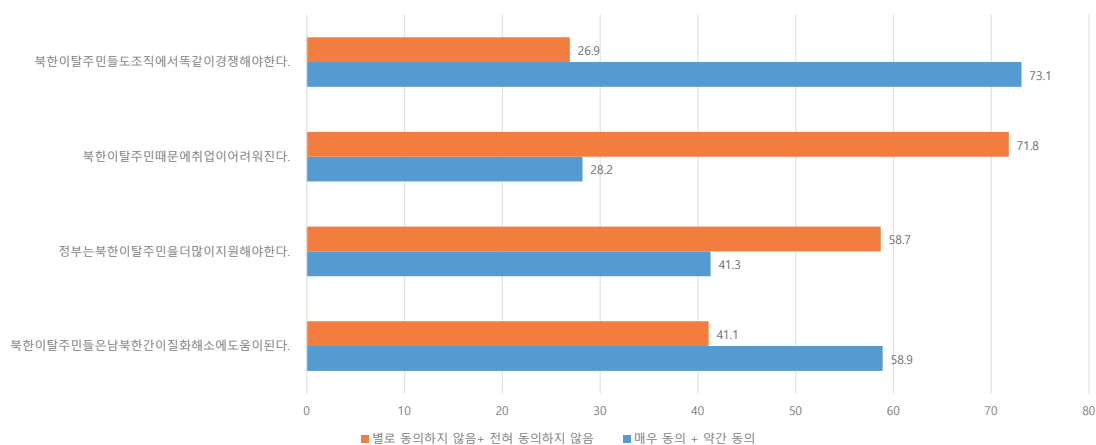
지역별 탈북민 수용에 대한 인식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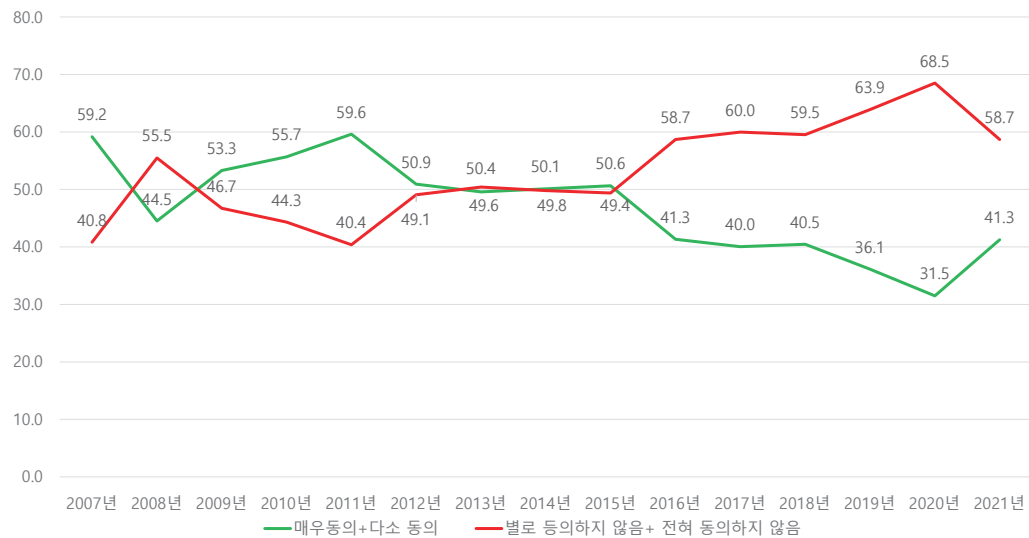
직업별 탈북민 수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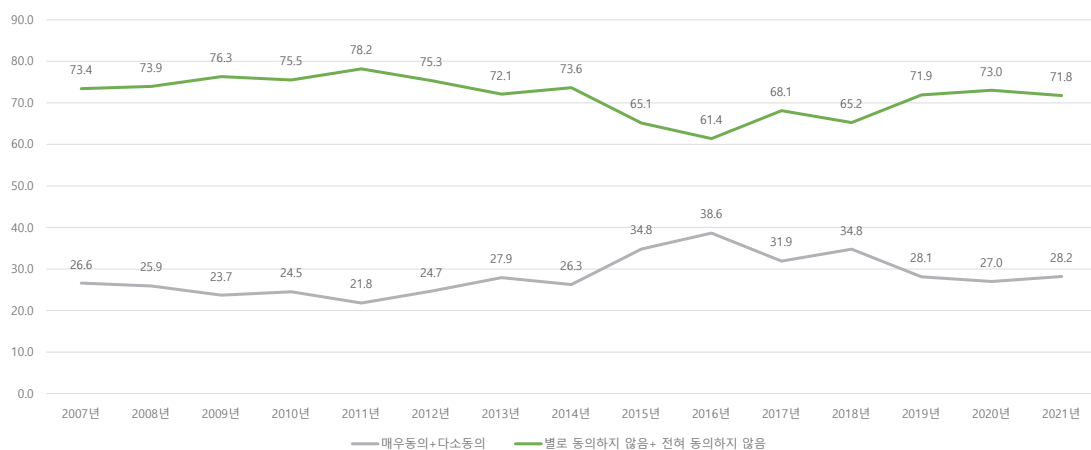
북한 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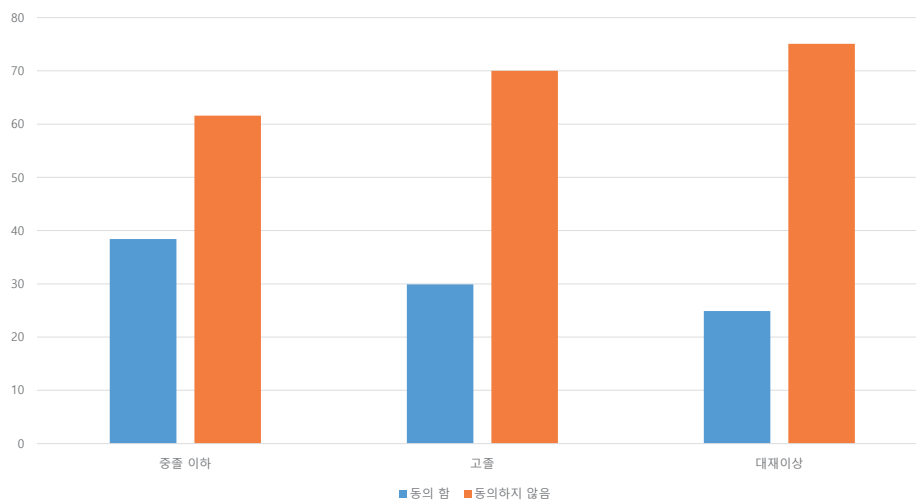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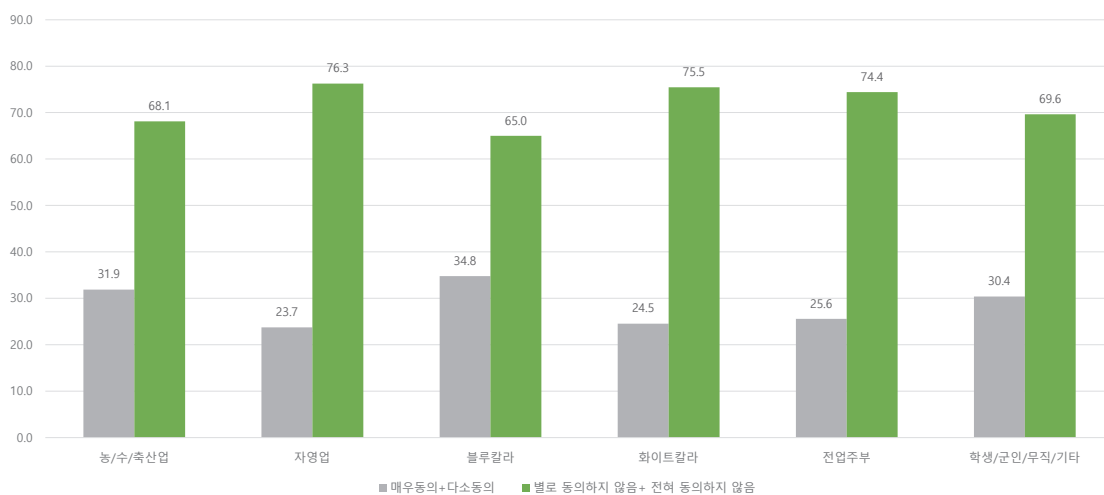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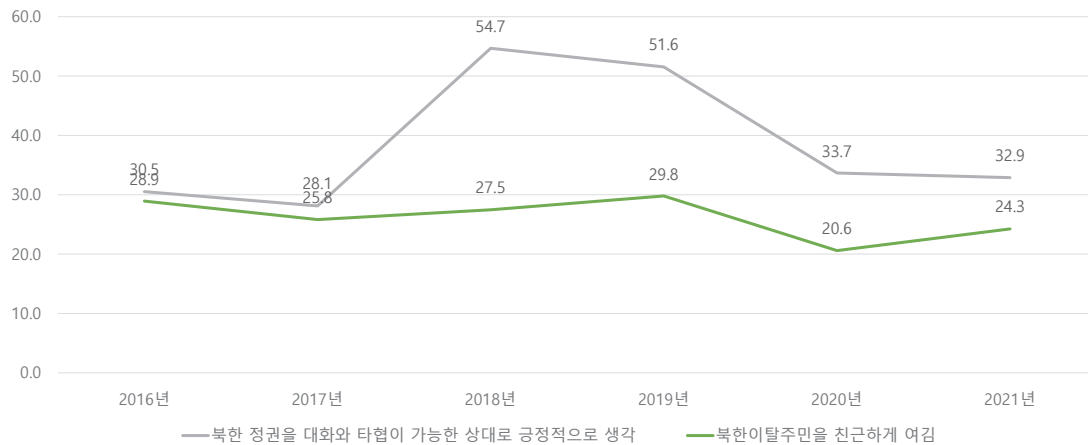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교육수준 (2021)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직업별 (2021)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2016-2021)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경험과 친근감 (2021)

만난 경험	매우 친근	다소 친근	반반/ 보통이다	별로 친근하지 않음	전혀 친근하지 않음	합계
경험 有	2.0% (3명)	34.0% (52명)	45.8% (70명)	16.3% (25명)	2.0% (3명)	100% (105명)
경험 無	1.5% (16명)	21.1% (221명)	48.9% (512명)	23.8% (249명)	4.7% (49명)	100% (1047명)
전체 응답자	1.6% (19명)	22.8% (273명)	48.5% (582명)	22.8% (274명)	4.3% (52명)	100% (12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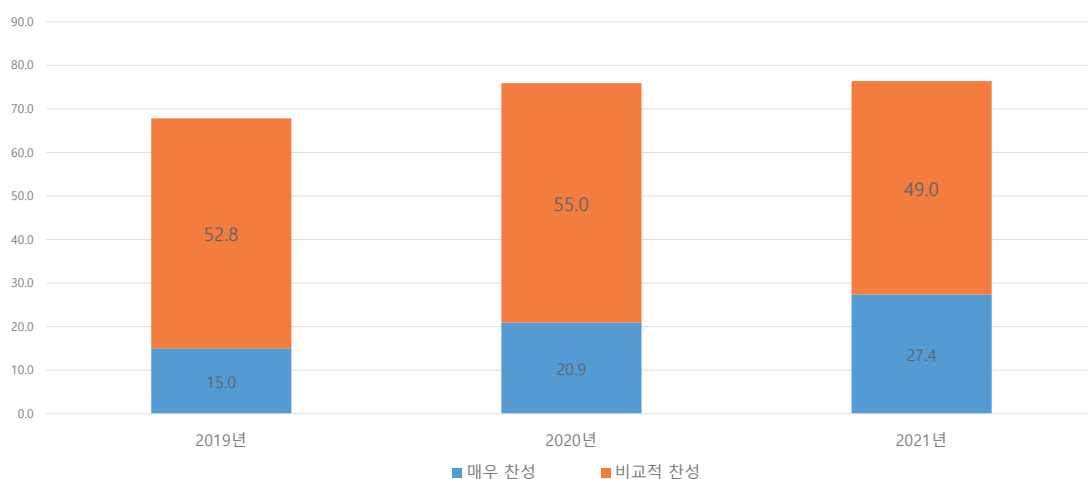
Pearson 카이제곱 15.680* 4 0.003

북한이탈주민 만남 경험 유무와 사업동반 자로서 꺼리는 정도의 관계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 보통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합계
만남 경험 있음	17.0	31.4	31.4	16.3	3.9	100 (153명)
만남 경험 없음	9.5	30.1	39.8	17.7	3.0	100 (1046명)
전체	10.4	30.3	38.7	17.5	3.1	100 (1199명)

Pearson 카이제곱 10.295* 4 0.036

이주 노동자 및 난민에 대한 엄격한 규제 해야 한다 (2019-2021)



미디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한국의 일반 국민들은 언론 보도와 미디어를 통해 탈북민에 대한 정보 얻고 이런 정보들과 기존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탈북민을 인식한다. 언론의 탈북민 보도 프레임은 국민들의 탈북민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엄한아, 2005, “한국 언론의 보도 프레임 분석”

- [굶주림 피해 한국 왔는데… 굶주리다 숨진 탈북 母子 \(2019.8\)](#)
- [오징어배 16명 죽이고 도피한 北선원 2명 추방 \(2019.11.7\)](#)
- [탈북민 최초 지역구 국회의원 탄생 \(2020.4.16\)](#)
- [재입북 탈북자, 빗속 배수로 통해 탈북 \(2020.7.27\)](#)

결론

- 통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도 변화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 보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촉 경험, 북한에 대한 인식, 미디어의 영향, 다른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침. 그러나 접촉 경험의 유무가 친근감에는 영향을 미치나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 맺기 및 이들에 대한 수용태도나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1 통일인식조사

**통일과 평화,
시대와 세대
앞에 서다**

제1부 조사내용

토론1

통일인식, 대북정책, 주변국인식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

통일의식, 대북정책, 주변국인식

정대진(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

통일의식

-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의 발전적 재구성 필요성
-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3단계에서 통일국가의 의미
- 민주평통 2021통일여론조사에서 “미국-캐나다”, “이웃국가” 등의 설문대상 선택지 등장
- 규범상 한 민족, 사실상 두 국가 vs 사실상 한 민족, 규범상 두 국가

• 다양한 통일과정 및 통일국가 형태안

통일과정	내용	통일국가형태
3단계 과정 (연합→연방→단일국가)	남북연합·연방 구성 후 단일국가로 통합	3단계 통합 과정 단일국가
2단계 과정 ①: 연합 후 통합 (연합→단일국가)	남북연합 구성 후 단일국가로 통합	2단계 통합 과정 단일국가
2단계 과정 ②: 연방 후 통합 (연방→단일국가)	남북연방 구성 후 단일정부로 통합	2단계 통합 과정 단일국가
1단계 과정 ①: 국가연합	남북연합 형식의 통합	1단계 통합 과정 연합국가
1단계 과정 ②: 연방국가	남북연방 형식의 통합	1단계 통합과정 연방국가

자료: 정대진(2018). 『남북한 통합형태의 법적 쟁점: 자결권을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제35호, 113쪽.

대북정책

• 대북인식의 세대 분화(2060 VS 4050)

구분	북한은 화해·협력 대상	북한은 적대·경계 대상
전국민 평균	52%	42%
18~29세	42%	52%
30~39세	50%	44%
40~49세	64%	33%
50~59세	62%	32%
60~69세	44%	51%
70세 이상	43%	41%

전국지표조사 통계표/ 2021.5.10.~12일, 전국1003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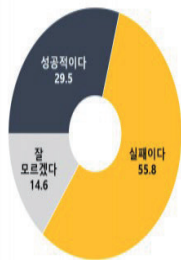
대북정책

- 대북정책 만족도 하락세, 기타 여론조사에서도 유사 경향(질문, 정세변수)

8. 대북정책

대북 정책

문. 최근 북한은 핵무기를 늘리기 위해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n=1,003, 단위: %]



※ 조사기간: 2021년 9월 4일(월)~7일(목) ※ 조사대상: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 조사방법: 휴대전화RDD100% 자동통화면접조사 ※ 응답자수: 1,003명
 ※ 가중치부여: 2021년 8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 지역별 할가중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 3.1% ※ 응답률: 3.8%

구분	사례수		성공적이다	실패이다	잘 모르겠다	
	조사 완료 사례수	가중값 적용 사례수				
지역	전 체	(1003)	(1000)	29.5	55.8	14.6
	서울	(228)	(190)	30.2	56.1	13.6
	경기,인천	(318)	(313)	29.0	56.7	14.3
	대전,세종,충남,충북	(102)	(107)	22.6	55.1	22.3
	광주,전남,전북	(94)	(98)	44.1	35.5	20.3
	대구,경북	(76)	(98)	21.7	67.3	11.0
	부산,울산,경남	(143)	(150)	31.7	55.0	13.3
	강원,제주	(42)	(44)	24.5	72.8	2.7
성	남성	(604)	(497)	28.4	62.1	9.5
	여성	(399)	(503)	30.7	49.6	19.7
연령	만18세~만20대	(154)	(176)	17.2	67.3	15.5
	만30대	(141)	(154)	42.2	49.0	8.8
	만40대	(171)	(187)	38.1	44.5	17.4
	만50대	(223)	(195)	30.3	53.4	16.3
	만60세이상	(314)	(288)	24.2	61.5	14.3

주변국인식

- 한미정상회담 등 변수 (한중정상회담 불투명)
- 미국 관련해서는 현 정권 비판층인 2060에서도 긍정 평가 경향

[표 7] 대통령 방미 성과 평가

[문기]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3박 5일의 방미 일정을 끝내고 귀국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		조사 완료 사례수 (명)	가중값 적용 사례수 (명)	① 매우 성과가 있었다	②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③ 별로 성과가 없었다	④ 전혀 성과가 없었다	모름/ 무응답	①+②	③+④	계
■ 전체 ■		(1008)	(1000)	18	37	25	9	12	55	34	100
성별	남자	(506)	(496)	18	39	23	11	9	57	34	100
	여자	(502)	(504)	17	35	27	7	14	52	33	100
연령	18~29세	(178)	(177)	9	37	29	6	18	47	35	100
	30~39세	(156)	(154)	23	42	20	6	10	64	26	100
	40~49세	(187)	(187)	25	35	20	7	12	61	27	100
	50~59세	(199)	(195)	16	40	28	10	7	56	38	100
	60~69세	(158)	(158)	18	27	31	15	9	45	46	100
	70세 이상	(130)	(129)	13	42	20	9	16	55	29	100

전국지표조사 통계표/ 2021.5.24~26일, 전국1008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2021 통일인식조사

통일과 평화, 시대와 세대 앞에 서다

제1부 조사내용

토론2

북한인식, 북한이탈주민

이주철 (남북교류협력단)

국민 통일의식 추세 변화 - 2005~2020년

이주철 (남북교류협력단)¹⁾

□ 조사 자료

- KBS는 1999년, 2005년과 2010년에는 약 5년을 주기로 국민통일의식 여론조사를 하였으며, 2010년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여론조사를 진행했음(2016년 제외)
- 이 글에서는 2005년부터 2020년 기간 KBS에서 실시한 11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국민의 통일의식 추세 변화를 정리함

□ 국민 통일의식 추세 변화 중요 내용

1.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은 남한국민의 통일의식과 대북정책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소임.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은 군사적 위협, 핵실험, 남북정상회담 참여, 대남 정책 등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나타냄. 지난 10여 년간 평균 약 63%의 남한국민은 북한정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동안의 변동을 보면, 북한정권이 ‘핵 정책과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면, 남한국민의 ‘반감’이 낮아졌음. 이것은 남한국민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음을 의미함
2. 남한국민은 북한을 ‘경계대상’(평균 37.2%)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다음으로 ‘협력대상’(평균 24.62%), ‘적대대상’(평균 23.96%), ‘지원대상’(평균 9.94%), ‘경쟁대상’(평균 4.22%) 의 순서로 인식하고 있음. 핵실험이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적대대상’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그 비율은 평균 23.96% 에 그치고, 평균 약 35%의 국민이 ‘협력대상’, ‘지원대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3.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평균 59.9%(2014~2020년), 평균 65.54% (2005~2013년)가 ‘조건부 확대’(‘조건부 계속’)로 응답함. 북한이 4·5·6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남한국민의 공감대도 약화되었음. 2018~2020년의 한반도 정세 하에서 남한국민 다수는 대북 식량지원을 하되, 그 성과를 요구하는 조건부 지원 입장이 확고함
4.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해서 남한국민의 평균 60.21%가 ‘조건부 계속’(조건부 재개)를 선택함. 2020년 8월까지 북한 핵폐기를 기본 과제로 하는 한반도 정세에 구체적인 진전이 없음.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주요 대북정책에 대한 남한국민의 여론은 ‘조건부 지원’이나 ‘조건부 협력’의 입장이 분명함
5.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남한국민은 평균 55.55%가 ‘조건부 재개’ 를 선택함(2017~2020년). 남한국민은 북핵문제 해결을 남북 경협보다 중요한 우선 순위로 인식하고 있음. 하지만 개성공단등 남북경협에 대한 남한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음 남한국민은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대북지원과 협력을 남북 사이의 평화적 관계 증진 및 한반도 번영의 지지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1) KBS 남북교류협력단 연구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6. 북핵문제 해결 전망에 대해 남한국민은 평균 58.22%가 ‘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을 선택했음(2010~2020년).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다’는 응답은 조사기간 동안 평균 4.2%에 불과함. 2018년과 2019년, 2020년에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다’는 응답이 각각 8.0%, 5.5%, 2.0%인 것은 북핵문제 해결의 복잡 성을 남한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무력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응답 평균이 5%를 넘지 못한 것은 남한국민이 북핵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희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7. 북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한 해결’(평균 25.75%), ‘6자회담을 통한 협상’(평균 20.23%), ‘북미대화’(평균 13.33%), ‘중국의 주도’(평균 7.75%)와 같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한 해결 응답이 많음. ‘남북대화’를 통한 해결은 평균 28.28%임(2017~2020년 조사 결과). 북한 핵문제 해결 방법으로 남한국민의 평균 약 26%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결방법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8. 남한국민의 평균 44.17%는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을 선택함.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평균 24.41%임. ‘교류협력을 하면서 공존상태를 유지’를 응답한 경우도 평균 21.74%에 달함. ‘큰 부담이 없는 통일’을 가장 선호하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즉 남한국민은 평화와 경제적 발전을 모두 기대하는 선택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통일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도 계속 나타낼 것으로 보임 2018~2020년에는 ‘교류협력을 하면서 공존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반드시 통일이 돼야한다’보다 높게 나타남.
 2018년에 한반도 정세 개선이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공존상태’의 안정을 선호하게 된것으로 이해됨.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변화가 추세가 될 가능성이 있음
9. 2017~2020년 조사결과를 보면, 남한국민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통일을 위한 선결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북한 핵문제 해결이 진행될 경우, ‘경제교류협력’이 다음 과제로 부각될 것이며, 대북 경험과 각종 지원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 2020년에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경제교류협 력’의 순서로 응답이 나타났음. 이것은 남한국민이 남북경협 확대에 대해 북한 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조건으로 하는 인식과 관련이 있음
10. 남한국민이 통일과정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임(평균 46.36%). 통일에 대비한 경제적 대책 마련이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보여줌. 남한국민들이 통일과정에서도 번째로 크게 우려하는 것은 평균 21.52%가 응답한 ‘실업과 범죄 증가 및 사회적 혼란’임. 경제적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있음

2021 통일인식조사

**통일과 평화,
시대와 세대
앞에 서다**

제2부 심화분석

발표1

주변국인식 심화 분석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변국 인식 심화분석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변국 위협인식과 협력인식 (요약문)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 학술논의

국제정치 연구에서도 인식 연구는 중요한 연구분야이다. 국제관계에서 행위자가 특정 국가나 정권에 대해 갖는 위협인식과 오인은 전쟁, 억제, 갈등해결 과정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Jervis 1976). 이러한 인식하에서 국제정치에서 미시 vs 거시, 또는 개인 vs 사회집합적 수준에서 감정이 외교정책 및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국제정치연구에서 감정연구의 핵심 과제는 개인의 감정이 어떻게 집단화/정치화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이론화 연구가 진행되기도 한다(용채용·은용수 2017).

국제관계에서 다른 국가에 대해 개개인이 가지는 인식은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차원에서 개인들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인식과 감정은 중요한 연구 과제로 부각된다. 개인의 상대국 이미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적대 혹은 선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Boulding 1959).

개인 차원에서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나 감정이 다수의 대중들에게 어떻게 공유되고 확산되는지, 이로 인해 특정국가에 대한 집단적 인식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는 정치심리학에서 중요한 연구주제이다(Houghton 2008).

한반도 문제는 중요한 국제정치 이슈이며 한국의 중요한 국내정치적 이슈이기도 하다. 한반도 문제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주변국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학술적 연구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정책적, 정치적 함의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2. 북한 위협인식

주변국 중 미국친밀감이 높고, 북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식이 강할수록 북한 위협인식이 높다. 그리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록 위협인식이 높다. 반면에,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북한 위협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한미동맹차원에서 북한에 대응을 하고 있고, 북한 자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3. 중국위협인식

미국과의 친밀감이 있다고 해서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았지만, 2018년 이후 양의 상관관계로 전환되어 2020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중간의 적대적 경쟁이 본격화되는 속에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중국위협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북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중국 위협인식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도 보인다. 이는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할수록 주변국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실주의와 구성주의의 위협인식에 대한 중요 변수(힘 vs 공유가치)의 영향에 대한 테스트 결과, 중국과의 가치공유 인식이 있을수록 위협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중국의 힘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위협인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4. 북중협력 인식

다방면에서 중국과 북한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희망한다고 생각할수록 북중협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중국의 힘이 부상할수록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북중협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경향을 보인다.

앞서 살펴본 공유가치와 파워 인식의 경향과 유사한 결과로, 중국이 한반도 통일문제에 있어 한국과 보조를 맞추고 인식을 공유한다면, 북중협력이 한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중국의 힘이 커지는 속에서 북중협력이 증가하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추정해볼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희망한다고 볼수록 북중협력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며, 무력도발가능성과 북핵위협인식이 강할수록 역시 북중협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5.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중협력 강화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희망한다고 생각할수록 한중협력 강화에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희망한다고 생각할수록 한중협력 강화에 긍정적이지만, 중국의 부상(힘)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한중협력에 부정적 인식을 보여준다.

중국이 한국과 인식을 같이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중국의 힘을 앞세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역할강화에 대해서는 매우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6.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협력 강화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희망한다고 생각할수록, 미국 친밀감이 높을수록 한미협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희망,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 인식은 한미협력 강화 인식과 유의미성이 없다.

7. 결론

북한과 중국위협인식, 북중협력, 한중협력, 한미협력 인식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들을 정리해보면, 우선, 주변국들 중 적대국가간의 인식은 상대성이 존재한다. A 국가에 대한 친밀감이 높을수록 적대적 B 국가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한다. 그리고 주변국 체제 전반에 대한 인식이 위협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 자체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 위협인식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두 번째, 주변국간의 경쟁 구도(미중경쟁)에 대한 이해가 위협인식의 경향을 바꾸고, 통일인식과 북한인식에 따라 위협인식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세 번째, 주변국과 자국이 가치를 공유한다는 인식이 강하면 위협인식이 적어지지만, 주변국 힘의 부상이 더 강하게 인식된다면, 위협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네 번째, 협력인식에 있어서도 주변국이 가치를 공유한다면 적대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주변국 힘의 증대에 경계인식이 있다면, 적대국과의 협력도 매우 큰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한국인들은 한반도 평화문제, 북한과 통일문제에 있어서 주변국들의 영향과 역할이 없다고 인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변국 인식문제와 한반도문제인식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주로 북한문제를 둘러싼 정치안보적 논의에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향후 주변국 인식문제와 한반도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문제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변국 인식 심화분석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변국 위협인식과 협력인식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학술논의

- 국제관계에서 행위자가 특정 국가나 정권에 대해 갖는 위협인식과 오인은 전쟁, 억제, 갈등해결 과정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Jervis 1976)
- 국제정치에서 미시 vs 거시, 또는 개인 vs 사회집합적 수준에서 감정이 외교정책 및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국제정치연구에서 감정연구의 핵심 과제는 개인의 감정이 어떻게 집단화/정치화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용채용·은용수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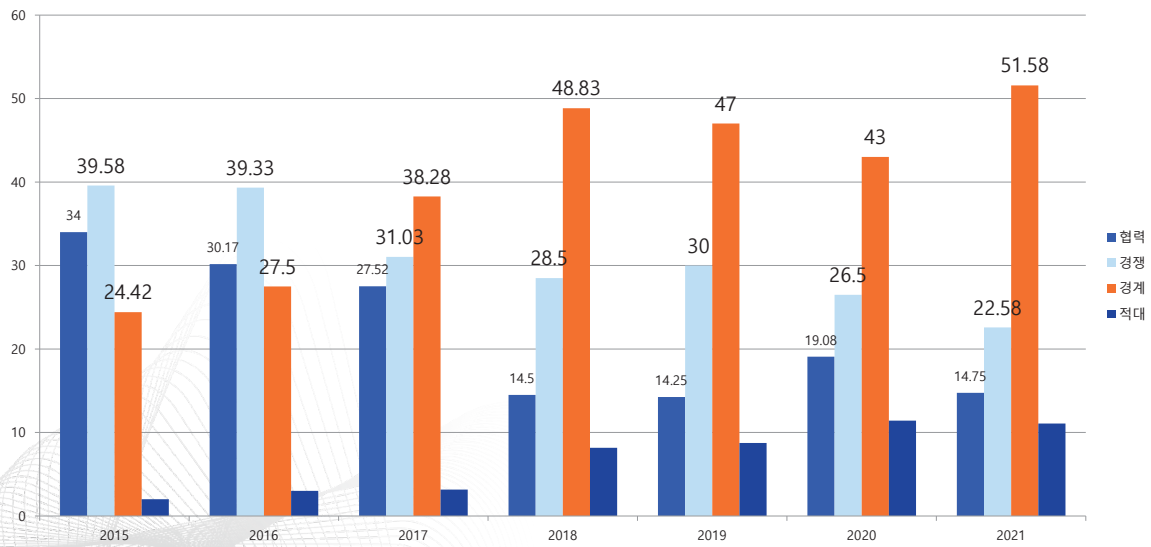
학술논의

- 개인의 상대국 이미지의 가장 큰 비중은 적대 혹은 선호의 이미지(Boulding 1959)
- 개인 차원에서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나 감정이 다수의 대중들에게 어떻게 공유되고 확산되는지, 이로 인해 특정국가에 대한 집단적 인식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는 정치심리학에서 중요한 연구주제(Houghton 2008)
- 한반도 문제는 중요한 국제정치 이슈이며 한국의 중요한 국내정치적 이슈이기도 함 - 일반인들의 인식이 정책에 가장 잘 반영되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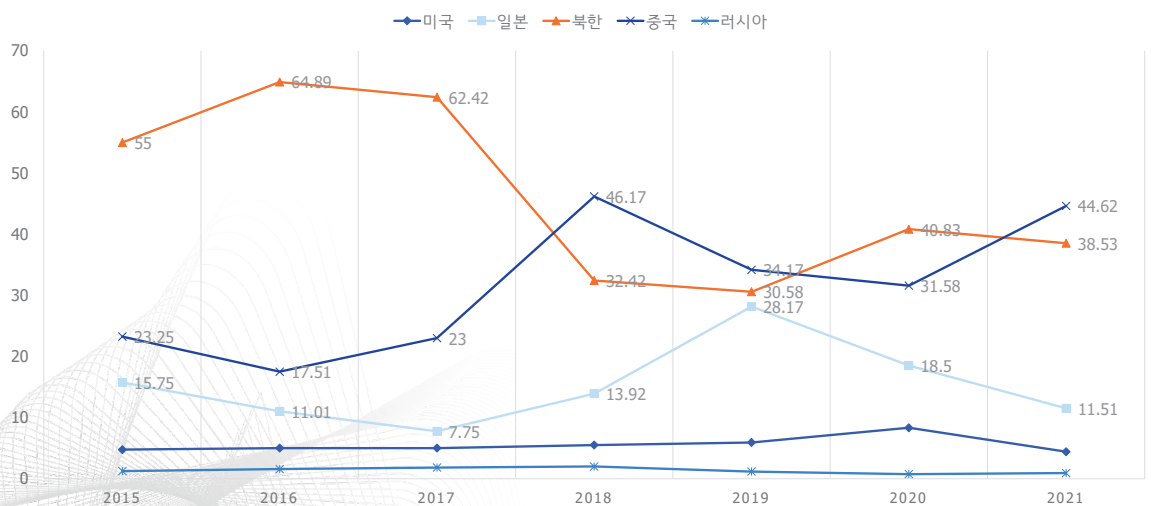
논점

- 한국인들의 주변국 인식
 - ✓ 친밀감 - 미국
 - ✓ 위협인식 - 북한, 중국
 - ✓ 협력인식 - 한중, 한미, 북중
- 최근경향 : 북한 위협인식 감소, 중국 위협인식 증가
- 주변국 인식간의 상관성과 한반도 문제와 통일, 북한 인식간의 관계 등에 대하여 분석

중국인식



평화위협국가



주변국 인식간의 상관성(2021)

	미국친밀감	북한친밀감	중국친밀감	미국위협	북한위협	중국위협
미국친밀감	1.0000					
북한친밀감	-0.7320*	1.0000				
중국친밀감	-0.3680*	-0.0847*	1.0000			
미국위협	-0.1837*	0.1657*	0.1196*	1.0000		
북한위협	0.1188*	-0.1105*	-0.0769*	-0.1703*	1.0000	
중국위협	0.0160	-0.0057	-0.0327	-0.1930*	-0.7107*	1.0000

분석

- 북한위협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 중국위협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 북중협력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 북한 비핵화 위한 한중협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 북한 비핵화 위한 한미협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 주요 영향요인 : 주변국인식, 통일인식, 대북인식, 대북정책만족도
- 주요 통제요인 : 성별, 영호남 거주, 이념성향, 세대, 교육수준, 소득수준

북한위협 로짓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미국친밀감	0.979*** (0.142)	0.493*** (0.139)	0.451** (0.151)	0.450** (0.161)	0.197 (0.137)	0.486** (0.156)
통일필요성	-0.0733 (0.070)	0.0878 (0.068)	-0.240** (0.073)	-0.0323 (0.076)	0.0191 (0.070)	-0.218** (0.069)
통일시기	-0.0609 (0.051)	0.0490 (0.049)	0.0953* (0.048)	0.0221 (0.054)	0.0583 (0.052)	-0.0158 (0.056)
대북인식	0.211*** (0.056)	0.0626 (0.052)	0.0569 (0.056)	0.155* (0.061)	0.269*** (0.054)	0.123* (0.056)
북한대화가가능성	-0.293** (0.094)	-0.328*** (0.0916)	-0.335** (0.117)	-0.218 (0.118)	-0.306** (0.115)	-0.197 (0.109)
무력도발가능성	0.0885 (0.092)	0.0899 (0.090)	0.390*** (0.102)	0.0532 (0.101)	-0.0416 (0.089)	0.258** (0.090)
북핵위협인식	0.237* (0.094)	0.198* (0.0901)	0.199* (0.097)	0.424*** (0.102)	0.174 (0.094)	0.0215 (0.098)
대북정책만족도	0.165 (0.097)	0.0375 (0.098)	0.132 (0.114)	-0.196 (0.111)	-0.115 (0.110)	0.0258 (0.104)

북한 위협인식 분석

- 미국 친밀감이 높을수록 북한위협인식 높음
-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할수록 북한위협인식 높음
- 북한과 대화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볼수록 북한위협인식이 낮음
- 무력도발가능성과 북핵위협인식 - 양의 상관성

중국위협 로짓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미국친밀감	-0.475** (0.169)	-0.0247 (0.160)	0.0971 (0.133)	0.161 (0.142)	0.564*** (0.146)	0.0922 (0.143)
통일필요성	0.00306 (0.084)	-0.111 (0.076)	0.142* (0.068)	0.0632 (0.073)	0.0304 (0.072)	0.183** (0.066)
통일시기	0.0671 (0.061)	-0.0101 (0.056)	-0.145** (0.045)	0.100* (0.050)	0.0212 (0.054)	0.00562 (0.053)
대북인식	-0.189** (0.070)	-0.0433 (0.059)	-0.0708 (0.054)	-0.215*** (0.061)	-0.269*** (0.059)	-0.0277 (0.055)
북한대화가능성	0.373*** (0.113)	0.200 (0.103)	0.169 (0.108)	0.0307 (0.112)	0.141 (0.118)	-0.0518 (0.104)
무력도발가능성	-0.0702 (0.112)	0.0212 (0.103)	-0.289** (0.0931)	0.0564 (0.0955)	0.186* (0.0929)	-0.0934 (0.0860)
북핵위협인식	-0.0709 (0.113)	-0.0359 (0.102)	-0.0112 (0.0874)	-0.0818 (0.0929)	-0.0422 (0.0967)	0.165 (0.0946)
대북정책만족도	0.0790 (0.115)	0.0650 (0.111)	-0.217* (0.105)	0.113 (0.105)	-0.263* (0.114)	-0.0869 (0.0997)

위협인식 : 공유가치 vs 파워 인식

- 현실주의자(사회심리학) : 집단간의 충돌에서 위협인식이 힘의 비대칭의 한 기능
- 구성주의자(사회 정체성이론) : 체성의 공유된 감각이 집단간의 위협에 대한 인식 감소
- 대리변수
 - ✓ 공유가치 : 중국의 한반도 통일희망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 힘(권력) : 중국의 부상 (중국의 부상(강대국화 및 주변국 영향력 확대)은 한반도 평화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협인식 : 공유가치 vs 파워 인식

	2018	2019	2020	2021
중국한반도통일희망 (공유가치)	-0.456*** (0.101)	-0.0993 (0.103)	-0.528*** (0.110)	-0.210 (0.109)
중국부상한반도평화도움 (파워인식)	0.209** (0.0658)	-0.00713 (0.0689)	0.230** (0.0742)	0.371*** (0.0936)
통일필요성	0.138* (0.0695)	0.0583 (0.0738)	-0.0164 (0.0732)	0.149* (0.0675)
통일시기	-0.155*** (0.0462)	0.0967 (0.0508)	0.00700 (0.0546)	-0.0151 (0.0539)
대북인식	-0.0632 (0.0551)	-0.217*** (0.0617)	-0.268*** (0.0598)	-0.0305 (0.0553)
북한대화가가능성	0.254* (0.110)	0.0199 (0.112)	0.154 (0.120)	0.0169 (0.106)
무력도발가능성	-0.288** (0.0942)	0.0616 (0.0960)	0.174 (0.0937)	-0.112 (0.0870)
북핵위협인식	-0.0246 (0.0887)	-0.0779 (0.0929)	-0.0176 (0.0974)	0.175 (0.0959)
대북정책만족도	-0.209 (0.107)	0.111 (0.105)	-0.217 (0.115)	-0.0333 (0.101)

중국위협인식 분석

- 16년, 17년 미국 친밀감과 음의 상관성 이었다가, 18년 이후 양의 상관성
-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중국위협인식 높음
- 대북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중국 위협인식이 낮음
- 가치공유와 중국위협인식 음의 상관성
- 파워인식과 중국위협인식 양의 상관성

북중협력 인식

	2021
미국한반도통일희망	-0.327*** (0.0942)
중국한반도통일희망	0.715*** (0.121)
중국부상한반도 평화도움	-0.932*** (0.101)
통일시기	0.107* (0.0513)
무력도발가능성	-0.225* (0.0894)
북핵위협인식	-0.335*** (0.0974)
대북정책만족도	0.246* (0.104)
호남거주	-0.670** (0.208)
보수	-0.518** (0.160)
교육수준	-0.287** (0.109)
소득수준	0.145* (0.0741)

북중협력에 대한 인식 분석

-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희망한다고 생각할수록 북중협력에 부정적
-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희망한다고 생각할수록 북중협력에 긍정적
-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북중협력에 부정적
- 통일시기를 멀게생각할수록 북중협력에 긍정적
- 무력도발가능성, 북핵위협인식이 높을수록 북중협력에 부정적
- 대북정책만족도가 높을수록 북중협력에 긍정적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중협력 강화

	2018	2019	2020	2021
미국한반도통일 희망	-0.494** (0.170)	-0.0945 (0.179)	-0.000677 (0.160)	-0.430** (0.163)
중국한반도통일 희망	0.445* (0.188)	0.359 (0.204)	0.182 (0.178)	0.885*** (0.200)
중국부상한반도 평화도움	-0.108 (0.112)	-0.802*** (0.148)	-0.327** (0.113)	-1.095*** (0.172)
중국위협인식	-0.167 (0.283)	0.0983 (0.302)	0.344 (0.249)	0.264 (0.296)
북한위협인식	0.313 (0.288)	0.169 (0.312)	-0.446 (0.268)	0.445 (0.308)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중협력 강화 분석

-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희망한다고 생각할수록 한중협력 강화에 부정적
-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희망한다고 생각할수록 한중협력 강화에 긍정적
-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한중협력에 부정적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협력 강화

	2018	2019	2020	2021
미국 한반도 통일희망	0.280** (0.0927)	0.333*** (0.0889)	0.0847 (0.0983)	0.359*** (0.0922)
중국 한반도 통일희망	-0.325** (0.110)	-0.248* (0.107)	0.113 (0.113)	-0.0904 (0.117)
중국 부상한반도 평화도움	-0.115 (0.0667)	-0.0402 (0.0676)	0.0549 (0.0709)	-0.0155 (0.0935)
중국 위협인식	0.0973 (0.168)	-0.386** (0.149)	0.302 (0.175)	-0.183 (0.180)
북한 위협인식	0.187 (0.178)	-0.302 (0.158)	0.581*** (0.167)	-0.238 (0.186)
미국 친밀감	0.548*** (0.143)	0.575*** (0.142)	0.297* (0.142)	0.211 (0.150)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협력 강화 분석

-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희망한다고 생각할수록 한미협력 강화에 긍정적
-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희망,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 인식은 유의미성이 없음
- 미국 친밀감이 높을수록 한미협력 강화에 긍정적

결론

1. 적대국가에 대한 친밀감이 높을수록 위협인식이 증가(인식의 상대성), 북한 자체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 위협인식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남
2. 주변국간의 경쟁 구도(미중경쟁)에 대한 이해가 위협인식의 경향을 바꾸고, 통일인식과 북한 인식에 따라 위협인식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남
3. 가치를 공유한다고 인식이 강하면 위협인식이 적어지지만, 힘의 부상이 더 강하게 인식된다면, 위협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임
4. 협력인식에 있어서도 주변국이 가치를 공유한다면 적대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주변국의 힘의 증대에 경계인식이 있다면, 적대국과의 협력도 매우 큰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음

2021 통일인식조사

**통일과 평화,
시대와 세대
앞에 서다**

제2부 심화분석

발표2

통일인식 추세 심화 분석

김학재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의 장기적 추세(2011~2021)와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의 조건 (요약문)

김학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 서론

가. 통일·평화 정책의 추진을 위해 통일문제에 대한 여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 1) 탈냉전 직후인 1990년대에 남북 통일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90%를 넘었지만, 30년이 지난 현재에는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44.6% ~ 75%의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 2) 또한 남북관계와 북한에 대한 여론의 차이는 지지 정당, 이념, 세대, 거주 지역의 차이와 같은 내부 사회 균열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 3) 수십년간 추진된 유럽 통합 과정에서 국가간 합의 뿐 아니라 국내에서 국민투표나 여론조사 등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것과 그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최근으로 올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국민 여론의 차이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분석,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나. 통일, 북한과 관련된 여론의 차이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정치적 차원이다.

- 1) 통일문제, 북한에 대한 인식은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 지지 정당, 거주 지역과 세대 차이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정치적 기준이 되어 왔다.
- 2) 지속가능한 통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 여론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 차이와 사회경제적 조건과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 지난 10여년간 통일 여론의 장기적 추세 변화 및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통일 여론에 대한 기존 연구

가. 통일 여론에는 주변국 인식과 북한 인식, 지지 정당, 이념, 정파성과 경제 상황인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1)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인식(협상과 대화 가능성, 위협인식), 주변국에 대한 선호 여부가 진보-보수 이념과 정치적 입장차이에 영향을 주고 있다.
- 2) 통일의 필요성이나 통일로 인한 이익과 같은 통일 여론에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진보-보수중 어떤 이념 성향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 3) 통일 여론에는 주변국 인식, 북한인식, 정파성도 영향을 주지만, 경제 정책에 대한 선호,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3. 10년간의 통일 여론 추세 분석

가. 통일 여론과 정파성, 이념, 지역, 경제인식

- 1) 2011~2021년까지 통일 인식, 북한인식, 정파성, 경제상황인식이 어떤 관계를 보였는지 지금까지의 분석들을 보완한 모형을 통해 추세와 변화 및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 심화분석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국민 여론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북한과 대화와 타협 가능성, 경제상황 만족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했다.

나. 통일의 필요성

- 1) 2011~2021년까지 통일의 필요성을 나이, 교육수준, 지지 정당, 경제만족도, 이념, 거주 지역 변수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 2) 나이와 교육수준은 지속적으로 통일의 필요성 여론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 3) 11년의 조사기간중 10년간 경제 만족도가 높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대로 보수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통일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지속되었다.
- 4) 보수정당 집권 시기(2011~2016)에는 진보 야당 지지자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높게 보는 경우가 있었고(2011년, 2013년), 진보정당 집권시기(2017~2021)에는 보수 야당 지지자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보수적으로 보고(2019~2021) 무당파는 최근 5년간(2017~2021) 통일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 5) 광주 전라 지역 거주자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2012, 2013, 2015~2017, 2020)하고, 부산·울산·경남 거주자들은 부정적으로 인식(2011, 2014, 2015~2017, 2021)하는 경향을 보였고, 인천경기(2012, 2018), 충청(2015, 2017, 2018), 강원(2012, 2016, 2018), 제주(2016, 2017, 2019~2020)는 시기에 따라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다.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 1) 2011~2021년까지 통일의 편익을 나이, 교육수준, 지지 정당, 경제만족도, 이념, 거주 지역 변수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통일의 필요성과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 2) 정권교체나 지지정당과 무관하게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일 편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경제 만족도가 높을수록 통일 편익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 3) 반면 보수 이념성향을 갖고 있거나, 지지 정당, 거주 지역에 따라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보수정당 집권시기엔 진보 야당이 통일 편익을 긍정적으로 인식(2011, 2016)했고, 진보정당 집권시기에는 보수 야당과 무당파가 통일 편익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라. 북한과 대화와 타협 가능성

- 1) 북한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보는 인식을 나이, 교육수준, 지지 정당, 경제만족도, 이념, 거주 지역 변수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정치적 성향이 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 2) 나이와 교육수준은 유사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통일 여론만큼 일관되진 않았고, 경제 만족도는 전 기간(2011~2021)동안 일관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 3) 보수정당 집권시기엔 진보 야당이 일관되고 뚜렷하게 북한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인식했고, 진보정당 집권시기엔 보수 야당이 비교적 일관되게 북한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무당파는 보수정당 집권시기엔 긍정적 인식을 보이기도 했지만(2013), 진보정당 집권시기엔 비교적 일관되게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 4) 지역차이의 경우 광주 전라 거주자들은 비교적 일관되게 북한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인식했으며, 인천경기, 강원, 충청 등

접경지역 거주자들은 종종 긍정적 인식을 보였고, 부산·울산·경남 거주자들은 한 해(2011)를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부정적 인식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긍정적 인식(2014, 2019)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인식은 거주 지역보다는 주로 정파성과 연결된 모습을 보였다.

마. 경제 상황 만족도

- 1) 모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통일 여론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경제만족도를 나이, 교육수준, 지지정당, 이념, 거주지역에 따라 회귀분석을 한 결과, 나이와 교육수준은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 2) 많은 경우에 야당 지지층과 무당파는 경제만족도가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 3) 보수 정당 집권시기엔 광주전라 지역 거주자의 경제만족도가 낮았고, 진보 정당 집권시기엔 특히 대구경북 거주자의 경제만족도가 낮았다.

4. 정당지지와 통일·북한·경제 분야 여론

가. 시기별 정당지지와 통일·북한·경제 여론이 미치는 영향

- 1) 통일, 북한 여론이 아니라 정당 지지를 종속변수로 보고 통일, 북한, 경제 여론 및 다른 변인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한 결과,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여론이 어떠한 정치적 차이로 나타나는지 보다 분명히 나타났다.
- 2) 보수정당 집권시기엔 통일의 필요성 여론이나 통일 편익 여론보다는 북한과 협력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여론이 진보 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고, 경제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나이가 어리고, 진보 이념성향이고, 광주전라 거주자일수록 집권당보다 진보 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교육수준 변수는 정당지지와 관련이 없었다.
- 3) 반대로 진보정당 집권시기엔 2018-2019년 평화프로세스가 전개된 이후인 2019년부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북한과 협력과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보수 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컸다. 경제 상황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보수 이념 성향일수록, 대구경북 거주자일수록 보수 야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 무당파의 통일 여론

- 1) 무당파의 경우, 모든 시기에 경제만족도가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무당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2) 보수 정당 집권시기엔 진보이념 성향, 광주전라 거주자일수록 무당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반대로 부·울·경 거주자는 무당파가 될 확률이 줄어들고 지지 정당이 분명해졌다. 정권 교체 시기에 인천·경기, 충청, 대구·경북, 강원 등에서 무당파가 증가했다.
- 3) 진보 정당 집권 시기엔 북한을 대화와 협력 상대로 보지 않고,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볼수록, 보수 이념 성향일수록 무당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광주전라 거주자는 무당파가 될 확률이 줄고 지지 정당이 분명해졌다.

5. 소결

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의 추세로 본 통일 여론

- 1) 지난 11년간 통일의 필요성,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 북한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지지 정당, 이념, 지역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했다.
- 2) 경제상황 만족도는 일관되게 통일여론, 북한인식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무당파와 정치적 반대의 증가에 이어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정권 교체에 따라 경제상황 인식도 다소 정파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 3) 진보-보수 정권이 교체되면 양대 정당과 지지층은 통일 여론, 북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며 통일 정책을 두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것이 이념, 지역, 나이와 연결되어 있었다.
- 4) 무당파는 진보-보수 집권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체로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나이가 많을 경우 무당파가 되고, 보수집권 시기에는 무당파가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생기기도 하지만, 진보집권 시기에는 북한인식, 통일 필요성, 통일이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이 최근 경향이다.
- 5) 주변국 호감/위협인식도 시기에 따라 통일 여론, 북한 인식, 정당지지와 이념 성향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미국에 대한 호감과 위협인식, 북한에 대한 호감과 위협인식,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인식들이 때때로 통일 여론, 북한 인식, 정당지지, 이념성향에 영향을 주었다.
- 6) 다만 통일의식조사 자료가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던 시기의 자료가 아니라, 남북관계가 대체로 악화되고 개선되기 어려웠던 시기들의 상황을 반영하는 자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결과에 대한 해석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나. 통일·평화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합의

- 1) 통일, 북한에 대한 인식, 주변국 호감/위협에서 지지 정당, 지역, 이념에 따른 차이가 크고 분명 하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건 북한인식, 통일정책에 대해 국내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야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 2) 통일, 평화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만족도가 올라가야 한다.
- 3) 남북이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고 통일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주변국들도 서로 대화와 협상에 나서고, 앞으로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정체성을 이루려는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 미중 경쟁 시대에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간의 합의 뿐 아니라 4자, 6자 등 다자간 평화, 안보 협상과 합의가 필요하다.
- 4) 정권 교체에 따라 양당간 대립과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체제(대통령-양당제-단임제-중앙집중)에서 통일과 평화프로세스를 지속시킬수 있는 국내 정치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도 필요하다.
- 5) 동서독 교류 협력과 통일, 미국의 연방형성과정, 유럽 통합과 연합의 형성과정에서도 통일의 방식과 연합 형성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그러한 논쟁은 통일과 연합의 미래상에 대한 다양한 논쟁과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현실화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사회에서도 북한/통일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미래상에 대한 다양한 논쟁 및 여야 합의,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1.10.5.

통일의식의 장기적 추세(2011~2021)와 지속가능한 통일·평화 정책의 조건

김학재(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목차 A table of contents.

- 1 통일 여론과 정책
- 2 기존연구와 분석 모델
- 3 2011~2021년 여론 추세 분석
 - 통일의 필요성
 - 통일의 편익
 - 북한과 대화 타협 가능성
 - 경제상황 만족도
- 4 정당 지지와 통일, 북한, 경제 여론
 - 정당 지지에 통일, 북한, 경제 여론이 미치는 영향
 - 무당파의 통일, 북한, 경제 여론
- 5 결론과 함의

Part 1.

1. 통일여론과 정책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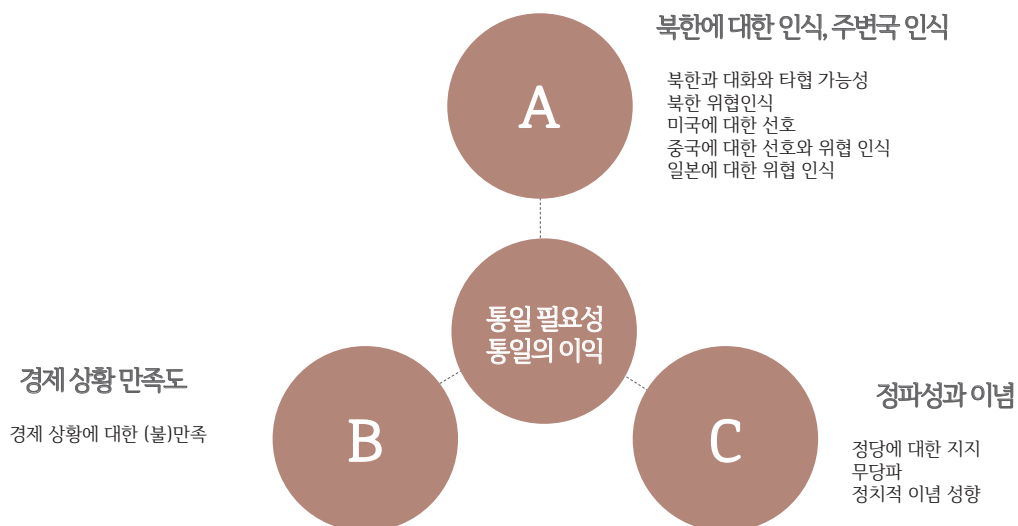
통일·평화 정책과 통일 여론의 중요성

- 90년대 남북 통일에 대한 여론 지지는 **90%**, 30년이 지난 현재 **44.6% ~ 75%** 수준
- 통일, 북한 여론의 차이는 **지지 정당, 이념, 세대, 거주 지역**의 차이 등 내부 사회 균열 구조와 연결
- 유럽 통합과정이 수십년 간 추진되며 **국민투표나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듯이, 한국에서도 국민 여론의 차이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분석, 대응이 중요
- 통일문제, 북한에 대한 인식은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 지지 정당, 거주 지역과 세대 차이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정치적 기준.
- 지속가능한 통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년간 (2011~2021) 통일 여론**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 차이와 사회경제적 조건과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 **장기적 추세 변화 및 특성**에 대한 분석

통일여론에 대한 기존 연구

- **북한에 대한 인식**(협상과 대화 가능성, 위협인식), **주변국에 대한 선호** 여부가 진보-보수 이념과 정치적 입장차이에 영향
- 김태현, 남궁곤, 양유석(2003), 이상신(2013)
- **통일의 필요성**이나 **통일로 인한 이익**과 같은 통일 여론에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진보-보수중 어떤 **이념 성향**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영향
- 정동준(2016, 2017), 이성우(2020), 이성우(2015), 박원호(2020)
- 통일 여론에는 주변국 인식, 북한인식, 정파성도 영향을 주지만, **경제 정책에 대한 선호,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 영향
- 이성우(2013), 박원호(2020)

기존 연구의 통일의식 분석



Par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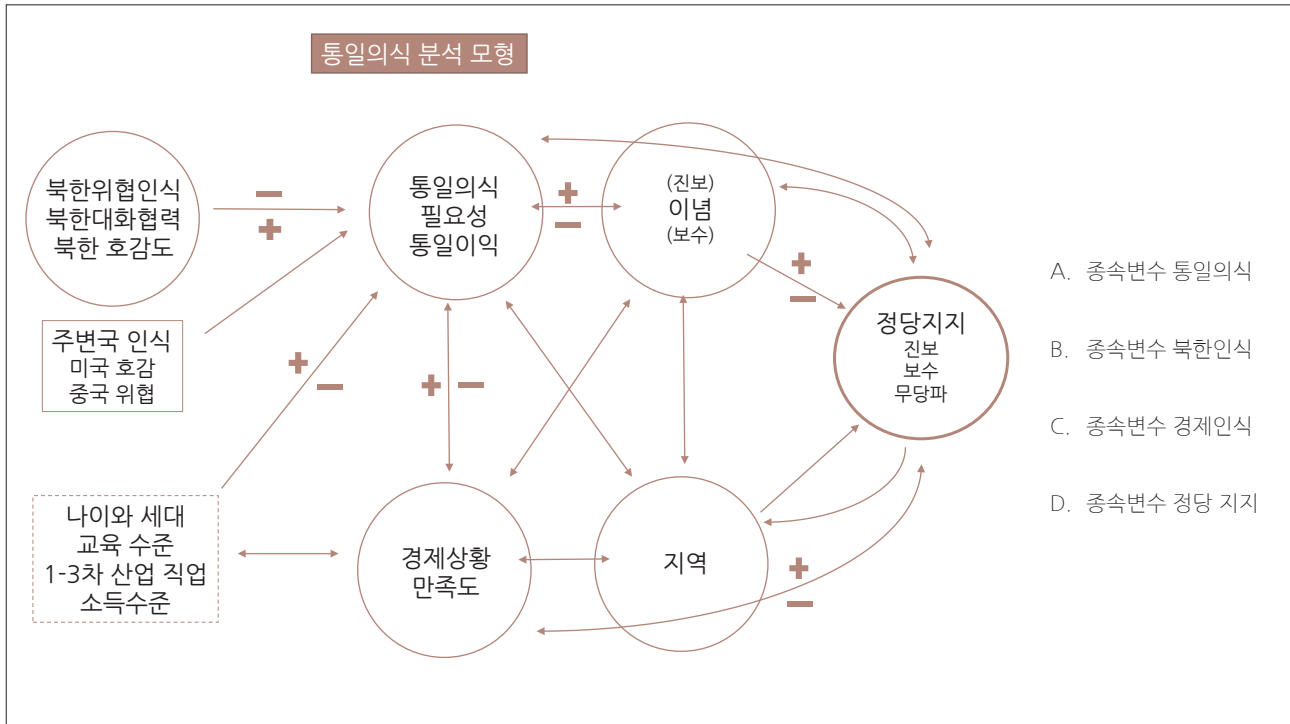
3. 10년간 통일이론 추세와 특성 분석



Part 3

11년간의 통일 여론 추세 분석

- 2011~2021년까지 통일 인식, 북한인식, 정파성, 경제상황인식이 어떤 관계를 보였는지 지금까지의 분석들을 보완한 모형을 통해 추세와 변화 및 특성을 이해할 필요.
- 심화분석에서는 국민 여론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북한과 대화와 타협 가능성, 경제상황 만족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
- 자료 : 2007~2021년 통일의식조사 자료중 지지정당 조사 포함 2011~2021 자료 전국, 1,200명 표본, 매년 1회 정기 조사
- 분석 방법 :
 - 1) 통일 필요성, 통일 편익, 북한 대화가능성, 경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나이, 교육수준, 지지정당, 이념, 거주지역 변수를 설명변인으로 순위 로지스틱 회귀
 - 2) 지지 정당을 종속 변수로 통일 필요성, 통일편익, 북한 대화가능성, 경제만족도, 나이, 이념, 거주지역 변인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Part 3

1) 통일의 필요성 여론

- 통일의 필요성을 나이, 교육수준, 지지 정당, 경제만족도, 이념, 거주 지역 변수로
- **나이와 교육수준**은 지속적으로 통일의 필요성 여론에 긍정적인 상관관계.
- 11년의 조사기간중 10년간 **경제 만족도가 높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대로 **보수이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통일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지속.
- 보수정당 집권 시기(2011~2016)에는 **진보 야당** 지지자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높게 보는 경우 (2011년, 2013년), 진보정당 집권시기(2017~2021)에는 **보수 야당** 지지자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보고(2019~2021) **무당파**는 최근 5년간 (2017~2021) 통일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
- 광주 전라 지역 거주자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2012, 2013, 2015~2017, 2020)하고, 부산·울산·경남 거주자들은 부정적으로 인식(2011, 2014, 2015~2017, 2021) 하는 경향, 인천경기(2012, 2018), 충청(2015, 2017, 2018), 강원(2012, 2016, 2018), 제주(2016, 2017, 2019~2020)는 시기에 따라 긍정적 인식.

표 1. 통일의 필요성 순위 로지스틱 분석 결과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나이	0.037*** (0.0053)	0.041*** (0.005)	0.040*** (0.005)	0.049*** (0.005)	0.052*** (0.005)	0.049*** (0.004)	0.038*** (0.004)	0.030*** (0.004)	0.035*** (0.004)	0.040*** (0.004)	0.032*** (0.004)
교육 수준	0.241** (0.098)	0.348*** (0.100)	0.534*** (0.101)	0.467*** (0.103)	0.314** (0.103)	0.314** (0.100)	0.302** (0.101)	0.373*** (0.105)	0.167* (0.101)	0.240** (0.101)	-0.004 (0.091)
제1 야당	0.511*** (0.189)	.184 (0.182)	0.376** (0.184)	0.053 (0.141)	-0.158 (0.193)	-0.008 (0.178)	-0.139 (0.197)	-0.226 (0.219)	-0.785** (0.209)	-0.412** (0.176)	-0.572** (0.177)
무당파	0.152 (0.137)	-0.037 (0.141)	.0697 (0.129)	-0.268* (0.141)	-0.108 (0.135)	-0.188 (0.138)	-0.384** (0.127)	-0.260** (0.125)	-0.697** (0.135)	-0.353** (0.136)	-0.271* (0.144)
정의당						0.946* (0.539)	-0.746** (0.368)				
								바른 미래	-1.032** (0.329)	국민의힘	-0.57***
경제 만족도	0.309*** (0.077)	0.149* (0.076)	0.234** (0.078)	0.170** (0.081)	0.163** (0.077)	0.034 (0.084)	0.225** (0.085)	0.348*** (0.081)	0.277*** (0.078)	0.307*** (0.081)	0.415*** (0.084)
이념	-0.159** (0.068)	-0.387** (0.070)	-0.238** (0.068)	-0.123* (0.071)	-0.200** (0.071)	-0.081 (0.070)	-0.089 (0.067)	-0.298** (0.078)	-0.360** (0.076)	-0.391** (0.074)	-0.243** (0.073)
광주 전라	0.164 (0.217)	0.616*** (0.220)	0.773*** (0.221)	0.226 (0.203)	1.161*** (0.207)	0.765*** (0.207)	0.446** (0.204)	-0.137 (0.204)	0.218 (0.208)	0.462** (0.210)	-0.093 (0.210)
부울경	-0.702** (0.172)	-0.140 (0.175)	0.083 (0.172)	-0.415** (0.179)	0.172 (0.180)	-0.457** (0.180)	-0.307* (0.184)	-0.428** (0.183)	0.206 (0.185)	-0.228 (0.186)	-0.414** (0.188)
지역		인천경기 0.311*** 강원 0.864**			충청 0.333* (0.194)	강원 1.236*** 제주 1.404***	충청 0.657*** 제주 0.724**	강원 0.815**	인천경기 0.543*** 충청 0.511* 제주 1.17***		
지역									대구경북 -0.400*		
n	1187	1194	1191	1197	1200	1198	1194	1200	1195	1196	1142
	*한나라당 기준		*새누리당 기준				*더불어민주당 기준				
	*서울기준										

통일의 필요성

- 나이 +
- 교육수준 +
- 제1 야당 +(보수정권)
- 제1 야당 -(진보정권)
- 무당파 -(진보정권)
- 경제만족도 +
- 이념 -(보수)
- 거주지역 + / -

Part 3

2)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 2011~2021년까지 통일의 편익을 나이, 교육수준, 지지 정당, 경제만족도, 이념, 거주 지역 변수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통일의 필요성과 유사한 결과가 발견.
- 정권교체나 지지정당과 무관하게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일 편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경제 만족도가 높을수록 통일 편익을 긍정적으로 인식.
- 반면 보수 이념성향을 갖고 있거나, 지지 정당, 거주 지역에 따라 부정적인 인식.
- 보수정당 집권시기엔 진보 야당이 통일 편익을 긍정적으로 인식(2011, 2016)했고, 진보정당 집권시기에는 보수 야당과 무당파가 통일 편익을 부정적으로 인식.

표 2.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순위 로지스틱 분석 결과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나이	0.015*** (0.005)	0.011** (0.005)	0.013*** (0.005)	0.028*** (0.005)	0.025*** (0.005)	0.015*** (0.004)	0.025*** (0.005)	0.009* (0.005)	0.015** (0.004)	0.021*** (0.004)	0.014** (0.004)
교육 수준	0.447*** (0.101)	0.334*** (0.103)	0.542*** (0.106)	0.376*** (0.107)	0.413*** (0.107)	0.299** (0.101)	0.438*** (0.106)	0.400*** (0.110)	0.124 (0.104)	0.462*** (0.107)	0.021 (0.098)
제1 야당	0.531*** (0.190)	0.198 (0.184)	0.281 (0.191)	0.065 (0.178)	-0.116 (0.200)	0.487** (0.185)	-0.578** (0.207)	-0.000 (0.235)	-0.679** (0.214)	-0.540** (0.185)	-0.514** (0.187)
무당파	-0.006 (0.141)	0.078 (0.145)	-0.118 (0.137)	-0.123 (0.143)	-0.147 (0.141)	-0.082 (0.142)	-0.097 (0.132)	-0.047 (0.131)	-0.538*** (0.142)	-0.743*** (0.146)	-0.515** (0.153)
정의당				1.249* (0.703)	-0.889* (0.536)		-1.023** (0.402)				
								바른미래	-1.154* (0.357)	국민의힘	-0.57***
경제 만족도	0.237** (0.079)	0.332*** (0.079)	0.355*** (0.082)	0.190** (0.086)	0.323** (0.080)	0.095 (0.086)	0.198*** (0.091)	0.385*** (0.085)	0.465*** (0.083)	0.514*** (0.086)	0.330*** (0.089)
이념	-0.047 (0.070)	-0.379*** (0.071)	-0.133* (0.070)	-0.059 (0.073)	-0.113(0.072)	0.016 (0.073)	-0.083 (0.070)	-0.301*** (0.081)	-0.244** (0.079)	-0.340*** (0.077)	-0.203** (0.077)
광주 전라	-0.243 (0.217)	0.235 (0.220)	0.392** (0.222)	0.674*** (0.203)	1.019*** (0.216)	-0.053 (0.209)	0.425** (0.211)	-0.175 (0.214)	0.097 (0.222)	0.110 (0.223)	-0.196 (0.229)
부울경	-0.317* (0.179)	0.640 (0.183)	-0.197 (0.183)	-0.221** (0.188)	0.196 (0.192)	0.044 (0.185)	-0.068 (0.190)	-0.587** (0.193)	0.226 (0.195)	-0.376* (0.200)	-0.425** (0.199)
		강원 0.611* 제주 0.937*		강원 0.584* 제주 0.795**				강원 0.986**	인천경기 0.565*** 충청 1.072*** 제주 0.89**	제주 0.970**	
	충청 -0.343* 강원 -1.29***		대구경북 0.768*** 충청 -0.394*				대구경북 -0.534**	대구경북 제주 -0.649*			대구경북 -0.425**
n	1187	1194	1190	1197	1200	1198	1194	1200	1195	1196	1142
	*한나라당 기준	*새누리당 기준					*더불어민주당 기준				
	*서울기준										

통일의 편익

- 나이 +
- 교육수준 +
- 제1 야당 +(보수정권)
- 제1 야당 -(진보정권)
- 무당파 -(진보정권)
- 경제만족도 +
- 이념 -(보수)
- 거주지역 + / -

Part 3

3) 북한과 대화와 타협 가능성

- 북한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보는 인식을 나이, 교육수준, 지지 정당, 경제만족도, 이념, 거주 지역 변수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정치적 성향이 더 뚜렷한 차이.
- 나이와 교육수준은 유사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통일 여론만큼 일관되진 않았고, 경제 만족도는 전 기간(2011~2021)동안 일관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
- 보수정당 집권시기엔 진보 야당이 일관되고 뚜렷하게 북한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인식, 진보정당 집권시기엔 보수 야당이 비교적 일관되게 북한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 무당파는 보수정당 집권시기엔 긍정적 인식을 보이기도 했지만 (2013), 진보정당 집권시기엔 비교적 일관되게 부정적 인식.
- 지역차이의 경우 광주 전라 거주자들은 비교적 일관되게 북한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인식했으며, 인천경기, 강원, 충청 등 접경지역 거주자들은 종종 긍정적 인식을 보였고, 부산·울산·경남 거주자들은 한 해(2011)를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부정적 인식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긍정적 인식(2014, 2019)을 보이기도.
-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인식은 거주 지역보다는 주로 정파성과 연결된 모습

표 3. 북한과 대화와 타협 가능성 순위 로지스틱 분석 결과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나이	0.013** (0.005)	0.010* (0.005)	0.016*** (0.005)	0.007 (0.005)	0.009** (0.005)	0.017*** (0.005)	0.009** (0.005)	0.007 (0.005)	0.008* (0.005)	0.003 (0.005)	0.017** (0.005)
교육 수준	0.331** (0.105)	0.326** (0.105)	0.439*** (0.107)	0.182 (0.111)	0.026 (0.111)	0.174* (0.104)	0.192* (0.104)	0.241** (0.115)	0.051 (0.110)	0.041 (0.111)	-0.020 (0.099)
제1 야당	0.590** (0.195)	0.420** (0.190)	0.626*** (0.194)	0.431** (0.187)	0.358* (0.207)	0.165 (0.186)	-0.355* (0.213)	-0.154 (0.241)	-0.453** (0.225)	-0.796*** (0.196)	-0.652*** (0.190)
무당파	0.025 (0.145)	-0.021 (0.148)	0.297** (0.138)	-0.0727 (0.150)	-0.078 (0.145)	-0.343* (0.146)	-0.501*** (0.131)	-0.040 (0.135)	-0.661*** (0.148)	-0.726*** (0.151)	-0.502*** (0.156)
정의당	2.335** (0.878)			1.942** (0.677)	-1.443*** (0.577)						
								바른 미래	-1.155*** (0.363)	국민의힘	-0.831**
경제 만족도	0.264** (0.081)	0.258*** (0.080)	0.448*** (0.084)	0.464** (0.088)	0.691*** (0.085)	0.385*** (0.090)	0.623*** (0.094)	0.408*** (0.090)	0.731*** (0.088)	0.753*** (0.092)	0.511*** (0.092)
이념	-0.041*** (0.073)	-0.270*** (0.073)	-0.361*** (0.070)	-0.036 (0.076)	-0.261*** (0.076)	-0.397*** (0.073)	-0.263*** (0.071)	-0.330*** (0.084)	-0.460*** (0.084)	-0.378*** (0.081)	-0.346*** (0.079)
광주 전라	-0.214 (0.221)	0.736*** (0.225)	0.296 (0.222)	0.659** (0.214)	0.544*** (0.218)	0.200 (0.208)	0.459** (0.211)	0.734*** (0.225)	0.102 (0.228)	0.433* (0.226)	0.457*** (0.233)
부울경	-0.827*** (0.187)	0.242 (0.187)	-0.148 (0.186)	0.367* (0.194)	0.270 (0.199)	0.280 (0.189)	-0.108 (0.190)	0.015 (0.199)	0.378* (0.200)	0.321 (0.206)	0.294 (0.204)
		인천경기 0.226** 강원 0.611* 제주 0.937*		강원 1.049*** 충청 0.541*** 강원 0.552* 제주 0.367*	인천경기 0.782*** 충청 0.541*** 강원 0.552* 제주 0.638*	충청 0.497** 강원 1.135***	충청 0.873*** 강원 0.609*	인천경기 0.728*** 충청 0.775*** 강원 0.953*** 제주 0.806**			인천경기 0.641*** 강원 0.947**
	대구 경북- 0.469* 경원 0.88***		제주 -1.163**					대구경북- 0.440*			
n	1187	1194	1191	1197	1200	1198	1194	1200	1195	1196	1142
	*한나라당 기준					*더불어민주당 기준					
	*서울기준										

북한과 대화와 타협

- 나이 +
- 교육수준 +
- 제1 야당 +(보수정권)
- 제1 야당 -(진보정권)
- 무당파 +(보수정권) -(진보정권)
- 경제만족도 +
- 이념 -(보수)
- 거주지역 + / -

Part 3

4) 경제상황 만족도

- 모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통일 여론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경제만족도를 나이, 교육수준, 지지정당, 이념, 거주지역에 따라 회귀분석을 한 결과,
- 나이와 교육수준은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았음.
- 많은 경우에 야당 지지층과 무당파는 경제만족도가 부정적인 모습.
- 보수 정당 집권시기엔 광주전라 지역 거주자의 경제만족도가 낮았고, 진보 정당 집권 시기엔 특히 대구경북 거주자의 경제만족도가 낮음.

표 4. 경제상황 만족도 순위 로지스틱 분석 결과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나이	-0.009* (0.005)	-0.009* (0.005)	-0.009* (0.005)	0.004 (0.005)	0.011** (0.005)	-0.000 (0.005)	-0.005(0.005)	-0.004 (0.005)	-0.004 (0.004)	0.002 (0.004)	-0.009* (0.005)
교육 수준	0.179* (0.104)	0.082 (0.106)	0.439** * (0.107)	0.274** (0.110)	0.095 (0.111)	0.030 (0.107)	-0.036 (0.111)	0.013 (0.111)	-0.153 (0.106)	0.099 (0.109)	-0.336** * (0.099)
제1 야당	-0.620** (0.196)	-0.082 (0.189)	-0.811** * (0.201)	-0.628** (0.187)	0.0459 (0.205)	-0.512** (0.195)	0.336 (0.218)	-0.629 (0.235)	-1.071** (0.222)	-0.599** (0.194)	-0.480** (0.192)
무당파	-0.607** * (0.145)	-0.423** (0.149)	-0.471** * (0.140)	-0.360** (0.149)	-0.123 (0.075)	-0.458** (0.151)	-0.141 (0.138)	-0.278** (0.134)	-0.618** * (0.141)	-0.772** * (0.146)	-0.637** * (0.155)
정의당	-1.006** * (0.291)			-1.852** (0.681)						-0.843** (0.342)	-0.709* (0.384)
										국민의당	-1.112**
이념	-0.109 (0.073)	0.126** (0.073)	-0.028 (0.072)	0.078 (0.076)	0.031 (0.075)	-0.016 (0.073)	-0.050 (0.138)	-0.085 (0.081)	-0.423** * (0.081)	-0.308** * (0.080)	-0.106** * (0.079)
광주 전라	-0.424* (0.224)	-0.704** (0.227)	-0.041 (0.232)	-0.423** (0.215)	-0.530** (0.212)	-0.463** (0.218)	0.063 (0.220)	0.919** * (0.217)	0.697** (0.223)	0.943** * (0.220)	0.325 (0.228)
부울경	-0.448** (0.185)	-0.172 (0.185)	0.368* (0.188)	0.118 (0.194)	0.495** (0.195)	-0.021 (0.199)	-0.387* (0.205)	0.321 (0.203)	-0.410** (0.197)	1.029** * (0.202)	-0.771** * (0.208)
				인천경기 0.293* 충청 0.626** 강원 0.642*	충청 0.427 강원 0.801				충청 0.343*	제주 1.114**	강원 1.036** 제주 1.103**
	인천경기 0.361** 충청 강원	인천경기 0.597** 대구 경북 0.639**			인천 경기 0.307		대구 경북 0.387** 제주 -1.17**	대구 경북 0.770**	인천 경기 0.669** 충청 0.643**		대구 경북
n	1187	1194	1191	1197	1200	1198	1194	1200	1195	1196	1142
	*한나라당 기준		*새누리당 기준					*더불어민주당 기준			
	*서울기준										

경제상황 만족도

- 나이 -
- 교육수준 + / -
- 제1 야당 -
- 무당파 -
- 이념 -(보수)
- 거주지역 + / -

Part 4.

4. 정당 지지와 통일, 북한, 경제 여론



Part 4

1) 시기별 정당 지지에 통일, 북한, 경제 여론의 영향

- 통일, 북한 여론이 아니라 정당 지지를 종속변수로 보고 통일, 북한, 경제 여론 및 다른 변인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한 결과,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여론이 정치적 차이로 나타나는 결과가 보다 분명히 나타남.
- 보수정당 집권시기엔 통일의 필요성 여론이나 통일 편익 여론보다는 북한과 협력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여론이 진보 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고, 경제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나이가 어리고, 진보 이념성향이고, 광주전라 거주자일수록 집권당보다 진보 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교육수준 변수는 정당지지와 관련이 없었음.
- 반대로 진보정당 집권시기엔 2018-2019년 평화프로세스가 전개된 이후인 2019년부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북한과 협력과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보수 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컸음. 경제 상황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보수 이념 성향일수록, 대구경북 거주자일수록 보수 야당을 지지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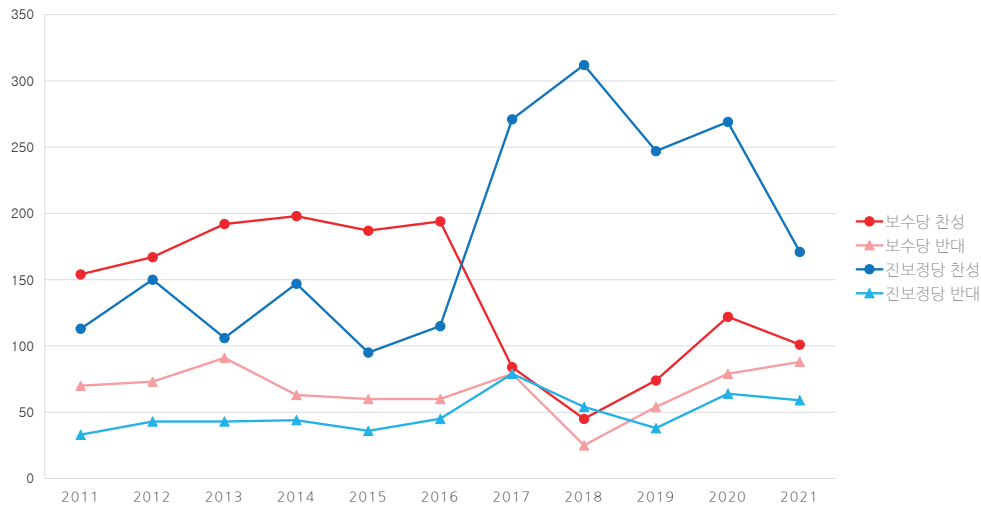
표 5. 시기별 집권당 대비 제 1야당 지지와 통일, 북한, 경제 여론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제1야당	민주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 힘	
통일 필요성	0.112 (0.105)	0.040 (0.903)	0.117 (0.102)	0.000 (0.098)	-0.083 (0.109)	-0.144 (0.102)	0.021 (0.117)	-0.147 (0.136)	-0.298** (0.130)	-0.063 (0.104)	-0.192* (0.103)
북한 협력 대화	0.291* (0.153)	0.271* (0.144)	0.343** (0.148)	0.307** (0.149)	0.356** (0.162)	0.007 (0.140)	-0.135 (0.152)	-0.041 (0.210)	-0.151 (0.196)	-0.488** (0.173)	-0.349** (0.162)
통일 이익	0.200 (0.143)	제외	0.040 (0.149)	-0.003 (0.141)	-0.787 (0.153)	0.436** (0.144)	-0.354** (0.161)	0.120 (0.204)	-0.242 (0.180)	-0.221 (0.156)	-0.194 (0.155)
경제 만족도	-0.554** (0.151)	-0.101 (0.142)	-0.716** (0.156)	-0.586** (0.152)	-0.040 (0.165)	-0.422** (0.159)	0.331* (0.183)	-0.498** (0.200)	-0.594** (0.176)	-0.281* (0.158)	-0.217 (0.155)
나이	-0.048** (0.010)	-0.056** (0.010)	-0.437** (0.010)	-0.053** (0.010)	-0.034** (0.011)	-0.046** (0.009)	0.065** (0.012)	0.021* (0.012)	0.049*** (0.011)	0.031*** (0.009)	0.021* (0.008)
교육	-0.293 (0.193)	0.008 (0.189)	0.124 (0.198)	0.039 (0.191)	0.378* (0.213)	0.051 (0.188)	0.130 (0.213)	0.099 (0.259)	0.011 (0.214)	0.003 (0.196)	-0.058 (0.166)
이념	-0.894** (0.138)	-0.930** (0.132)	-0.509** (0.131)	-1.168** (0.132)	-1.022** (0.146)	-0.929** (0.134)	1.015*** (0.143)	2.244*** (0.196)	1.559*** (0.172)	1.720*** (0.0145)	1.279*** (0.139)
광주전라	2.851*** (0.547)	2.702*** (0.576)	2.939*** (0.532)	2.250*** (0.476)	2.667*** (0.486)	2.791*** (0.488)	-2.185** (0.791)	-17.712	-3.653** (1.062)	-3.634** (0.783)	-2.584 (0.589)
부울경	-0.837 (0.354)	-1.291** (0.350)	-0.515 (0.334)	-1.323 (0.329)	-1.176** (0.456)	-0.554 (0.342)	1.236** (0.398)	0.379 (0.378)	0.168 (0.411)	0.440 (0.334)	0.449 (0.357)
인전경기 영남	인전경기 0.980*** 1.211*	대구경북 1.291***	대구경북 -2.19***	대구경북 0.438	대구경북 1.735 1.282*	인전경기 0.151 1.699 0.862**	대구경북 2.342*** 1.254*	충청 299	대구경북 1.103*** 충청 1.114***	대구경북 1.103*** 충청 1.114***	충청 0.776* 강원 1.336*
n	1187	1194	1190	1197	1200	1198	1194	1200	1195	1196	1142
	*한나라당 기준	*새누리당 기준					*더불어민주당 기준				
		*서울기준									

정당 지지와 여론

- 통일필요성 -(진보정권)
- 북한 대화와 타협 +(보수정권)
-(진보정권)
- 경제만족도 -
- 나이 -(보수정권)
+(진보정권)
- 이념 -(보수정권)
+(진보정권)
- 거주지역 +/-

양당의 통일 필요성 찬반 여론변화(2011~2021)



- 보수정권 시기 보수정당의 통일 필요성 여론이 진보정당의 통일 필요성 여론 보다 높음
- 진보정권 시기 진보정당의 통일 필요성 여론이 두배 이상 높아짐(2017~2020), 최근 2016년 수준 하락
- 진보정권 시기 보수정당의 통일 필요성 여론은 매우 낮아지며 2018년 최저점에서 약간 상승하는 경향

Part 4

2) 무당파와 통일,북한,경제 여론의 영향

- 무당파의 경우, 모든 시기에 경제만족도가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무당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
- 보수 정당 집권시기엔 진보이념 성향, 광주전라 거주자일수록 무당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 반대로 부·울·경 거주자는 무당파가 될 확률이 줄어들고 지지 정당이 분명해짐.
- 정권 교체 시기에 인천·경기, 충청, 대구·경북, 강원 등에서 무당파가 증가.
- 진보 정당 집권 시기엔 북한을 대화와 협력 상대로 보지 않고,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볼수록, 보수 이념 성향일수록 무당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광주전라 거주자는 무당파가 될 확률이 줄고 지지 정당이 분명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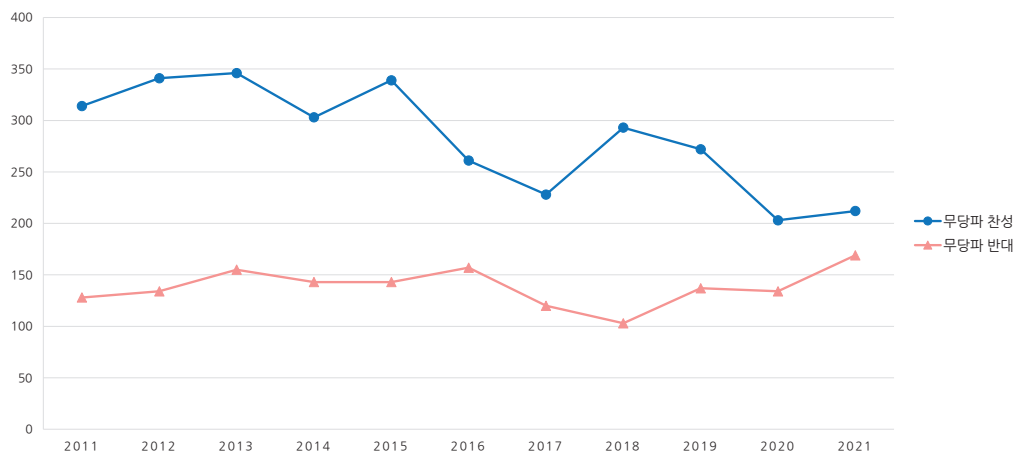
표 5. 시기별 집권당 대비 무당파와 통일, 북한, 경제 여론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무당파											
통일 필요성	0.095 (0.766)	0.007 (0.074)	0.035 (0.071)	-0.877 (0.078)	0.007 (0.077)	-0.090 (0.077)	-0.186** (0.074)	-0.171 (0.078)	-0.253** (0.088)	0.023 (0.084)	-0.035 (0.085)
북한 협력 대화	-0.006 (0.115)	-0.044 (0.115)	0.243** (0.108)	-0.084 (0.121)	0.016 (0.116)	0.300** (0.109)	-0.354*** (0.100)	0.080 (0.121)	-0.382** (0.132)	-0.450*** (0.135)	-0.340** (0.130)
통일 이익	-0.068 (0.105)	제외	-0.151 (0.108)	-0.003 (0.113)	-0.087 (0.111)	0.069 (0.110)	0.112 (0.103)	-0.009 (0.108)	-0.090 (0.117)	-0.410*** (0.121)	-0.261** (0.124)
경제 만족	-0.478*** (0.115)	-0.308** (0.116)	-0.431*** (0.113)	-0.292** (0.123)	-0.135 (0.114)	-0.347** (0.124)	-0.029 (0.120)	-0.230** (0.109)	-0.347** (0.115)	-0.453*** (0.127)	-0.371** (0.124)
나이	-0.055*** (0.008)	-0.056*** (0.008)	-0.495*** (0.007)	-0.068*** (0.008)	-0.064*** (0.008)	-0.059*** (0.007)	-0.015** (0.006)	-0.012* (0.006)	-0.010 (0.006)	-0.024*** (0.006)	-0.020** (0.006)
교육	0.004 (0.141)	-0.001 (0.150)	0.128 (0.142)	-0.158 (0.151)	0.014 (0.150)	-0.029 (0.148)	0.025 (0.136)	0.226 (0.139)	-0.141 (0.148)	-0.133 (0.154)	-0.062 (0.136)
이념	-0.345*** (0.102)	-0.474*** (0.101)	-0.358*** (0.096)	-0.653*** (0.104)	-0.472*** (0.103)	-0.231** (0.105)	0.687*** (0.094)	1.051*** (0.107)	0.799*** (0.113)	0.996*** (0.115)	0.791*** (0.109)
광주 전라	1.717*** (0.499)	1.393** (0.565)	1.501** (0.504)	2.013*** (0.454)	1.600*** (0.435)	1.820*** (0.455)	-0.689** (0.261)	-1.013*** (0.270)	-1.651*** (0.283)	-1.095*** (0.300)	-1.175*** (0.297)
부울경	-0.847*** (0.244)	-0.736** (0.240)	-0.922*** (0.236)	-0.802** (0.262)	-0.157 (0.266)	-0.452* (0.261)	0.584** (0.249)	-0.072 (0.249)	0.182 (0.277)	0.143 (0.285)	-0.028 (0.309)
n	1187	1194	1190	1197	1200	1198	1194	1200	1195	1196	1142
	*한나라당 기준	*새누리당 기준					*더불어민주당 기준				
		*서울기준									

무당파와 여론

- 통일필요성 -
- 북한 대화와 타협
+(보수정권)
-(진보정권)
- 통일 이익 -
- 경제만족도 -
- 나이 -
- 이념 -(보수정권)
+(진보정권)
- 거주지역 +/-

무당층의 통일필요성 찬반 여론변화



- 무당층의 통일 필요성 여론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무당층의 통일 반대여론은 2018년에 가장 낮다가 최근 몇년간 상승하는 추세

Part 5.

5. 결론과 함의



2011~2021년 11년간의 추세로 본 통일 여론

- 통일의 필요성,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 북한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지지 정당, 이념, 지역에 따른 차이
- 경제상황 만족도는 일관되게 통일여론에 긍정적. 하지만 경제상황 부정 인식은 무당파와 정치적 반대의 증가에 이어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
- 진보-보수 정권 교체시 양대 정당과 지지층은 통일 여론, 북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며 통일 정책을 두고 대립하는 모습, 이것이 이념, 지역, 나이와 연결.
- 무당파는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나이가 많을 경우 형성. 진보집권 시기에는 북한인식, 통일 필요성, 통일이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이 최근 경향.
- 주변국 호감/위협인식도 시기에 따라 통일 여론, 북한 인식, 정당지지와 이념 성향에 영향. 특히 미국에 대한 호감과 위협인식, 북한에 대한 호감과 위협인식,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인식들이 때때로 통일, 북한 인식, 정당지지, 이념에 영향

통일, 평화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합의

- 통일, 평화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만족도가 향상되어야 할 필요.
- 비핵-평화프로세스에 주변국들도 서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미중 경쟁 시대에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간의 합의 뿐 아니라 4자, 6자 등 다자간 평화, 안보 협상과 합의가 필요.
- 정권 교체에 따라 양당간 대립과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체제(대통령-양당제-단임제-중앙집중)에서 통일과 평화프로세스를 지속시킬 수 있는 국내 정치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도
- 동서독 교류 협력과 통일, 미국의 연방형성 과정, 유럽 통합과 연합의 형성과정에서도 상당한 논쟁. 미래상에 대한 다양한 논쟁과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현실화되는 과정. 북한/통일 문제에 대한 논쟁과 미래상에 대한 다양한 논쟁, 여야-국민적 합의 형성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1 통일인식조사

**통일과 평화,
시대와 세대
앞에 서다**

제2부 심화분석

토론3

지속가능한 통일 정책과 여론조사

이상신 (통일연구원)

토 론 문

이상신 (통일정책연구실장 / 통일연구원)

1. 주변국 인식 심화분석

□ 총평

- 한국이 본격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국력이 강화되면서, 동북아에서의 국제적 힘관계에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음.
- 최근 한중 및 한일관계의 악화, 한미관계의 변화 원인은 근본적으로 한국의 위상 변화일 수 있음.
- 주변국 인식은 그 해당 국가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면서 동시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기도 함.
 - 따라서, 북한, 중국, 미국 등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면 그것은 한국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을 가능성이 높음.
 - 예를 들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인식이 악화되면서 동시에 한국에 대한 애국심과 자긍심이 높아진 예를 들 수 있음.
- 서울대 통일외교연구소에 독립변수로 쓸 수 있는 문항들을 더 추가하여 이런 부분들을 보강할 필요 있음

□ 중국인식

-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통일연구원이나 아산 등의 조사결과와도 일치.
- 주변국 인식간의 상관성 도표(7p)에서 친밀감과 위협 사이 의외로 상관성이 높지 않음.
 - 예를 들어 '미국친밀감'과 '미국위협'의 상관계수는 -0.1837 인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결코 강한 상관관계라고 할 수 없음.
 - 마찬가지로 중국친밀감과 중국위협은 사실상 상관관계가 없고, 북한위협과 북한친밀감도 -0.1105 에 불과.
 - 이는 위협과 친밀감을 측정하는 도구가 compatible 하지 않은 때문으로 추정됨.

□ 분석방법

- 북한위협로짓, 중국위협로짓 분석에서 응답자의 개인수준 변수들이 독립변수에서 빠져 있음
 - 지지정당, 이념, 연령, 지역 등 한국인의 정치적 태도와 통일 및 북한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변수가 누락
 - specification의 문제

□ 해석의 문제

- 구성주의적 접근에서 공유가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면서 ‘중국의 한반도 통일희망’을 사용.
 - 그러나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바란다 / 안바른다고 판단하는 것을 가치의 문제로만 볼 수 없음. 예를 들어 중국이 자국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한반도의 분단을 원한다고 인식한다면, 이는 충분히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볼 수 있음.
- 중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이유로 가치의 공유를 가설설정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 있음.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통일희망 문항이 이 가설을 검증하는 도구로 적절치 않아 보임.
- 이 연구의 17p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한중협력에 부정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태도에 대한 설명이 궁금.

2. 통일의식의 장기적 추세와 지속가능한 통일 · 평화 정책의 조건

□ 통일필요성 변수의 문제

- 통일필요성 변수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음
 - 즉, 남북관계가 원만하고 대화 및 타협이 이루어지기는 시기에는 통일필요성이 상승하지만, 남북사이에 분쟁이나 갈등이 격화되는 시기에는 통일필요성 하락.
 - 이는 통일 필요성 변수가 통일에 대한 기저의 태도와 감정을 보여주기에 적절하지 않은 문항일 수 있음을 시사.
- 통일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한국의 일반적인 응답자들에게는 윤리의 문제임. 즉, 실제로 통일이 불필요하다거나 심지어 통일이 국익이나 개인의 삶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문항에 답할 경우 심리적 갈등을 느낄 가능성이 높음.

□ 정당지지별 통일필요성 찬반 여론변화

- 21p의 그래스에서 y 축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음. frequency? percentage?
- 2016-2017 사이에서 “진보정당 찬성”이 급증. 그런데 이 시기는 탄핵과 맞물려 한국 정당정치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시기임.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진보정당 집권에 따른 변화인지, 아니면 탄핵의 여파에 따라 국민들이 보수정당을 외면한 단기적 변화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